

570돌 한글날 기념

국어학 학술 대회

주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때 : 2016년 10월 7일(금) 10:00-16:20

○곳 :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주최:  한글 학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

주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차 례•

[제1부: 주제 발표]

이 창덕(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 국어 어휘 교육과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표기에 대하여 7

이 병규(서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 초등 국어과 교육의 내용과 한자 교육 -한자 교육의 국어과 교육으로의 수용과 관련하여- 27

신 현숙(상명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 중등 국어 교육과 한자 (한문) 교육 47

[제2부: 연구 발표]

이 정우(경기 현산초등 교사)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자 병기 도입에 대한 비판적 논의 71

김 서경(서울 이수중 교사) : 교과서에서의 한자 병기 필요성 재고 93

이 성하(한국외대 영어학과 교수) : 범언어적으로 본 언어와 문자 표기 방식 113

김 경일(상명대 중국어문학과 교수) : 한자 병기 방식의 한자 교육이 교육적이지 않은 한자학적 이유 127

이 건범(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 한자 지식이 한자어 이해에 주는 효과 139

제1부: 주제 발표

국어 어휘 교육과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표기에 대하여/ 이 창덕

초등 국어과 교육의 내용과 한자 교육

-한자 교육의 국어과 교육으로의 수용과 관련하여-/ 이 병규

중등 국어 교육과 한자 (한문) 교육/ 신 현숙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2016년 10월 7일 (금) 10:00 ~ 16:20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 제1부: 주제 발표

국어 어휘 교육과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표기에 대하여

이 창덕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leechang@ginue.ac.kr

1. 머리말

훔볼트(W. Humboldt)와 헤르더(J. G. Herder), 바이스게르버(J. L. Weisgerber) 등의 서구 언어철학자들의 주장을 빌지 않아도 언어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또 인간에게 자신들의 말을 기록하는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문자가 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에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세계사에서 강국의 흥망성쇠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자 기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민족은 지식과 정보를 시간,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파하게 되어 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강대국을 형성했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자 체계를 갖지 못한 민족은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한 국가의 공용 문자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 자체가 중요한 문화가 되며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문자 정책을 정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변경할 때는 정부는 수많은 요인을 고려하고 체계적 연구를 거치고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마다 국민 생활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초, 중, 고 교과서 모든 과목 교과서에 한자병기를 검토한다는 보도 자료(2014.9.23. 교육과정정책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요약 보도 자료)를 내면서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공문서와 교과서 한자 표기 논란에 불을 붙였다. 1894년 고종 칙령 1호에 따라 우리말을 한글로 적기로 한 언문일치의 원칙이 백여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글 전용이 정착한 이즈음에 한문과 한자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교과서와 공문서에 한자를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일이다. 한자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를 ‘한글’로 규정하고 정규 교과서와 공문서 모두 한글로 쓰도록 한 ‘국어 기본법’(제3조)이 국민들의 어문생활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자는 이 천 년 이상 우리가 사용한 문자이므로 우리 문자라고 주장하고, 학습자들의 창의력, 사고력, 인성 교육을 위해서도 한자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초등 전 과목 교과서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한자 표기(교과서 본문 외 글머리나 옆, 밑 등 다른 곳에 한자의 훈과 음을 달고 한자어를 설명하려는 방식)를 시도하고 있다.¹⁾

국가 문자 정책은 국어 발전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나아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정책이다. 문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음성기호로 바꾼 것이다. 우리말은 우리 글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하려고 이두, 구결, 향찰 등의 여러 방법을 사용했지만 실패했고, 일부 상류지식인들만 외국어인 중국 한문으로 문자생활을 누려왔다. 수천 년 문자 없이 살아온 어린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정신과 한문 중시한 상류 지식인들의 한글 경시 풍조와 일제 강점기 한문 혼용 주의가 팽배한 시기에 묵숨으로 한글 운동과 한글 보급을 힘쓴 분들의 정신을 생각할 때 요즘의 교과서 한자 표기 논란은 매우 안타깝다. 한자어를 한자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일부 한자어의 사용 혼란이나 의미 파악의 어려움을 내세워 한자를 우리말을 기록하는 우리문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우리말을 기록하는 데 초등 수준에서 한자가 꼭 필요하고 당장 교과서에 표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급한지, 창의력, 사고력, 인성 교육에 정말 한자 교육이 기여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정책과제를 공모해서 초등학교에서

1) 교육부는 지난 4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에 따른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서 한자어 풀이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계획서 공모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만약 연구계획서가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주관과의 심의를 통과하면 현장적합성 연구 등을 거쳐 새 교과서에 반영되고, 연구 결과가 반영된 교과서는 2018년부터 현장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이 신청서를 통해 “현재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한자 목록과 한자어 풀이 방안이 없다”며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2016.4.25 <주간조선>2404호 커버스토리 중 일부)

2-300자의 한자를 가르치고, 5-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공문서와 교과서 한자 병기 또는 표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6개월 정도의 정책 연구 한두 편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광범위한 자료와 장기간의 기초 조사와 연구, 한자 표기에 따른 문제 검토와 대안 탐색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순리이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또는 한자 표기 방침과 관련하여 한자 교육과 한자 표기 관련해서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초등학생의 어휘력이 한자를 배워야 좋아지고, 한자어는 반드시 한자로 표기해야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능력이 생기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초등교과서 한자어 한자병기가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국어 어휘력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어 어휘력과 한자

2.1. 학습자의 낱말 이해 과정과 어휘력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말 듣기, 말하기를 먼저 배우고 그 말을 기록한 글자를 배우고 낱말과 문장을 익히고 실제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익히게 된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듣기 말하기를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 사용 되는 낱말과 문장을 배우고 글자와 글쓰기는 나중에 배우게 된다. 언어는 말이 기본이고 문자는 말을 기록하는 기호이므로 말을 배운 다음에 배우게 된다.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은 낱말들의 발음과 의미, 그리고 쓰임새에 대해서 익혀나가게 된다. 아이들의 어휘력은 언어 사용 경험을 통해서 먼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문자를 통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들의 어휘력 신장은 문자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언어적 경험의 축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한자를 가르치고 초등 교과서에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주 내세우는 핵심은 ‘현재 국어사전에 실린 낱말의 절반 이상이 한자어이고 한자어는 한자를 알아야(읽고 쓸 줄 알아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이 주장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한자 교육과 한자어 한자 표기 주장을 어휘 의미의 본질을 살펴보면 타당성이 모자란다. 임지룡(1997)에서는 어휘의미를 연구하는 데

있어 기본 전제를 1) 자연언어는 인간 마음의 산물이다. 2) 낱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백과사전적이다. 언어지식과 세상지식의 구분이 아니라 통합이다. 3) 언어의 의미는 인간의 세상 경험에 기초를 둔다. 4) 언어표현의 구조와 의미는 동기화되어 있다.²⁾ 어휘 의미의 생성 본질을 고려하면 한자의 훈과 음을 알면 한자어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표기 주장자들의 말은 다음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경험과 지적 수준에서 익혀야 할 낱말 가운데 한자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거의 없다. ‘가뭄이 길어져 먹을 것이 모자라면, 애 어린 할 것 없이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발(旱魃)이 심(深)해져 식량(食糧)이 부족(不足)해지면 남녀노소(男女老少) 불문(不問)하고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근근(僅僅)히 생명(生命)을 부지(扶支, 扶持)했다.’라고 굳이 어려운 한자어를 동원해서 말하고, 그 뜻을 잘 모른다고 한자를 가르치고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은 기초 국어교육을 망치는 주장이다. 초등 교과서에 한자어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 한자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노력을 먼저 해서 초등학생들의 우리말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먼저다. 어릴 적 ‘잠자리비행기’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는 ‘헬리콥터’라고, ‘헬리캠코더’를 줄여서 ‘헬리캠’으로 부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영어의 어원을 살려서 이해하기 쉽도록 ‘helicopter’, ‘helicam’으로 쓰거나 병기하자고 하는 주장이 나올까 염려스럽다.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면 그와 함께 용어도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우리말로 바꾸거나 우리말답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학습어휘 가운데 순 우리말로 바꾸면 좋은 한자어나 외래어 연구 과제를 내고 신청서 공모를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구근(球根)식물’을 ‘알뿌리식물’로, ‘자승(自乘), 평방(平方)’을 ‘제곱’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말본’과 ‘문법’, ‘이름씨’와 ‘명사’와 같은 용어 한두 개를 두고도 오랫동안 학자들이 다투어 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모든 교과와 학습어휘를 단기간의 연구를 거쳐 토박이말로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출발이라고 본다. 어렵거나 모호한 어휘를 우리말로 바꾸는 연구를 해보면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학습어휘들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한자어는 한 음절로 되어있지 않고 두 음절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한자를 알아도 그 한자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단어의 의

2) 서혜경(2014) 재인용.

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다시 말해, 한자로 표기하고 각 한자의 훈과 음을 가르쳐도 한자어의 뜻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 많다. 한자어는 원래 한자 각 글자가 지닌 기본 개념의 의미의 조합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회사(會社)의 경우, ‘모일 회, 토지의 신 사’를 알아도 의미 파악이 어렵다. 기업(企業)의 경우, ‘피할 기, 일 업’을 알아도 그 뜻을 알기 어렵다. 사회(社會)같은 단어도 마찬가지다. 원래 중국에서 한자가 만들어질 때도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는 그리 많지 않고, 음을 빌리거나 소리와 뜻을 합쳐서 만든 글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시대가 지나면서 의미도 달라졌다. 아주 기본 개념을 드러내는 글자를 왕의 이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민중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 전혀 다른 의미의 글자를 그 대신 사용한 때도 있었다. 힌두교나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인도 낱말이 한자의 원래 뜻과 상관없이 발음을 따서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빌어 새로 만든 개념어들은 중국 사람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말을 기록할 문자가 없이 중국의 문자를 빌려 이두(吏讀), 향찰(鄉札), 구결(口訣) 등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불편하여, 아예 외국어인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천년이나 되다보니 우리말에 한자어가 들어오고, 한자어가 우리말 낱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인도 철학을 배경으로 만든 체(體), 상(相), 용(用)의 개념을 인용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문법 용어 ‘용언(用言)’은 한문을 잘 아는 한학자에게 물어도 왜 용언인지 모를 수밖에 없다. ‘영겁(永劫)’은 ‘길 영(永) 위협할 겁(劫)’을 알아도 의미를 알아내기는커녕 의미 파악에 혼란을 일으킬 뿐이다. 물론 ‘겁(劫)’이 불교에서 ‘천지가 개벽할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긴 세월’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불교 교리를 알면 영겁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한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교 교리를 배워야 아는 것이다. 부사 ‘흥청망청(흥에 겨워 마음대로 즐기는 모양, 돈이나 물건을 마구 쓰는 모양)’을 한자어 ‘興淸亡淸’이라고 쓴다고 그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들이 ‘야단 치다/맞다’의 야단이 ‘惹(이끌 야)端(끝 단)’를 배우고 한자로 쓴다고 ‘끝으로 이끈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듯 한자의 뜻과 한자어의 뜻의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의 훈과 음을 알면,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언어의 발생과 변천을 모르는 사람의 막연한 믿음이거나 희망 같은 것이다. 한자를 가르치지 않아도 한자어에 쓰인 어휘소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 한자를 배운 학생과 마찬가지로 한자어의 의미를 알고, 합성어를 만들고 관련 어휘로 확대하는 능력이 좋아졌다는 최근의 인지과학자의 연구³⁾는 중요한

3) 배 성봉, 이 광오, 마스다 히사시(2016), 새로운 단어의 학습에서 형태소 처리의 영향: 개

의미가 있다. ‘소설가, 화가, 만화가, 조각가, 작가’에서 이들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용된 모든 한자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가’에서 ‘무엇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의미를 찾아내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집 가(家)’라고 한자를 가르치고 쓰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한자 표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형태소가 가진 개념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한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직접적 관계없이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자 자체의 훈과 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자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의미소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임이 이 연구는 말해준다.

2.2. 학습자 어휘 품질과 낱말의 의미투명성

한 낱말을 안다는 것은 여러 과정의 여러 차원에 걸쳐서 많은 지식과 기능을 갖춘다는 의미여서 간단히 규정하기 어렵다. 마치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무엇을 안다는 것인지, 얼마나 안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가끔 뉴스에서 보고 아는 사람의 얇은 미셀 오바마가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것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얇’이다. 어느 일본학자가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말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수십 년 같이 산 부부도 속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 상대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한 낱말을 안다는 것은 어원을 안다든지 한자표기를 안다고 그 단어를 잘 안다고 하기 어렵다. 발음, 형태, 의미, 통사 규칙, 화용 원리 등 여러 영역에 관련한 지식을 잘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식을 퍼페티(Perfetti)는 어휘 품질(lexical quality)라고 규정⁴⁾하고, 어떤 단어가 발음, 표기, 의미 정보가 명확하게 파악되면 그 단어는 어휘 품질이 높은 단어라고 보고 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한자로만 표기할 경우 발음이나 표기 영역에서 어휘 품질이 낮고, 한자어의 경우 구성 한자의 뜻과 관련성이 큰 경우 의미 정보의 영역에서 어휘 품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자어의 한자는 한 글자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글자들의 의미 결합이 한자어의 의미와 같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자를 알면 한자어의 의미를 잘 안

인차 연구. 『인지과학』27(2), 159-180.

4) Perfetti, C.A.(2007), Reading ability: Lexical quality to comprehension,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11(4), 357-383.

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타당성이 낮다.

하나의 한자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한 의미로 그 한자어에서 의미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한자어 의미 파악이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많은 섬들이 ‘○○도’라고 이름 붙여지고 그 ‘도’가 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島’라고 써야 한다고 한자 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한다. 그래야 ‘도서(島嶼)’, 열도(列島), 제도(諸島), 군도(群島) 등의 개념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섬’의 사전적 의미는 「명사」 『지리』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 분포 상태에 따라 제도(諸島), 군도(群島), 열도(列島), 고도(孤島)로 나누며, 생겨난 원인에 따라서는 육도(陸島)와 해도(海島)로 나눈다. ≡주도05(洲島) 「1」 ”로 되어있다. 그런데 어떤 땅이 섬인지 판단하는 것은 섬을 한자로 島 라고 쓰든지, 사전의 설명을 읽고 이해해도 어렵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땅 주위가 모두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왜 섬이 아닌지, 초등학교 모래땅에 비오는 날에 아이들이 손으로 흙을 파서 물로 둘러싸인 땅은 왜 섬이라고 하지 않는지, 사막에 비가 오면 주위가 모두 물로 둘러싸이는 땅은 왜 섬이라고 하지 않는지 등은 한자의 훈과 음을 알면 그 낱말의 개념과 사용역(使用域, register)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어휘 생성과 사용 체계에 대해서 모르는 말인지를 깨닫게 해 준다.

2.3. 한자어 사용과 한자 학습과 표기

한자어를 일상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한다는 것과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한자를 학습하는 것과 한자로 표기하는 것과 국정 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 이들을 혼동하거나 한꺼번에 다루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상이나 전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한자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말을 표기할 수단이 없이(사실은 한자를 빌려 표기해 보려다가 포기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꾸려온 탓에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그렇지만 국어에 사용되는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어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원래 그 외국어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을 꼭 ‘television’ 또는 ‘텔레비전(television)’ 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영어로 ‘tele’가 ‘멀리’라는 의미이고, ‘vision’이 ‘시력, 관찰력, 상상력, 광경’ 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좋고 영어 알파벳으로 쓸 줄 아는 것도 좋지만 이미 국어가 되었고, 외국어로 표기하지 않아도 의미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현학적 우월감을 드러내듯이 영어로 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영어의 어휘에서 상당 부분이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현대 영어에서 라틴어 표기를 사용하거나 라틴어를 병기하지는 않는다. 라디오, 텔레비전, 카메라 등이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영어 알파벳이 우리 문자가 아니듯이 한자어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한자가 우리 문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영어 알파벳과 비슷한 문자를 자신들의 말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고, 베트남이나 중국에서도 일부를 영어식 알파벳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그 말의 특성에 맞춰 완전히 기록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문자라고 볼 수 있지만 한자로는 우리말을 기록할 수 없는 음절이 너무 많고, 한자어 어휘 구조는 우리말의 통사와 활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우리 글자라고 할 수 없다. 한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글자이고, 중국말을 기록하기 위한 문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 민족이 글자가 없어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기록해 보려고 이두, 구결, 향찰 방식을 사용하다가 아예 외국어인 중국어로 문자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해서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한자어를 굳이 한자 표기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국어 어휘 안에 한자어가 많고 일부 한자는 배우면 국어 어휘 이해와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자의 훈과 음을 알면 한자어의 의미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실제 그다지 비율이 높지 않다. 허민(2016)에서 보여준 수학 용어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중고 교과서에 사용되는 수학 용어 가운데 20.99%만이 한자의 의미가 단어 의미 이해에 직접 도움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의미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자 어원과 관계가 없거나 방해가 되어 이해가 어려운 용어들은 더 쉽고 혼란이 없는 용어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견범(2016)에서는 초등교과서에 사용된 한자어의 한자 어원 상관성을 분석해 보니, 넓게 보아 31%이고 나머지 한자어는 어원과 상관성이 없거나 어원이 동어반복이거나 상관성이 낮은 한자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학교 등급이 올라가고 전문 용어 등을 배워 어휘 확장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학습자들이 한자를 배우면 국어 어휘력에 신장에 도움이 되므로 한자를 배우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현재 중학교 교육용 한자 900자, 고등학교용 교육용 한자 900자(중학교용과 합쳐1,800자)를 필요하다면 제대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습용 한자는 200-300자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불과 며칠이면 익힐 수 있는 분량이다. 그 정도 한자를 배우기 위해 우리말의 기초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지우고, 모든 교과에서 한자의 훈과 음을 배우고, 부수를 배우고 하는 일은 실질과 능률면에서 효용성이 낮은 정책이다.

그런데 현재 교육용 한자 지정은 국어 어휘 품질을 높이고 한자어의 의미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정한 한자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연구 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학습용 어휘 가운데 한자로 표기하고자 하는 한자들은 그 수준이 초등학교에서 기초로 쉽게 배울 한자가 아닌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마름모꼴을 ‘능형(菱形)’이라고 하고, ‘사다리꼴’을 ‘제형(梯形)’이라고 하는데, 능(菱)과 ‘제(梯)’ 등은 초등 수준에서 기초로 쉽게 배울 한자들이 아닐 뿐더러 그 생산성, 어휘력 신장에 기여도 등에서 보면 배울 가치가 적은 것들이다. 파충류(爬蟲類)에서 굽을 파(爬)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너무나 어렵고 활용 가치가 낮은 한자여서 기초 학습 어휘를 배우는 데 필요한 초등 기초 한자가 도움이 될지 염려스럽다.

3. 초등교과서에 한자 병기/표기의 문제점⁵⁾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초등 교과서에 병기하려고 하고, 그것이 잘 안 되자 단원별 중요 어휘, 풀이말 등의 형식으로 교과서 지면에 한자를 표기하고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을 생각할 때 문제가 많다. 영어도 배우고, 희랍어와 라틴어도 배우고, 고대 수메르 문자까지 배우면 초등학교생들의 지식도 풍부해지고 향후 학습에도 좋겠지만, 초등 단계에서 한자를 국가 차원에서 교과서에 표기하고 가르치게 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문제가 될 것이다.

3.1. 국가 정체성과 나라말글(국어국자) 문제

공문서나 국가 지정, 검인정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한자가 대한민국이 정한 나라 글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천년 이상 한자 문화의 영향권 아래 살아오고 백여 년 전까지 공식 문서를 한자로 썼다고 해서 한자를 국가 공식 문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법적 정통성으로 보아도 19세기 말부터 대한민국의 나라 글자는 한글이었다. 1894년 고종의 칙령 1호 (공문식제公文式制에 관한 것. 1894년 음력 11월 21일)에 ‘국문(國文)과 ’한문(漢文)을 엄격히 구분하고 국문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第14條 法律勅令總 以國文爲本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한다.)

5) III장은 2015년 2월 국회회관에서 이루어진 ‘초등교과서 한자병기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948년 공포한 대한민국 건국 직후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2005년 공포한 ‘국어기본법’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나라글자가 한글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2004년 한문교육과 사용 관련 위헌 소청 재판에서 헌법 헌법재판소는 “우리말을 국어(國語)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우리말에 맞춰 제정한 한글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공식 문자는 한글이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자를 국가 문자에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문자생활에 어려움을 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문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국가 문자로 빌려 쓰던 한자를 과거처럼 한글보다 더 높게 받들어서는 안 된다. 한글 전용으로도 일상에 어려움이 없는데 한자를 국자로 인정하고 일상에서 날마다 쓰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다시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다. 일부 한자한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현재 국어 어휘의 반 이상이 한자어라고 하여 한자를 배우고 일상에서 혼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가 미래사회를 향해 발전하는 길에 걸림돌과 장벽을 세우는 주장이다. 한문 영향으로 한자어가 많아져 한자를 배우면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한자 배우기의 어려움과 한자 의미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한자는 너무나 비경제적인 문자이다. 우리 말글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기초 수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를 포함하고,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는 것은 불합리하고 잔인하다.

언어 계통이 다르고 문장 구성 방식과 단어 형성법, 발음 운용까지 전혀 다른 중국의 한문으로 우리말글을 표기하고 한문 공문서를 사용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겪은 불편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한 일부 사대부를 제외한 일반 백성이 문자로 인해 겪은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우리말을 우리 글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것은 개인 차원의 행복이고,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 지표이다. 한 사회학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바탕을 마련한 것은 전제 군주제를 버리고 민주공화국 체제를 선택한 것과 한문을 버리고 한글을 국가 문자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천 년 이상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살아오면서 우리말 낱말에 한자어가 많아지고 곳곳에 한문 문화가 남아있어 한자와 한문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 고집하면 국가 발전이 없고 가능하면 그 영향을 줄이는 쪽으로 문자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공식 문자가 아니고 중국 글자이다. 그것도 과거의 중국 글자이다. 한자어는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라 중국어에서(상당 부분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다. 말소리 그대로 표기하는 한글이 있는데 한자어에서 왔다고 해서 그 말을 굳이 한자로 쓸 필요는 없다. ‘텔레

비전, 컴퓨터, 라디오, 피자, 호르몬' 같은 외래어를 굳이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문자로 'television, computer, radio, pizza, Hormon'이라고 원어만 쓰거나 '텔레비전(television), 컴퓨터(computer), 라디오(radio), 피자(pizza), 호르몬(Hormon)'처럼 병기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어의 경우 절반 이상이 라틴어, 불어 등 외국어에서 유래한 단어이지만 실제 생활이나 초등 교과서에 그런 어휘를 원어로 표기하는 경우는 없다. 일본어의 경우 운용 가능한 음절수가 지나치게 적고 가다가나와 히라가나로 쓸 때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를 섞어 쓰지만, 일본어에서 한자로 써진 부분은 읽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한자로 써진 이름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물어보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소학교 졸업 후에도 어른들이 보는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일본 학생이 한국 학생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한자 병기나 혼용을 주장하는 분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국민 공통교육과정의 기본 과정인 초등교육 교과서에서 한자어를 모두 한자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면 초등 교육은 파행이 빚어질 것이 뻔하다. 초등 수준에서 배울 한자를 한정한다고 하지만 한자는 배우고 익히기가 어려운 비경제적인 문자이다. 인류 문자 발달사를 보아도 그림문자, 상형문자, 낱말문자, 음절문자, 음소문자 순으로 발전해 왔는데 한자는 음소문자인 한글보다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어렵고 활용이 비경제적이다. '산'을 '山'이라 표기하면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낱말 수만큼 글자를 만들어야 하고, 그 글자들의 조합은 다시 어떤 의미인지 다시 배워야 한다. 한마디로 한자는 배우는 노력에 비해 문자로서 효용성이 낮은 문자이다. 수 만자의 글자를 가지고도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한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한자로 보내려면 열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국이 과거의 한자를 버리고 간체자를 개발하고 휴대전화에서 입력할 때 영어 알파벳을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상형문자인 한자로 인한 문자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낸 교육 지책이다.

어렵고 힘든 한자를 모든 초등 교과서에 병기/표기하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모든 교육 내용보다 우선하게 되어, 마치 법률에서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초등 모든 교과에서 교과 내용을 배우기 전에 한자를 먼저 배워야 하고 초등 수준에서 먼저 배워야 할 기초 내용을 배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한자 교육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초등 수준에서 꼭 익혀야 할 한자 어휘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한자어일지라도 굳이 한자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초등학생이 한자를 배우고 한자를 그리듯이 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초등교육에서 중요한 교과 내용을 놓칠 것이 분명하다. 국어교육에서 글자의 조합과 운용, 맞춤법과 표준발음법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합

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한자를 배우고 쓸 줄 안다고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다. 수학이나 과학, 사회, 음악이나 미술 교과에서 나오는 한자어의 경우도 그 교과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관련 어휘의 개념을 설명하면 된다. 굳이 한자로 쓰고 읽을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는 없다. 한자로 표기하거나 병기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읽기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교과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학년이 높아져 어려운 개념어 이해를 위해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한자와 한문 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초등학교 학습 부담이 많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학습량을 줄이도록 해서 새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용 한자를 정하고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표기하는 것은 학습 부담을 늘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고려한다는 200-400자 정도의 한자는 중고등학생이면 한두 주 동안 공부하면 모두 익힐 수 있는 분량이다. 굳이 초등 한자를 정하고 교과서에 병기하여 초등학생을 괴롭히고 초등교육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3.2. 국어 발전의 문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기 전까지 국가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편지까지 한문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일반 백성들이 겪었을 어려움과 슬픔을 생각하면 현재 누구나 우리말을 우리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 문자가 없고, 한문으로 공용문서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말에 한자어가 많아졌고 한자를 배우면 어휘력이 늘고 한자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자를 배우고 한자어를 많이 아는 것은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다른 교과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주장은 한자와 한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한자 교육의 강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글로 적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적을 이유가 없다.

한자와 한문 교육을 강화하면 누릴 수 있는 장점과 혜택과는 반대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 역사를 보면 새로운 지식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기록은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었다. 한문을 잘 아는 것이 새로운 문물에 대한 지식을 얻는 길이고, 한문을 잘 알아야 개인적으로도 성공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지식의 대부분이 서구로부터 흘러들어오고 기록은 영어로 되어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이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가르치면서

왜 한자는 정규 교과에서 못 가르치게 하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맥락을 모르는 주장이다. 왜 현재 한국에서 학교와 사회 전반적으로 영어보다 한문이 인기가 없는지 헤아려야 한다.

과거 한자와 한문이 우리 언어생활을 지배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한자어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말로 대체되어 쓰이는 것들이 많다. 국어 대사전에 실린 한자어의 상당수는 현재 어느 문서에도 쓰이지 않는 죽은 어휘가 되어버렸다. 또 한자를 안다고 해서 그 단어의 뜻을 사전을 찾거나 선생님께서 부터 설명 듣기 전에 안다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 한자를 잘 알고 한문 교육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들에게 문법에서 사용하는 ‘체언(體言)’은 ‘몸 체, 말씀 언’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인데 왜 체언이라고 하는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정확히 그 이유와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수학의 기하는 한자로 ‘幾何’로 쓴다고 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몇 기, 어찌 하’라고 훈과 음을 다 알아도 기하의 뜻은 알 수 없다. 기하는 영어의 ‘geometry’의 앞부분만 억지로 한자음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사용하던 ‘원추(圓錐)’를 ‘원뿔’로, ‘누두(漏斗), 여두(濾斗)’를 ‘깔때기’로, ‘극서주(極徐奏, 라르고)’를 ‘아주느리게’로 바꾸는 것이 이들 한자를 배우고 표기하는 것보다 국어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국제 학술지나 인터넷 등에서 소통되는 지식 내용의 대부분은 영어로 되어있는데 과거 문자 생활이 한문이었다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데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미래 중국이 세계를 정치, 경제적으로 이끌어갈 강대국이 된다고 보지만 현재 중국도 우리가 사용하던 한자와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타이베이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로는 소통하기 어렵다. 어휘 또한 차이가 많아 소통할 수 없거나 오해하기 쉽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를 우리식으로 바꾸더라도 ‘酒店’은 ‘술집’이 아니다. 정작 미래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중국 사람과 소통하게 하려면 한자가 아니라 외국어로서 현대 중국어를 제대로 배우게 해야 한다.

앞으로는 한자한문을 쓰면서 생긴 엉터리 우리말을 우리말답게 가꾸고 다듬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해야 한다. 한자와 한문 때문에 왜곡된 우리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한문 중심의 문자 생활은 불필요한 동음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으며, 오랫동안 우리말을 위축시키거나 없애버렸다. 조상들이 ‘가라되’라고 부르던 마을 이름을 한자로 ‘江梅’로 바꾸고, ‘아버지’보다 ‘父親’을 더 선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군 지휘관들이 한자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익히 알 것이다. ‘오늘’ 대신 ‘금일(今日)’이라고 하고, ‘어제’ 대신 ‘익일(翌日)’이라고 하는 따위의 한자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

있던 씁쓸한 기억이 있다. ‘사고 많은 곳’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사고 다발 지역(事故多發地域)’이라고 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국어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구한말 음악계의 선각자들이 ‘andante’를 ‘완서조(緩徐調)’라고 번역하지 않고 ‘느리게’라고 번역하고, ‘allegro’를 ‘쾌속조(快速調)’라고 하지 않고 ‘빠르게’라고 한 것은 그 시대 사회 분위기를 생각할 때 놀랍다. 최근에 ‘도로표지병(道路標識鉦)’이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어원에서 ‘길반짝이’로 다듬은 일이 있었다. ‘구근식물(球根植物)’을 한글로만 쓰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자를 가르치고 한자로 그 단어를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알뿌리식물’로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바꾸겠느냐고 항변하던 한문교육 강조하던 분의 항의가 일리가 있다고 보면, 지나치게 순우리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 순우리말로 하면 더 쉽고 정확한 한자어는 우리말답게 고치고 순우리말을 아껴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출입문에 ‘고정문’이라고 써 붙이면 아이들이 그 뜻을 모를 것이라고 걱정하자 한자를 가르치고 ‘固定門’이라고 써야 한다고 하지 않고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화살표와 함께 ‘옆문으로’ 써 붙인 것은 우리말 발전 차원에서 본받아야 한다.

현재의 추세라면 21세기 말에는 대여섯 개의 언어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미래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영어를 비롯한 강대국 언어의 영향을 받아 위축되기 쉬운 우리말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말답게 지키고 가꾸도록 하는 노력이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면 이런 마음과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우리말에 들어오는 이들 언어로 된 외래어를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과거의 한문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자어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말을 두고도 한문을 으스대며 사용하고, 영어로 설명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해서 안 된다. 최근에 방송이나 신문에서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국적 없는 외국어 표현들을 우리말의 참맛을 느낄 수 있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나라의 말과 글은 국민의 자부심이 되고, 또한 그 나라의 문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3.3. 초등학생 학습 부담의 문제

교육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많은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하나로 한자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장들이 학생들에게 민간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한자 급수를 따도록 강요

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한자 학습 열풍이 불어 닥칠 것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습부담 과다로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것은 이미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과도한 학부모의 교육열과 사교육이 어린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아동들이 사교육이 무서워 방학을 싫어한다는 현장 선생님들의 증언은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초등학생들을 불필요한 사교육으로 몰아붙이고 있는지 잘 말해 준다. 영어교육이 영유아 영어교육을 불렀듯이 한자 교육 열풍이 초등학생의 학습 부담을 과중시킬 것이다. 어느 산후 조리원에 한자가 유아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한자 학습지를 들고 왔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 초등학교에서 배울 한자를 교육부가 수준을 정한다고 몇 백자를 정하고 그에 따라 교과서에 병기하면 모든 초등학생은 의무적으로 그 한자를 익혀야 하고, 그에 따라 학부모들은 한자 교육을 시작하는 학년 이전에 그 한자를 아이들에게 배우게 할 것이고, 의욕 넘치는 학부모는 그보다 더 많은 한자를 가르치려 할 것이다.

한자와 한문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면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자와 한문 교육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수 교과목으로 한자와 한문을 지정해서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현재도 한자 급수 인증 때문에 학습지와 학원 수강 등 초등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초등 교과서에 한자가 실리는 순간 한자 사교육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현재도 학업 부담에 짓눌리는 초등학생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교육부는 아동들의 교과 외 다양한 학습 경험을 위해 만들어진 창의·체험 학습 시간에 한자, 한문 교육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한자 교육 때문에 정작 창의와 인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선부르게 초등학교에 한자교육을 도입하고 교과서 병기/표기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아동들이 꼭 배워야 할 기초 어휘 조사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필수 어휘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후에 초등 필수 어휘 가운데 한자어가 얼마나 되는지, 한자어를 한자로 쓰는 것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자유롭게 뛰어놀고 다양한 관심과 재능에 따라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하지 않고, 기초 연구도 없이 모든 교과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표기하고 학교에서 어려운 한자 교육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아이들이 한자를 재미있어 하거나 장래 한문학자가 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한문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생을 한자한문 교육을 받도록 강제로 밀어붙이고 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 교사들의 수업 준비와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도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는 해서는 안 된다. 한글 전용으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도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자까지 병기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 틀림없다. 한자 뒤에 조사나 어미를 붙이게 되면 제대로 된 발음으로 읽기도 어렵고 부분적으로 한자가 들어있는 낱말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초미니 로봇’을 한자 병기하고 그 정신으로 영어 병기를 한다면 ‘초(超)미니(mini) 로봇(robot)’이 될 터인데 비경제적일뿐더러 불쌍사납고 사전에 신기에도 부적절한 꼴이 되어 버린다.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교과서 읽는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응답한 현장 교사가 84%나 되는 것은 현장 전문가인 선생님들의 의견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국어 성적에서 최우수와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르치는 기준도 한자 실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자가 정말 중요해서가 아니라 한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자를 배우면 유익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상적인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한자 실력이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한자 학습에 몰아붙이도록 문자 정책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3.4. 한자 사교육 팽창과 학부모 부담의 문제

교육부에서는 현재 방과 후 학습이나 창의 체험 시간에 이루어지는 한자를 교육부가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고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예측이며 대책이다. 초등 영어 교육을 교육부 차원에서 수준을 정하고 학교 정규 교과로 실시하면 사교육이 줄어들고 교육의 빈부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발표하고 시행한 결과는 당초 정부의 예측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초등 한자를 교육부가 정하고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게 되면 사교육을 줄이고, 무분별한 한자 교육의 수준을 적정화하기보다는 역으로 조기 한자 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학부모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자 사교육에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전국의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과서 한자 병기 시 한자 선행학습이 일어날 것이라고 94.1%의 교사들이 예측한 것은 교과서 한자 병기가 사교육 팽창으로 곧바로 이어질 것임을 현장 경험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무한으로 늘어나고 있는 민간 한자 급수 시험 증가 추이를 보아도 현재 한자 교육에 따라 얼마나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자 교육 강화를 노리는 사람들이 초등 교육에서 한자 교과를 신설하는 것도 어렵고, 한문 혼용을 관철하는 것도 어렵게 되자 편법으로 초등에서 한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창의 체험 시간에 한자를 가르치도록 명시했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모든 초등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한자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이는 초등학교의 행복권이나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문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사람들과 관련한 전공으로 나아갈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한자와 한문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 공통 교육으로 필요한 한자 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해야 한다. 초등 교육과정에 한자를 편법으로 포함시키고 전 국민을 한자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교육 문제는 이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여서 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3.5. 학습자들의 사고력 발달과 미래사회 대비 문제

모국어는 어린 아이들의 사고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어를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영어와 한문으로 아이들의 사고발달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절에는 모국어를 바탕으로 사고와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로 활발하게 여러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가능하면 모든 학습이 모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는 개인의 성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핵심 역량 강화를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각국의 교육전문가들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과거와는 다른 사고를 촉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초등학교부터 한자 교육을 강조하고 한문을 배움으로써 창의적 사고가 발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어릴 적부터 한문 중심의 사고를 강요함으로써 모국어로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거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 초등 교육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초등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한다. 한자와 한문은 현재와 같이 창의 체험 학습 시간에 한자에 관심이 있고 배우기 원하는 학생만 배우도록 하고, 초등 수준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한자와 한문을 배우면 사고력을 좋게 하고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아동들이 학습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아동 발달과정에서 사고력을 좋게 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한자만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

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어려운 한자를 모든 학생에게 강제로 배우게 하는 것보다 초등학생 수준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험해 보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게 해야 사고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미래사회는 한문 중심 사회에서 쌓은 지식보다는 정보화 사회 이후에 쌓이는 지식이 훨씬 더 많다. 과거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우리 사회에 유입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들이 시시각각 만들어진다. 학습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과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시대에 배우기 어렵고 소통하기 어려운 한자를 초등학교부터 강요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고 창의적 사고력 발달을 저해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맺음말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고 시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과서 한자 병기가 아니라 한자 표기라고 하여 편법을 사용해서 한자를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한글전용을 기본으로 하고 한자를 모든 학생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까지 한 한문 단체의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각한 바 있는데도 다시 국민의 선택 자유 권리를 내세워 국어 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제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발주한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관련 연구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5-6학년 전 교과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표기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교과서를 비롯한 국가 공문서에 표기하는 문자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단기간에 연구를 하게하고 그것을 토대로 실제 표기 원칙을 바꾸어 시행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시행 중인 한글 전용법과 국어 기본법의 원칙을 바꾸려면 학생, 학부모, 교사, 국어 전문가, 매체 관련 종사자, 정부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교과서 한자 병기 또는 표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국정 교과서는 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적 문서이고 미래 세대 교육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재이다. 교육부는 초등 국정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일부 단체의 압력과 주장에 따라 정부의 교과서 집필 방침으로 정하고 졸속으로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호주의 경우 초등학교에 필요한 기본 어휘를 결정하는 데 십 년 이상의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에 전문가 연구와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초등학생들의 어휘력 신장을 위해서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만 한자 교육이 초등교육에 꼭 필요한지,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지 결

정하는 것은 어렵다.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르칠 한자를 결정한 후에도 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자를 배우면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교과서 병기/ 표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면, 초등 한자 교과를 신설하든지, 현재처럼 창의·체험 학습 시간에 선택적으로 배우게 하고, 교과서 한자 병기/표기의 문제점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초등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한자 교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교과서를 비롯한 공문서나 신문 등 공용 매체에는 한글 전용법, 국어기본법이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과 한자어 남용을 막고, 바람직한 국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모든 교과 교과서 한자를 병기/표기하는 것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야기할 문제가 크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볼 때도 부적절하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교육한자를 정하고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모든 교과의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이제는 한자병기가 아니라 한자표기라는 편법으로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어휘 관련 성취기준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안다.”고 되어 있는 것이 모든 교과서에 한자 병기/표기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 개발할 5~6학년 전 교과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표기하겠다는 정책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 종수 역(2007). Christa Dürscheid 저(2006). 『문자언어학』. 유로.
- 배 문정(2016). “한자어 교육의 인지과학적 고찰”, 570돌 한글날 맞이 한글문화 토론회: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학술회의 자료집. 한글문화연대. 9-40.
- 배 성봉, 이 광오, 마스다 히사시(2016). “새로운 단어의 학습에서 형태소 처리의 영향: 개인차 연구”. 『인지과학』 27(2).159-180.
- 서 혜경(2015). “국어 어휘의미 교육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 건범(2016), “초등교과서 속 한자말과 한자 어원 상관성 분석.”, 570돌 한글날 맞이 한글문화 토론회: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학술회의 자료집. 한글문화연대. 91-131.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2016. 10. 7.)

허 민(2016), “수학에 쓰이는 한자말에 대한 소고”, 『수학교육논문집』 30(2). 한국수학교육학회. 121-38.

Perfetti, C. A.(2007). Reading ability: Lexical quality to comprehension,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11(4), 357-383.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2016년 10월 7일 (금) 10:00 ~ 16:20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 제1부: 주제 발표

초등 국어과 교육의 내용과 한자 교육 — 한자 교육의 국어과 교육으로의 수용과 관련하여 —

이 병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leebk@snue.ac.kr

1. 머리말

이 글은 한자 교육이 국어과 교육에서 수용될 수 없는 근거를 초등 국어과 교육의 내용의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조기 한자 교육 또는 초등 국어과에서 한자 교육의 수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장되어 왔다. 독해력을 비롯한 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것, 한자도 한글과 함께 우리 고유 문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한자 교육이 초등 국어과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어’의 법률적 개념과 범위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초등 국어과 문자·표기교육의 내용, 낱말·어휘 교육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초등 국어과에서 한자 교육의 한계를 논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의 방법이 초등 한자 교육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논의하고자 한다.

2. 국어·한글의 개념에 따른 국어과 교육 내용과 한자 교육

〈표 1〉은 국어기본법에서 국어와 한글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공문서나 교과용 도서 편찬을 할 때 한자와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법률 조항이

다. 이를 따르면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의 문자이지만 한자는 우리 고유의 문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의 문자 교육의 내용에 한자 교육이 포함되는 것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의 내용으로서 한자 교육은 불가능하다.

〈표 1〉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p>국어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p>국어기본법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p> <p>국어기본법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국어기본법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p> <p>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 기본법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 사항으로 판결하고 있다.

“수도를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국명(國名)을 정하는 것, 우리말을 국어(國語)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 영토를 확정하고 국가주권의 소재를 밝히는 것 등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판결문 중)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이 헌법 사항이라는 것은 그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

표에 붙여서 투표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1차, 제2차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도 국어를 적는 문자는 한글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국어과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문맹을 없애고 표준어를 확립시켜 이를 보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음성 표준어, 표기법, 문법 등 각 분야에 과학적인 표준이 확립되지 못하였으나, 방언이나 어법에 극단적인 대립이 없는 단일 어족으로서 문자 조직이 간단한 한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국민학교 시대에 적어도 언어 생활의 기반(基盤)을 닦고 표기법 통일과 어법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은 갖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국어 순화 향상의 큰 터전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자가 아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이해와 우리말과 우리글을 수단으로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하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국어과에서 한자 교육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한자 병기는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의 경우도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자나 외국 글자는 괄호 안에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조항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자는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생이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 교육에서는 정규 교과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통하여 한자 교육을 받는 학생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모든 초등학생이 한자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닌 상황에서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결국 그 낱말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이나 사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가 초등학생인 초등 교과서에 대한 한자 병기는 가독성을 향상시키지 않는다.

3. 초등 국어과 문자·표기 교육의 내용과 한자 교육

이 장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문자 교육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살펴, 국어과 내에서 문자로서 한자 교육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문자로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자 병기는 가독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도 논의하기로 한다.

2장에서 논의했듯이 국어과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문자는 ‘한글’이다. 따라서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국어과 내에서의 문자 교육의 대상과 내용은 ‘한글’에 국한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 내용을 교육과정 시기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초등 문자표기 교육의 내용

교육과정	학년	영역	목표나 내용
1차	1	쓰기	1. 한글을 보고 순서 바르게 쓰게 한다.
	2	읽기	1. 한글의 음절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쓰기	7. 표준되는 순서로 한글을 쓸 수 있게 한다. 8. 글자의 모양을 고르게 쓸 수 있게 한다.
	4	읽기	5. 한글의 순서에 따라 색인(索引)과 사전의 낱말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
2차	1	읽기	5. 그림과 글자와 물건을 눈에 익혀 분간할 수 있도록 한다. 9. 글자의 모양에 주의하여 읽도록 한다.
	1	쓰기	1.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쓸 줄 알도록 한다. 2. 말을 글자로 옮겨 글이 되는 것을 알도록 한다. 5. 자기의 경험을 즐겨서 그림이나 글자로 나타내도록 한다. 7. 글자를 쓰는 데는 차례가 있는 것을 알도록 한다. 8. 글을 쓰는 데 필요한 글자나 낱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0. 모양이나 뜻을 알 수 있게 글 쓰기에 힘쓰도록 한다.(10개 목표 중 6개가 문자에 대한 것임)
	2	읽기	4. 한글의 음절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9. 모르는 말이나 글자를 찾아내도록 한다.
		쓰기	7. 표준되는 순서로 한글을 쓸 줄 알도록 한다. 8. 글자의 모양을 고르게 쓰도록 한다.
	4	읽기	1. 일상 생활에서 쓰는 한글과, 한자, 숫자, 로마자와의 구별을 알도록 한다.
		쓰기	7. 자기 글씨의 장점과 단점을 알도록 한다. 8. 글자의 크기, 모양, 배열에 유의하여 쓸 수 있도록 한다. 9. 차차 글씨 쓰는 속도를 빠르게 하도록 한다.
	5	쓰기	8. 글씨를 바르고 아름답게 빨리 쓸 줄 알도록 한다. 9. 격식에 맞는 정확한 표기 방법을 습관화하도록 한다.
	6	쓰기	9. 약속된 표기 방법에 맞는 쓰기를 하도록 한다.
3차	1	읽기	③ 글자의 모양에 주의하여 읽기
	1	글씨 ¹⁾	③ 기본이 되는 점과 획을 구별하여 바르게 쓰기 ④ 낱짜 쓰기의 기본을 알고 대체적인 자형에 유의하여 쓰기 ⑤ 해서의 기초를 대체로 알고 쓰기 ⑥ 글자와 어휘를 바르게 옮겨 쓰기

	2	글씨	③ 기본이 되는 점과 획을 구별하여 바르게 쓰기 ④ 갖추어진 자형 쓰기 ⑤ 해서의 기초를 앎고 바르게 쓰기 ⑥ 어휘와 글월을 바르게 옮겨 쓰기 ⑦ 어휘와 간단한 글월을 바르게 받아쓰기 ⑧ 맞춤법을 인식하고 쓰기
	3	글씨	② 점과 획의 이음이나 방향에 유의하여 바르게 쓰기 ③ 갖추어진 자형 쓰기 ④ 해서 쓰기에 숙달하기 ⑤ 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옮겨 쓰기 ⑥ 글월과 간단한 글을 바르게 받아쓰기 ⑦ 맞춤법에 유의하여 쓰기
4차	1	목표 ²⁾	라) 한글을 바르게 쓰며, 짧은 글을 짓게 한다. 마) 한글의 짜임을 알게 한다.
		쓰기	(4) 글자를 바른 순서와 바른 모양으로 쓴다.
		언어 ³⁾	(1) 한글 낱자의 모양, 이름, 순서를 안다. (2) 낱자가 모여서 소리를 나타내게 됨을 안다.
	2	목표	마) 한글의 짜임을 알게 한다.
		쓰기	(4) 글자를 바른 순서와 바른 모양으로 쓴다.
		언어	(1) 받침이 있음을 안다. (2) 글자와 발음이 달라지는 것이 있음을 안다.
	3	쓰기	(6) 어법과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쓴다. (7) 글씨를 바르게 쓴다.
	4	쓰기	(6) 어법과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쓴다. (7) 글씨를 바르게 쓴다. (8) 지면과 격식에 맞게 글자를 쓴다.
5	쓰기	(6) 어법과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쓴다. (7) 글씨를 바르게 쓴다. (8) 지면과 격식에 맞게 글자를 쓴다.	
6	쓰기	(6) 어법과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쓴다. (7) 글씨를 바르게 쓴다. (8) 지면과 격식에 맞게 글자를 쓴다.	
5차	1	목표	라) 한글을 바르게 쓰고, 짧은글을 즐겨 짓게 한다. 마) 글자의 짜임과 발음됨을 알고, 문장의 기본적인 짜임을 알게 한다.
		읽기	나) 글자의 짜임과 낱자의 음가를 알며, 정확한 발음으로 글을 읽는다.
		쓰기	나) 글자를 보고, 바른 순서와 바른 모양으로 쓴다. 다) 낱말, 구절, 문장을 정확하게 받아 적는다.
		언어	가) 기본 음절 표를 활용하여 한글 낱자의 모양과 음가, 글자의 짜임을 익힌다. 나)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를 찾는다.
	2	목표	라) 한글을 바르게 쓰고, 짧은글을 즐겨 짓게 한다. 마) 글자의 짜임과 발음됨을 알고, 문장의 기본적인 짜임을 알게 한다.
		쓰기	가) 낱말, 구절, 문장을 정확하게 받아 적는다.
언어		가)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를 찾는다.	

6차	1	읽기	(2) 글자의 짜임을 알고, 글자를 바르게 소리내어 읽는다. (3) 낱말, 구절, 문장을 정확하게 받아 적고, 바르게 소리내어 읽는다.
		쓰기	(1) 말을 글자로 옮겨 보고, 글자의 기능을 안다. (3) 낱자와 글자를 바른 순서와 바른 모양으로 쓴다.
		언어	(1) 한글 낱자의 모양과 이름을 안다. (2) 낱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글자의 짜임을 알고 바르게 읽는다. (3) 글자가 모여 낱말이 됨을 알고, 글자 수가 같은 낱말들을 찾아서 말한다. (5) 우리말을 기록하는 우리 글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글자를 소중히 여긴다.
	2	쓰기	(1) 말을 글자로 옮겨 보고, 말이 글이 됨을 안다. (2) 글자를 바른 순서와 바른 모양으로 쓴다.
		언어	(1) 낱말을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를 찾는다.
	3	언어	(1) 글자의 발음이 다른 경우를 찾아보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7차	1	읽기	(2) 글자의 짜임을 알고, 글자를 읽는다. 【기본】 기본 음절표를 따라 읽는다. 【심화】 낱자를 바꾸어 다른 글자를 만들고, 정확하게 읽는다.
		쓰기	(4) 낱말이나 문장을 정확하게 받아쓴다. 【기본】 들려주는 낱말을 정확하게 받아쓴다. 【심화】 들려주는 문장을 정확하게 받아쓴다.
		국어 지식	(1) 한글 낱자의 음가를 안다. 【기본】 낱자의 이름을 말하고, 그것이 들어 있는 낱말을 발음한다. 【심화】 한 낱자가 들어 있는 여러 개의 낱말을 보고 발음을 따라 해 보고, 그 낱자가 들어 있는 다른 낱말을 찾아 발음한다. (2) 우리말이 있음을 알고,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우리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해보고, 우리말이 왜 소중한지 친구와 이야기한다. 【심화】 우리말을 소중히 하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말한다.
	2	쓰기	(2) 크기와 모양을 조절하며 글자를 쓴다.
국어 지식		(1) 자음과 모음을 구별한다. 【기본】 자음과 모음에 대응되는 낱자에는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한다. 【심화】 글자에서 자음과 모음이 놓이는 위치를 확인한다.	
2007	1	읽기	(1)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 낱자 알기 ○ 글자의 짜임 알기 ○ 변하는 소리에 주의하면서 소리 내어 읽기
		쓰기	(1) 글씨를 바르게 쓴다. ○ 연필을 바르게 잡기 ○ 바른 자세로 글씨 쓰기 ○ 낱자, 글자를 바르게 쓰기 ○ 낱말, 문장을 받아쓰기
		문법	(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안다. ○ 글자가 자음자와 모음자로 이루어짐을 이해하기 ○ 한글 자모 정확하게 읽기 ○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소리 내어 읽기 ○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기르기 (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와 어법에 맞게 적었을 때의 차이 이해하기 ○ 한글 자모,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기
	2	문법	(2)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 한글맞춤법 규정이 있음을 알기 ○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바른 표기 알기 ○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6	문법	(4) 한글의 의의를 알고 우수성을 설명한다. ○한글의 의의 이해하기 ○한글의 우수성을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하여 말하기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가꾸려는 태도 가지기
2009	1-2 ⁴⁾	읽기	(1)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2)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쓰기	(1)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
	문법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3-4	쓰기	(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5-6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2015	1-2	읽기	[2국02-01] 글자, 낱말,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쓰기	[2국03-01] 글자를 바르게 쓴다.
	문법	[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	
		[2국04-04]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3-4	문법	[4국04-05]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	

〈표 2〉는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표기 및 문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과정 시기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면 (1)과 같다.

- (1) 가. ‘쓰기’ 영역의 내용: 기본이 되는 점과 획을 구별하여 바르게 쓰기, 점과 획의 이음이나 방향에 유의하여 바르게 쓰기, 한글의 순서에 맞게 쓰기, 글자의 모양 크기배열에 유의하여 바르게 쓰기, 사람이나 물건 이름 쓰기, 말과 글자의 관계 알기, 글씨 쓰기 속도 높이기, 낱말 정확하게 받아 적기, 정확한 표기 방법 알기

- 1)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쓰기 영역을 ‘글짓기’와 ‘글씨 쓰기’로 구분하였다. 문자 쓰기와 관련해서는 ‘글씨 쓰기’에서 제시하고 있다.
- 2) 4차 교육과정과 5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목표와 학년별 내용을 각각 제시하였다. 6차 교육과정 때부터는 학년별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학년별 내용만 제시하였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학년별 내용’을 도달해야 할 수준, 평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의도에서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3) 4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영역은 표현과 이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으로 범주화하였다. ‘언어’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지식’,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는 ‘문법’으로 명칭하고 있다.
- 4)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학년별 구분을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3개 학년군으로 구분하여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ㄴ. ‘읽기’ 영역의 내용: 그림과 글자, 물건을 분간하기, 글자 모양 식별하여 읽기, 한글의 음절 바르게 읽기, 한글-한자숫자로마자 구별하기, 글자의 짜임과 낱자의 음가를 알고 정확한 발음으로 읽기
- ㄷ. ‘문법’ 영역의 내용: 한글의 짜임 알기, 한글 낱자의 모양이름순서 알기, 낱자가 모여 소리됨 알기, 받침이 있음을 알기, 글자와 발음이 달라지는 것이 있음을 알기, 기본 음절표 익히기, 낱자가 모여 글자가 되고, 글자가 모여 낱말이 됨을 알기, 우리말을 기록하는 우리 글자가 있음을 알기, 우리 글자 소중히 여기기,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음을 알기, 한글의 의의 알기, 한글의 우수성을 다른 문자와 비교해 알기
- ㄹ. 한글의 순서에 따라 국어사전 찾기

(1ㄱ)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읽기 영역의 문자 관련 교수-학습 내용을, (1ㄴ)은 쓰기 영역의 문자 관련 교수-학습 내용을, (1ㄷ)은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내용을, (1ㄹ)은 국어사전 찾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의 문자 교육과 관련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수학습 내용은 매우 많다.

그런데 초등학교 국어과에서 한자 교육을 수용하게 되면, (1ㄱ)~(1ㄹ)까지의 내용이 한글의 경우와 한자의 경우 각각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내용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임은 물론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글의 경우와 한자의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경우나, 구분하여 배워야 하는 학습자의 경우나 2가지 문자 체계의 혼용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도 자명하다. 한글의 순서에 따라 국어사전을 이용하는 방법과 한자의 순서에 따라 한자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국어과는 학습량을 축소해 오고 있다. 그런데 국어과에 한자 교육의 내용이 수용되게 되면 학습량이 매우 많이 늘어날 것이며 오히려 학습자의 부담으로 떠넘겨 질 것임은 당연하다. 이러한 학습자의 학습 부담과 학습의 어려움은 영어나 수학과 마찬가지로 한자 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자 교육의 하나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의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서도 논의했듯이 단지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고 해서 저절로 한자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병기된 한자의 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별도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자 사전을 찾는 방법 또한 학습되어야 한다.

한자를 병기하면 한자어의 의미 파악이 쉽고, 동음이의어의 구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기한 한자가 한자어의 의미 파악에 활용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동음이의어를 구분하여 그 뜻과 용법을 이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어과 교육은 의사소통을 수단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교과 학습의 수단을 학습하는 교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글(문자)의 읽기와 쓰기는 의사소통과 다른 교과 학습을 위하여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이에 대한 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내용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글 교육에 할당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한글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초등학교 1학년에 한글 교육과 관련한 성취 기준이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한글 교육에 투자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글 교육을 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그런데 입학 전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한글 교육은 한글을 단순히 해득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아, 기초 학습 능력의 토대로서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충분하지 못한 한글 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학습 결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발생한 학습 격차는 학년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회복되지 못하고 더 커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박순경 외, 2015) 학생들이 단순히 한글을 해득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이후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 교육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을 통해 꾸준히 개선되었던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급에서 가시적으로 한글 교육을 강화하였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27차시에 머물렀던 한글 교육을 최소 45차시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한글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기초 학습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내용과 교수학습 유의사항을 마련하였다.(교육부, 2015: 79쪽)

(2)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글 교육의 강화에 대한 설명이다. 기존의 한글 교육이 기초 학습 능력을 갖추는 데 많이 부족하여 학습 결손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7차시에 머물렀던 한글 교육을 45차시 이상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한글 교육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한글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터에 한자까지 학습 대상으로 삼게 되면 앞서 논의한 국어과의 학습 부담량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4. 초등 국어과 낱말·어휘 교육의 내용과 한자 교육

4장에서는 낱말·어휘 교육의 내용과 한자 교육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에서의 낱말·어휘 교육의 내용의 변천은 <표 3>과 같다.

<표 3> 초등 낱말·어휘 교육의 내용

1차	1	읽기	3.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알게 한다. 6. 간단한 낱말과 문장을 읽을 수 있게 한다.
	3	읽기	8. 문장의 전후를 살펴서 새로운 말의 뜻을 짐작하게 한다.
2차	1	읽기	1.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많이 알도록 한다. 6. 간단한 낱말과 문장을 구별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다.
	3	읽기	1. 문장이 전후(前後)로 미루어, 낱말의 뜻을 짐작할 줄 알도록 한다.
3차	4	듣기	4. 새 낱말은 앞뒤를 생각하여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읽기	4. 한글의 자모 순으로 색인을 하고 사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5	쓰기	10. 어휘를 알맞게 골라 효과 있는 글을 쓰는 데 힘쓰도록 한다.
	1	읽기	⑤ 사람, 사물의 이름 많이 알기
		읽기	⑥ 모르는 어휘 찾아 읽기
2	쓰기	⑤ 쓰기에 필요한 어휘를 늘리기	
	3	말하	⑩ 어휘 사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하기
읽기		③ 모르는 어휘를 글의 앞뒤로 미루어 알기	
3	쓰기	⑦ 쓰기에 필요한 어휘를 늘리기	
	4	말하	⑬ 상대나 상황에 알맞은 어휘 사용에 유의하여 말하기
읽기		③ 사전을 활용하여 책읽기 ④ 모르는 어휘를 글의 앞뒤로 미루어 알기	
쓰기		⑦ 필요한 어휘를 늘려 활용하여 쓰기 ⑧ 어휘의 상호 관계에 유의하여 쓰기 ⑨ 사전을 이용하여 바르게 쓰기	
5	말하	⑮ 상대나 상황에 알맞은 어휘를 사용하여 말하기	
	읽기	③ 사전을 활용하여 책읽기 ⑤ 모르는 어휘의 뜻을 조사하면서 읽기	
	쓰기	⑦ 어휘를 알맞게 골라 쓰기 ⑧ 사전을 활용하여 바르게 쓰기	
6	말하	⑭ 상대나 상황에 알맞은 어휘를 적절히 사용하여 말하기	
	읽기	③ 사전을 활용하여 책읽기 ⑤ 읽기에 필요한 어휘를 늘리고 조사하기	
	쓰기	⑦ 어휘의 사용법에 주의하여 쓰기 ⑧ 사전을 활용하여 바르게 쓰기	
4차	4	읽기	(2) 비유로 쓰인 말의 뜻을 이해하며 읽는다. (10) 국어 사전을 이용한다.

	5	언어	(4) 낱말에는 이름을 나타내는 것과 그 말을 대신하는 것이 있음을 안다. (5) 낱말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 있음을 안다.	
	6	언어	(3) 낱말에는 소리나 모양을 시늉하는 것이 있음을 안다. (4) 낱말에는 옛날부터 있어 온 것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 있음을 안다. (5) 낱말에는 한 음절로 된 것과 여러 음절로 된 것, 두 낱말이 합쳐져서 한 낱말로 된 것이 있음을 안다. (8) 낱말에는 뜻이 같고 느낌이 다른 것이 있음을 안다.	
5차	1	읽기	가) 실물과 낱말, 그림과 낱말의 대응을 통해 낱말에 뜻이 있음을 이해한다. 바) 글에 나오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다.	
		쓰기	마) 주어진 낱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다.	
	2	듣기	바)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을 듣고, 이를 관련되는 것끼리 묶는다.	
		읽기	다) 글에 나오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다.	
		쓰기	다) 주어진 낱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다.	
	3	언어	라) 소리나 모양을 시늉하는 말을 찾아 짧은 글을 짓는다.	
		듣기	나)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을 듣고, 이를 관련되는 것끼리 묶는다.	
		읽기	사) 글에 나오는 모르는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확인하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4	언어	나) 자음이나 모음이 바뀔으로써 뜻은 같으나 느낌이 달라지는 낱말을 찾는다.	
		읽기	사) 글에 나오는 모르는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확인하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6차	1	듣기	(2) 들려 주는 낱말을 듣고, 낱말에 대응되는 그림이나 사물을 찾는다. (3) 자음이나 모음이 바뀔으로써 뜻이 달라지는 말을 찾는다.
			읽기	(1) 실물과 낱말, 그림과 낱말을 대응시켜 보고, 낱말에는 뜻을 있음을 안다. (5) 글에 나오는 낱말의 뜻을 알고,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쓰기			(6) 주어진 낱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다.	
2		듣기	(2) 자음이나 모음이 바뀔으로써, 뜻은 같으나 느낌이 달라지는 말을 찾는다.	
		읽기	(2) 낱말, 구절, 문장을 정확하게 받아 적고,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를 찾는다. (5) 글에 나오는 낱말의 뜻을 알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낱말이 있음을 안다.	
		쓰기	(6) 주어진 낱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다.	
3		언어	(2)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찾아보고, 그 말을 활용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표현한다.	
		듣기	(2)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을 듣고, 그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을 말한다.	
3		읽기	(2) 글에 나오는 낱말을 다른 낱말로 바꾸어 보고, 뜻이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낱말을 찾는다. (3)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다.	

		쓰기	(6) 사물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낱말을 찾아보고 그 낱말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7) 자기가 쓴 글에서 잘못 쓰인 낱말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쓴다.	
		언어	(2) 높임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 예사말과 짝지어 보고, 그 말을 사용하여 예절 바르게 한다. (5)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쓰이는 말들을 찾아보고, 우리말을 아끼고 널리 쓰는 태도를 가진다.	
	4	말하	(8)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를 적절한 낱말을 사용해서 묘사하여 말한다.	
		읽기	(2)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고, 그 낱말이 글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한다.	
		언어	(1)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과 모양이 바뀌는 낱말을 구별하고, 모양이 바뀌는 낱말의 으뜸이 되는 말을 사전에서 찾는다. (2) 낱말과 낱말이 합해져서 새로운 낱말이 만들어짐을 알고, 그러한 낱말을 찾는다.	
	5	읽기	(2) 글에 나온 새로운 낱말의 뜻을 문맥을 통하여 파악한다.	
		언어	(2) 낱말을 몇 개의 요소로 나누어 보고,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 있는 낱말을 찾는다.	
	6	읽기	(2) 글에 나온 낱말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짝지어 보고, 낱말들 사이의 의미 관계나 낱말의 짜임을 안다. (3) 글에서 비유적으로 쓰인 낱말을 찾아보고, 비유적인 표현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언어	(2) 낱말을 몇 개의 요소로 나누어 보고, 어느 한 요소를 바꾸어 새로운 낱말을 만든다.	
	7차	3	읽기	(2) 소리와 모양이 같은 낱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글을 읽는다.
쓰기			(6) 알맞은 낱말을 선택하여 글을 쓴다.	
4		듣기	(2) 낱말의 의미를 알아보며 듣는다.	
		국어 지식	(1) 용언의 기본형을 안다 (3) 어휘의 개념을 안다. 【기본】 낱말과 어휘의 차이점을 말한다. 【심화】 어휘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지 토의한다. (4) 낱말과 낱말 사이의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하의 관계를 안다.	
5		읽기	(2)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기본】 글에 나온 낱말의 의미를 앞 뒤 문맥을 통하여 파악한다. 【심화】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낱말을 다른 낱말로 바꾼다. (6) 어휘 사용이 적절한지 알아보며 글을 읽는다. 【기본】 주어진 글에서 어휘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판단하고,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적절한 어휘로 바꾼다. 【심화】 글에서 어휘 사용이 문맥에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예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쓰기	(8)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찾아 고쳐 쓴다. 【기본】 자신이 쓴 글에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쓴다. 【심화】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쓴다.
6		국지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안다. 【기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차이점을 안다. 【심화】 글에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를 찾고, 알맞은 고유어로 바꾼다.	
2007		1	말하	(3)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하면서 대화한다. ○

			나타내는 어휘 알기 ◦상황별로 감정을 나타내는 말 고르기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기
2	문법		(3) 낱말과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등의 개념 이해하기 ◦낱말들 간의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낱말 더 알기 ◦낱말들 간의 다양한 의미 관계에 관심 가지기
3	문법		(1)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 ◦국어 품사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 ◦용언의 기본형 알기 ◦국어사전 찾는 방법 알기 ◦국어사전의 효용성과 가치 이해하기 (2) 소리가 동일한 낱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개념 이해하기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사용 양상 관찰하기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4	읽기		(1)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사전을 읽는 방법을 익힌다. ◦사전의 특성과 기능 이해하기 ◦사전 활용하는 방법 알기 ◦사전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습관 기르기 (2) 글을 읽고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의 차이 이해하기 ◦맥락에 따라 낱말 선택이 달라짐을 이해하기 ◦적절한 표현과 적절하지 않은 표현 찾기 ◦어휘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읽는 태도 기르기
5	문법		(2)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구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구별하기 ◦문장이나 글에서 단어의 의미 해석하기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6	문법		(1)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과 차이 이해하기 ◦국어 어휘의 특징 이해하기 ◦고유어를 살려 쓰는 태도 기르기
2009	1-2	문법	(2)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3-4	읽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5-6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9)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한다. (1)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2015	3-4	읽기	[4국02-03]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⁵⁾
		문법	[4국04-01] 낱말을 분류하고 국어사전에서 찾는다. [4국04-02]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5-6	문법	[6국04-02]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탐구하고 어휘력을 높이는 데에 적용한다. [6국04-03]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

5) 이 성취 기준은 중요한 낱말의 의미나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문맥을 통해 짐작하여 추측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낱말·어휘 교육의 내용은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3) ㄱ. ‘듣기·말하기’ 영역의 내용: 자음과 모음이 바뀔므로 뜻이 달라지는 말 찾기, 새 낱말을 앞뒤를 생각하여 알아듣기, 어휘 사용에 관심 가지고 말하기, 상대나 상황에 알맞은 어휘 사용하여 말하기,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말하기,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사용해서 말하기,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 사용하여 대화하기
- ㄴ. ‘읽기’ 영역의 내용: 낱말에 뜻이 있음을 알기, 낱말 받아 적고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 찾기, 사람과 사물의 이름 알기, 간단한 낱말 읽기, 문장의 전후를 살펴 새로운 말의 뜻 짐작하기, 어휘 사용의 적절성 알기, 모르는 어휘 찾아 읽기, 모르는 어휘의 뜻 조사하며 읽기, 국어사전 찾기, 비유로 쓰인 말의 뜻 이해하기, 다의어 알기, 유의어 알기, 반의어 알기, 낱말의 짜임 알기, 낱말 분류
- ㄷ. ‘쓰기’ 영역의 내용: 알맞은 어휘를 골라 글 쓰기, 쓰기에 필요한 어휘 늘리기, 어휘의 상호 관계에 유의하여 쓰기, 국어사전을 이용하여 바르게 쓰기, 어휘의 사용법에 주의하여 쓰기, 잘못 쓰인 낱말 찾기,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 고쳐 쓰기,
- ㄹ. ‘문법’ 영역의 내용: 낱말에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있음을 알기, 높임을 나타내는 낱말 알기, 소리나 모양을 시늉하는 낱말 알기,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알기, 낱말의 짜임 알기, 낱말의 뉘앙스 알기, 모양이 바뀌는 낱말과 바뀌지 않는 낱말 구별하고 사전에서 찾기, 어휘의 개념 알기, 낱말의 유의 관계·반의 관계·하의 관계 알기, 동음이의어·다의어 알기,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알기, 낱말의 분류, 우리말을 아끼고 널리 쓰는 태도 기르기, 다양한 고유어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 기르기,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 알기,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 알기,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알기

(3ㄱ)은 ‘듣기·말하기’ 영역의 낱말 및 어휘 교육의 내용을, (3ㄴ)은 ‘읽기’ 영역, (3ㄷ)은 ‘쓰기’ 영역, (3ㄹ)은 ‘문법’ 영역의 낱말 및 어휘 교육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학습이 가능한 것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하나뿐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시기는 3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글에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를 찾고, 알맞은 고유어로 바꾼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유어를 살펴 쓰는 태도 기르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를 제시하여 한글

과 고유어 이해 및 사용 교육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의 어휘 구성의 특징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이 초등 국어과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 교수·학습 내용은 한자의 병기나 한자 학습을 통하여 우리말 어휘 구성 범주의 하나인 ‘한자어’ 사용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구성의 특징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다룰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한자어의 어원으로 하여 한자를 하나하나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어 사전에서 어원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

다음은 낱말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살펴보자. 단어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교육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ㄱ. 문맥을 통한 의미 이해

- 1차/3학년: 문장의 전후를 살펴서 새로운 낱말의 뜻을 짐작하게 한다.
- 2차/3학년: 문장이 전후로 미루어, 낱말의 뜻을 짐작할 줄 알도록 한다.
- 2차/4학년: 새 낱말은 앞뒤를 생각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
- 3차/3학년: 모르는 어휘를 글의 앞뒤로 미루어 알기
- 3차/4, 5, 6학년: 상대나 상황에 알맞은 어휘 사용에 유의하여 말하기
- 4차/4학년: 비유로 쓰인 말의 뜻을 이해하며 읽기
- 6차/5학년: 글에 나온 새로운 낱말의 뜻을 문맥을 통하여 파악한다.
- 6차/6학년: 글에서 비유적으로 쓰인 낱말을 찾아보고, 비유적인 표현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 7차/5학년: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 7차/5학년: 어휘 사용이 적절한지 알아보며 글을 읽는다.
- 7차/5학년: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찾아 고쳐 쓴다.
- 2007 개정/4학년: 글을 읽고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2007 개정/5학년: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구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 2009 개정/5-6학년군: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 2009 개정/5-6학년군: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015 개정/3-4학년군: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 2015 개정/5-6학년군: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

ㄴ. 국어사전 찾기

- 2차/4학년: 한글의 자모 순으로 색인을 하고 사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3차/4, 5, 6학년: 사전을 활용하여 책읽기, 사전을 이용하여 바르게 쓰기
- 4차/4학년: 국어 사전을 이용한다.

- 5차/3, 4학년: 글에 나오는 모르는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확인하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 6차/3학년: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다.
- 6차/4학년: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고, 그 낱말이 글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한다.
- 2007 개정/3학년: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
- 2009 개정/3-4학년군: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 본다.
- 2015 개정/3-4학년군: 낱말을 분류하고 국어사전에서 찾는다.

(4)는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국어과에서 낱말의 용법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수학습 내용이다. (4ㄱ)은 문맥을 통한 낱말의 의미 파악과 관련된 것이고, (4ㄴ)은 국어사전을 이용한 낱말의 용법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말의 낱말의 용법을 이해에 어원 정보(한자)를 활용한 방법은 전혀 볼 수 없다.

〈표 4〉 교과서 표기 방법의 변천

구 분		연 도										
		1945	50	55	60	65	70	75	80	85	⇨	현재
초등 학교	1~3학년	한 글 전 용										
	4~6학년	국 한 병 용					국한 혼용					

〈표 4〉는 교과서 표기 방법의 변천 양상을 나타낸 것인데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가 국한 병용이나 국한 혼용 체제였던 시기조차도 한자를 활용한 낱말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시기조차도 초등학교 국어과의 학습 내용으로서 낱말의 용법은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방법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자를 활용한 낱말의 학습 방법은 초등 국어과에서는 적절하지 않으며, 한자 병기나 혼용이 낱말의 의미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말은 한자어가 많아 동음이의어가 많기 때문에 의미를 빠르고 정확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 교육과 한자 병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등학교에서 한자 병기를 통하여 동음이의어의 구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논의했듯이 한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어과에서 한자 교육은 법률적 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학습량이 가중

되며 그에 따른 사교육이 확대될 것임을 논의했다. 한자 병기 자체가 한자 교육의 한 방편이 되기 어렵다는 것도 2장에서 논의한 바다.

설령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국어과 내에서가 아니라 별도의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자 교육이 다의어의 의미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5) ㄱ.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리 학교(學校)가 1등을 했다.[학생]
- ㄴ. 우리 학교(學校)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했다.[기관]
- ㄷ. 이 학교(學校)는 1937년에 만들어졌다.[건물]
- ㄹ. 학교(學校)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은 책임지고 있다.[기능]
- ㅁ. 오전 9시에 학교(學校)가 시작한다.[수업]

(5)는 ‘학교(學校)’가 사용된 용례이다. 병기된 한자는 모두 같지만 그 문맥적 의미를 같지 않다. 즉 (5ㄱ)의 학교는 ‘학생’을, (5ㄴ)에서는 ‘기관’을, (5ㄷ)에서는 ‘건물’을, (5ㄹ)에서는 ‘기능’을, (5ㅁ)에서는 ‘수업’을 나타낸다.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도 글에서는 한자 교육과 한자 병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말에서는 여전히 해결이 불가능하다. 동음이의어든 다의어든, 말이든, 글이든 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맥과 사전을 통하여 그 뜻을 확인하는 것은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밖에도 (6ㄱ)처럼 한국 한자어는 어원 정보로서 한자의 의미와 같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 (6ㄴ)처럼 한자의 의미를 해당 한자어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6ㄷ)처럼 합성어의 경우에는 한자의 의미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6ㄹ)처럼 한자어의 뜻은 어원 정보로서의 한자가 아니라 한국어 형태소의 뜻을 통하여 한자어의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초등 국어과 교육의 학습 내용으로서 한자 교육의 가치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하겠다.

- (6) ㄱ. 학자(學者: 배우는 사람), 학문(學問: 배우고 묻는 것), 학생(學生: 배우고 사는 사람)/대학교(大學校), 중학교(中學校)/선생(先生)
- ㄴ. 학교(學校): 校(학교 교)/방법(方法): 法(법 법)/역사(歷史): 史(사기 사)
- ㄷ. 춘추(春秋): 나이/수족(手足): 하수인/안목(眼目): 좋고 나쁨, 참 거짓, 가치 등을 분별하는 능력/사상(事: 일사, 象: 코끼리 상): 관찰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
- ㄹ. 학자, 학교, 학문, 학생: 학(배움)/국민, 국어, 국가: 국(나라)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독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문자 교육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자를 병기하게 되면 이를 이해하기 위한 문자로서의 한자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자를 표기할 수 있는 능력도 쌓아야 한다.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은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과 집단 간에 이루어진다. 개인이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쓴 글을 읽는 독자는 문맥을 통해서, 국어사전을 통해서 혼동되는 낱말이나 모르는 낱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로서의 한자 쓰기 교육의 난점은 2장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을 한자 교육의 한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 즉 교과서에 한자를 노출함으로써 무의식 중에 그 뜻을 이해하게 되어 나중에는 독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그 한자를 병기하여 무의식 중에 익히게 하는 것보다 독서를 어려워 할 것이고 독서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되어 독서와 독해에 효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서 습관 형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크다. 오히려 어원으로서 한자를 익히는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유도하여 독서 습관을 기르게 함으로써 독서를 통하여 어휘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5. 마무리

이 글에서는 먼저 국어·한글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을 통하여 초등 국어과 교육의 내용으로 한자 교육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임을 밝혔다. 그 논거로 국어 기본법에서의 ‘국어’와 ‘한글’의 개념, ‘한글’만이 우리의 고유 문자의 자격을 지닌다는 것은 헌법 사항 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교육과정까지 국어과의 대상으로서의 문자 교육의 내용은 ‘한글’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의 내용을 통하여 초등국어과에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논의했다. 먼저 초등학교 국어과의 문자·표기 교육의 내용을 살폈다. 그 결과 문자·표기 교육의 내용으로 한글 깨치기 관련 사항에 한자 깨치기 사항이 추가된다면 과도한 학습 부담은 물론 이중 문자 학습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한자 학습을 위한 사교육의 조장으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도 논의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낱말·어휘 교육의 내용을 살폈다. 1차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 낱말·어휘 교육의 방법으로는 문맥을 통한 낱말·어휘의 용법 파악, 국어사전 찾기를 통한 낱말·어휘의 용법 파악이 주로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국어과

에서는 한자어의 어원 정보인 한자를 이용하여 낱말·어휘를 학습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가 병기되거나 혼용되었던 시기에조차도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자 학습이 모어 화자의 국어 어휘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밖에도 한자 학습이 다의적인 쓰임을 가지는 한자어가 많다는 점, 어원 정보로서의 한자의 의미와 한국 한자어의 의미가 같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합성적 한자어의 의미는 단순히 한자와 한자의 의미가 합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한자어 뜻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우리말 한자어는 한자의 형태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각 한자어 형태소의 뜻을 익힘으로써 낱말 확장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자 학습이 학습자의 어휘력 제고의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한계가 크다는 것을 밝혔다.

국어과 교육의 내용으로서는 물론 별도의 교과로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과서의 한자 병기는 학습자의 독해 능력과 독서 흥미를 약화시켜 독서 습관 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논의했다. 아울러 한자 병기는 한자 학습의 한 방법이 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참고 문헌〉

- 김 문창(1987), 국어문자 표기론(중판), 문학세계사.
김 민수 외 공편(1995), 국어와 민족문화(4판), 집문당.
박 순경 외(2015), 초등학교 입학 직전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의 실태와 개선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포지션페이퍼.
이 기문 외 공저(1992), 한국어문의 제문제(5쇄), 일지사.
이 병규(2008ㄱ), 국어과 교육 과정의 문법 영역 내용 조직 양상 연구 1,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학회
이 병규(2008ㄴ), 국어과 교육 과정의 문법 영역 내용 조직 양상 연구 2,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정 준섭(1996),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재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국어과 교육과정.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편(2006) 국한혼용론, 도서출판 월인.
제1차~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전자파일, 교육부.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전자 파일, 법제처.
제1차~제4차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전자 파일, 교육부.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2016년 10월 7일 (금) 10:00 ~ 16:20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 제1부: 주제 발표

중등 국어 교육과 한자 (한문) 교육

신 현숙

상명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hyonsookshin@gmail.com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곧 우리나라의 중등 국어 교육과 한자 (한문)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고, 국어 교육과 한자 (한문) 교육¹⁾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 (1) 가. 중등 국어 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 나. 중등 한자 (한문) 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 다. 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 라. 한자(한문) 교육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최근 교육계와 학계에서는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자 문화권의 이해와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의미 학습을 위하여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초등학생의 학습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한글의 역사성과 우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초등학교에서는 한자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²⁾ 예컨대 (2-3)과 같이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에 대한

1)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목 명으로 <한문>을 사용하고 있다.

2)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초등학생들 어휘력 향상과 낱말의 정확한 이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학습부담 가중...또 다른 사교육 수요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7월 11일 경향신문에서 인용).

두 갈래 의견이 있다.

(2) 심 재기 (독서신문 2015년 10월 1일)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는 만연하고 있는 한자 사교육 열풍을 공교육에 흡수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열되는 사교육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둘째는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들에게 한자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함으로써 한자가 우리문화전통에 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쌓인 한자 지식이 성인(成人)이 되어 활동할 때에 이른바 창의융합형 인재의 자격을 갖추어 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3) 남 영신 (독서신문 2015년 10월 1일)에서는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고자 한다면 먼저 교과서에 한글만 사용한 언어 정책의 공과를 양심적인 학자들에게 맡겨 조사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던 시기와 지금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비교하여 어떤 점이 얼마나 좋아졌고, 어떤 점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물론 학교 국어 교육이 각 시기에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자 병기 교과서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국어사전을 이용한 낱말 교육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 학생들의 어휘 능력 하락의 원인을 국어 교육의 부실에서 찾아야지 한글 전용에서 찾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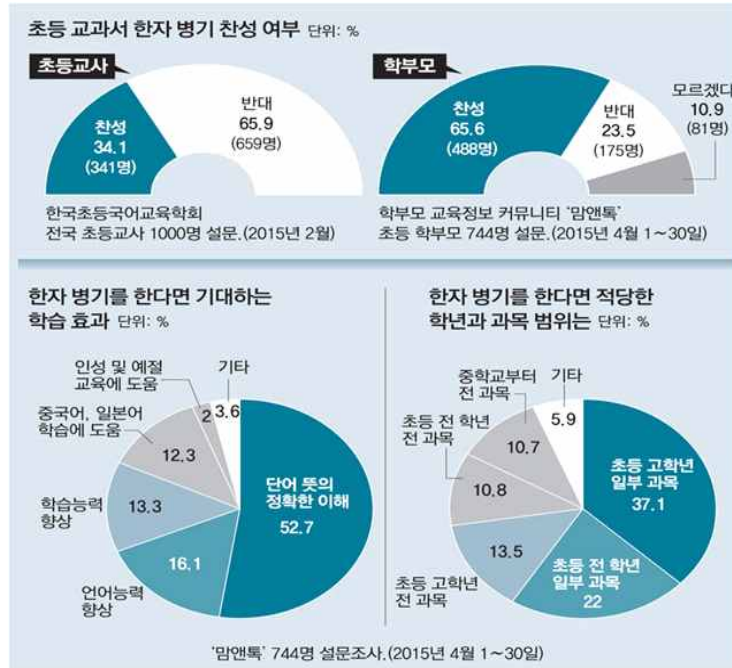
(2-3)에 제시한 두 갈래 의견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여론 조사 결과도 매체에 따라 다양하다.

<표 1>과 <표 2>에 따르면 교육 현장보다는 학부모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은 모두 국어 사랑과 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계나 국어교육계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어 역사 속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어와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결과이다. 한편 한국 언어문화 속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한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서 초등학교부터 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은 대립하는 의견이 아니다. 상호 보완이 필요한 주제이자 학계와 교육계의 과제이다. 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의 역사성도 중요하고 한국어의 사회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습자, 교과서, 교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필요, 능력, 흥미, 학습 목표는 물론 교과서 구성과 교육 내용

〈표 1: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찬성 여부〉³⁾



〈표 2: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찬성 여부〉⁴⁾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의 출발점이므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나아가 사회교육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수립과 실현에 앞서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은 물론 중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어 교육과정, 한문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한문 교과서

3) [동아쟁론] 초등교과서 漢字 병기 부활: dongA.com (2015-06-19)에서 인용한다.
 4) 활동/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한글문화연대 (2015.03.26)에서 인용한다.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자어에 대한 한자 병기나 한자 표기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하여 우리는 국어 교육과 한문 교육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와 한문 교과를 통하여 학습자가 필요한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있는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여 초등학교부터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육과정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필요에 맞추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국어 교육과정과 한문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 한문 교육을 통하여 명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한자 조기 교육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2. 중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⁵⁾

중학교 편제와 시간을 살펴보면, 국어 교과는 442 시간이고, 한문 교과는 선택 과목의 하나이므로 학교 선택에 따라서 배당 시간이 많거나 적다. 선택 교과에 배당하는 170 시간 중에서 일부 시간이 한문 교과에 배당된다.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는 실효성이 없는 아주 적은 시간을 배당하기도 한다. 그 결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문 교육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한문 교육에 깊은 관심을 두고 천자문 익히기, 한문 경시대회, 한문 백일장 등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중학교 편제〉

<p>1) 편제</p> <p>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p> <p>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p> <p>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p> <p>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p>

5)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인용한다.

<표 4: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2) 시간 배당 기준

<표 2>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학교 한문 교과서는, 국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표 5>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표 5: 중학교 한문 교과서>6)



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나무위키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인용한다.

3. 고등학교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⁷⁾

고등학교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국어 교과와 한문 교과는 보통 교과에 속하지만, 국어는 공통 과목이고 한문은 선택 과목에 속한다. <한문 I>은 일반 선택 과목이고 <한문 II>는 진로 선택 과목이다.

<표 6: 고등학교 편제>

<p>1) 편제</p> <p>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p> <p>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p> <p>(1) 보통 교과</p> <p>㉞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p> <p>㉟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p> <p>(2) 전문 교과</p> <p>㉞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I 과 전문 교과 II로 구분한다.</p> <p>㉟ 전문 교과 I 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p> <p>㊱ 전문 교과 II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해양,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과 II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p> <p>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p>

<표 7>과 <표 8>에 따르면, 진로 선택을 하는 학습자는 <한문 II>도 선택하기 때문에 <한문>을 이수하는 단위가 높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습자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한문 교육 단위가 배정되고 있다.

7)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용한다.

〈표 7: 일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2) 단위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표 3〉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94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표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표 4〉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66	28
전문 교과 II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4. 중등 국어 교육의 목표⁸⁾와 교과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중등 국어 교육의 목표와 교과서를 바탕으로 국어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중등 국어 교육의 목표는 <표 9>와 같다. 국어 교육의 목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누지 않고 제시하고 있다.

<표 9: 중등 국어 교육의 목표>

<p>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p> <p>가.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p> <p>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p> <p>다.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른다.</p>
--

<표 9>에 따르면 국어 교육의 목표를 국어문화 향유와 국어문화 창조에 두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다양하여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자 교육 내용 또는 한문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내용도 있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자어 교육 내용도 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중등 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한문 교육 또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자어에 관한 정보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10, 11>과 같이 한자 또는 한자어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⁹⁾

8)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인용한다.

<표 10: 남 미영 외. 2013. 중학교 국어②. 교학사>

기승전결(起承轉結)

우리가 자주 접하는 4단 만화는 '기승전결(起承轉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起)는 '일어난다'는 뜻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위의 만화에서 동생이 "세종 대왕은 나쁘다."라고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니, 형은 물권이거나 독자까지도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집니다.

승(承)은 '이어간다'는 뜻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동생이 세종 대왕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승'이지요.

전(轉)은 '굴러간다'는 뜻으로 사건이 전환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형은 오히려 세종 대왕은 고마운 분이라며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동생이나 독자 모두 형의 말에 의아해하겠지요.

결(結)은 '맺는다'는 뜻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입니다. 만화의 결말 단계에 해당하지요. 만화의 꼬마는 결 부분에 드러난 반전(反轉)의 상황에 있습니다. 만화도 핵심을 분석하며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지요?

한미 253

관점 바꾸어 생각해 보기

한미 315

이휘백 기묘기

학생들이 '뜻이 더해진 말'을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 반간에 써 보자.

보기

갈등(갈등) 각축(角逐) 망라(網羅) 계곡(峽谷) 사족(蛇足) 모순(矛盾)

- (1) 동물들이 뿔을 마주 대고 싸우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로, 서로 이기고 다투는 모습을 일컫는 것일 것이다.
- (2) 길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이 서로 적대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일컫는 것일 것이다.
- (3) 부러 갈라지는 뜻으로, 그치지 큰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이르는 말이다.
- (4) 뱀을 다 그리고 나서 있지도 않은 뱀을 덧붙여 그리 넣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한 군것질을 허여 도리어 잘못되게 할 줄 이르는 말이다.
- (5) 불고기나 새콤 달콤한 것을 그을기라는 뜻으로, 날카롭게 모두 포함함을 이르는 말이다.
- (6) 정과 반대를 말해서 참은 어떤 일이라도 하지 못하는 한이 없고, 방해는 어떤 정으로도 풀지 못하는 일과라 하여,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한미 225

구 정승 신 정승

어느 날 세종이 구지연(具致堧)이라는 사관을 새로운 정승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구지연은 전임사관인 신숙주(申叔舟)와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눈치챈 세종은 전임자와 후임자를 어전에 불러 놓고 임금의 물음에 틀리게 대답하면 벌주름 내리겠다고 말한 다음 두 사람을 번갈아 불렀다.

한미 163

9) 이 글에서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교과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 인용하기로 한다.

〈표 11: 김 중신 외. 2014. 고등학교 국어 I. 교학사〉

이해 학습 서로 짝지어진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각각의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써넣어 보자.

(1) **승학(勝學) / 특독(特讀)** 유학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을 했다.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했다.

(2) **재공(在公) / 재간(在干)**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을 했다.
 함자에게 급히 먹일 것을 했다.

(3) **낭송(浪誦) / 낭독(朗讀)** 아이들은 교과서를 들고 합창하듯 하고 있었다.
 그 시인은 자작시를 사람들 앞에서 하였다.

(4) **직선 시간 / 순환 시간** 인류의 역사는 탄생에서 종말로 하나의 발전 과정을 갖는다는 생각을 이라고 한다.
 인류의 역사는 계절의 순환처럼 일정한 주기를 반복한다는 생각을 이라고 한다.

(5) **역설(逆說) / 역설(力說)** 선거에 출마한 그 후보는 자신의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했다.
 그의 말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진리를 실패하고 있다.

단원 마무리 153

더 읽을거리 | 다음 글을 읽고 고쳐 쓰는 습관이 왜 중요인지 생각해 보자.

퇴고의 유래

이태준

‘퇴고’라는 말은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유래를 가지고 있다.

한자인병소(韓簡少) 편거이 사니 이웃도 드문데
 초경입행원(倬徑元) 풀술 오솔길은 거친 정원으로 들어간다.
 조속지변수(趙速知邊手) 새들은 연못가 나무 위에 잠들고
 승고침야문(僧敲月下門) 좋은 달 아래 문을 두드려네.

당나라 때 시인 가도(賈島)의 서경시(西京詩)다. 이 시의 ‘승고침야문(僧敲月下門)’이 처음에는 ‘승고(僧敲)’가 아니라 ‘승퇴침야문(僧推月下門)’이었다. 그런데 ‘승퇴침야문’을 아무리 읊어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 ‘퇴침’ 자 대신으로 생각해 낸 것이 ‘고침’이었다. 그래서 ‘승고침야문’이라 해 보면 이번엔 다시 ‘퇴’ 자에 애착이 생긴다. ‘퇴(退)로 할까? 고(敲)로 할까?’ 정하지 못한 채, 하루는 노새를 타고 거리로 나갔다. 노새 위에서 퇴고 할까? 고로 할까? 예만 열 중하다가 경운(京尹) 행차가 오는 것도 몰라서 그만 부딪치고 말았다.

이윽고 경운 앞으로 걸러간 가도는 ‘퇴로 할까? 고로 할까?’ 생각에 빠진 나머지 미처 행차가 오는 것도 몰랐다고 사경을 이어가었다. 이에 경운이 파안될 소하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긴 끝에 “그런 ‘퇴’ 보다 ‘고’가 나을 것인데.”라고 하였다. 이때 경운은 다음 아년 당대의 대문장이 완비되(韓退之)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이름을 알고 그 자리에서부터 문우가 되었으며, 가도가 ‘승퇴침야’

252 6. 글쓰기의 모든 것

이해 학습 다음 사자성어의 뜻을 생각해 보고 반전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보기	설명
아름상설(不夜城)	살랑 살랑(夜行衣)
동문서입(東門西入)	유구무언(有口無言)
가득잡기(法網難逃)	관안이(善有善報)
우이독견(耳聞目睹)	이심전심(以心傳心)

(1)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니 일세.

(2) 하고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 그는 영동하게 하면서 만장을 피웠다.

(4)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덧 (으)로 우정이 싹트고 있었다.

(5) 그 친구 고침이 워낙 세서 자네가 그렇게 말해도 일세.

(6) 아침부터 그들은 재개발 문제로 했지만 결국 결론은 내지 못했다.

(7) 그는 백운을 빌어 주겠다는 친구의 에 속아 장사 말원을 빼고 말았다.

(8) 일하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인데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면 이는 이(가) 아닌가.

단원 마무리 105

이해 학습 다음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자.

(1) **유감(遺憾) / 유감(遺恨)** 내가 이 있으면 말해 보아라.
 이 직장에 대한 나의 을 듣고 싶어.

(2) **문명(文明) / 문명(文名)** 지동차는 현대 기술 의 집약체이다.
 찬란한 의 꽃을 피웠다.

(3) **종원(宗元) / 향원(香園)** 마을 사람들이 그 영물 하고 있다.
 대중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4) **관습(慣習) / 인습(因習)** 오랜 과 전통을 따랐다.
 과거의 을 타파하다.

(5) **유년(童年) / 유년(流年)** 총년으로 농민들은 이 되어 전국을 떠돌게 되었다.
 요사한 우리가 을 연혹하기 시작했다.

단원 마무리 251

5. 중등 한문 교육의 목표¹⁰⁾와 교과서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한문 과목의 목표와 고등학교 <한문 I>과 <한문 II>의 목표가 다르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한문 과목은 선택 과목이다.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습자에 따라서 선택 여부는 물론 학습 목표, 내용, 수준, 진도 등 큰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중등교육을 받은 학습자도 국어능력 특히 어휘력이나 독해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대한 논의도 이와 같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중학교 한문 교육의 목표는 <표 12>와 같다.

<표 12: 공통교육과정 -중학교 선택 과목->

- 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라.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마.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바.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표 12>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학습할 한자는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이고, 한자어는 물론 한문과 한문 자료의 독해 능력, 전통 문화의 이해와 계승 발전, 한자문화권의 이해와 교류 증진 등 실제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국제

10)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인용한다.

교류까지도 고려한 한문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문은 선택 과목 중 하나이므로 교육 현장이나 학습자에 따라서 한문 교육의 성과는 달리 나타난다.

한문 교과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학습자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학습자 요구에 맞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한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계와 교육계에서 추구하는 국어 능력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한문 교과서를 보면 한자, 한자어, 한문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표 13-16>과 같다.

<표 13: 김 언종 외. 2013. 중학교 한문 1단원. 교학사>

단원 미리 보기

3 부수로 지전 찾기

1 한자, 안녕?

한자는 언제 누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대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자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한자·한문을 배우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2 한자와 친구 되기

한자는 일정한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 배우고 나면 한자 한 글자 속에도 질서와 문화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알면 어려운 한자들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원시만이 되었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의 편자를 써 보세요.]

오늘 밤 달이 뜨면 강 건너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만나자.

3 순비 학습 - 단원 주제어 한자 쓰기

漢	한	漢	漢	漢	漢	漢	漢	漢	漢
한	漢	漢	漢	漢	漢	漢	漢	漢	漢

字	자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자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漢字

6 | 한문지 3월호

단원 미리 보기

<표 14: 김 언중 외. 2013. 중학교 한문 1단원. 교학사>

1 한자, 안녕?

1. 한자란?
漢字란 중국 漢나라의 글자라는 뜻입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알은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 썼습니다.



2. 한자의 전래 시기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부터 한자를 쓰기 시작하여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한자를 중요한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0 | 한문과 생활

3. 한자와 한글의 차이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단지 소리만을 나타내는 표음문자(소리글자)입니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형), 소리(음), 뜻(의)을 함께 나타내는 표의문자(뜻글자)입니다. 형·음·의를 한자의 3요소라고 합니다.

〈한자의 3요소〉			
모양	소리	뜻	가
형	음	의	가
의	형	의	가

4. 한자와 한문의 차이

• 한자: 月, 虫
• 한문: 月(달)+虫(나오다) → 月虫(월충): 달이 나온다.



• 한자: 木, 木, 木
• 한문: 木(나무)+木(나무)+木(나무) → 木木木(삼목): 나무가 나옵니다.



5. 한자의 변천 과정

한자는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한자는 甲骨文과 金文입니다. 갑골문은 거북의 뼈(骨)와 짐승의 뼈(骨)에 새겨놓은 글자입니다. 금문은 청동(銅)으로 만든 솥이나 종에 새겨놓은 글자입니다.



11 | 한문과 생활

새로 배운 한자

漢(한) 나라	字(자) 글자	笑(소) 웃다	天(천) 하늘	夫(부) 기아비
大(대) 크다	月(월) 달	出(출) 나오다	무(무) 겹대기	象(상) 뼈
耳(이) 귀	文(문) 글씨	目(목) 눈	倉(창) 창	通(통) 통하다
永(영) 길다	永(영) 끝	順(순) 순치	川(천) 시내	三(삼) 셋
十(십) 열	人(인) 사람	小(소) 작다	同(동) 같다	中(중) 가운데
光(광) 더욱	道(도) 길			

<표 15: 김 언중 외. 2013. 중학교 한문 4 단원. 교학사>


10 타임머신 타고서

• 주술 구조를 안다.
• 문장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 속담 속 문화를 안다.

吾鼻三尺。
目不識丁。
燈下不明。
馬行處에 牛亦去。
豹死留皮하고 人死留名 이라.

*『정양관원서』
*『양대사』

64 | IV. 차이의 성찰



새로 배운 한자

吾(오) 나	鼻(비) 코	尺(척) 자	識(식) 알다	丁(정) 고무래
燈(등) 등불	明(명) 밝다	馬(마) 말	行(행) 가다	處(처) 곳
牛(우) 소	亦(역) 또	死(사) 죽다	留(류) 남다	皮(피) 가죽
毛(모) 털	證(증) 증명하다	留(류) 어둡다	肉(육) 고기	黃(황) 누렇다
走(주) 달리다	*豹(표) 표범			

〈표 16: 김 언중 외, 2013. 중학교 한문 12 단원. 교학사〉

36 군자와 소인

君子는 求諸己하고 小人은 求諸人 이니라. "논어", 위정공

君子는 周而不比요 小人은 比而不周 이니라. "논어", 위정공

君子는 成人之美하고 不成人之惡 이니라. "논어", 현연

小人은 反是 이니라. "논어", 현연





새로 배운 한자

求(구) 구하다	諸(주) ~에게서	比(비) 무리 짓다	省(성) 살피다	共(공) 함께
而(연) 열거	倫(윤) 인륜	純(순) 거느리다	責(책임) 꾸짖다	免(면) 면하다
性(성) 성품	宮(궁) 예치다	針(침) 바늘	執(집) 잡다	回(회) 돌다
政(정) 정치	후(후) 고지다	連(연) 이어지다	續(속) 이어지다	傳(전) 전하다
*周(주) 두루				

216 XII. 고전의 바다

확 넓히기

- 문화로 읽는 한자! 농업이 발달한 나라

田 - 田 - 周 - 周

田(밭) 田(밭) 周(사람) 周(사람)



공자가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했던 주(周)나라는 당시 농업 생산이 가장 발달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만지 끝말잇기 1 (田)周(周)周(周)
- 언어와 생활 | 자책

부끄러워할 게 많으니 사죄요.

입마가 심수 할테니, 부끄러움 마시고 그날은 웃어주세요.

아니야. 포고도 스님들 이해할 수 있잖아.



만민 검색어 2 (責)問(問)免(免)
- 어휘 1) 助長

한 농부가 모가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억지로 잡아 올리는 바람에 모가 말라 죽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긴다는 뜻으로 쓰인다.

○ 개인의 尊嚴性을 높이고 학교 폭력을 조장하는 일부 인터넷 게임 일체에 -1점이 가해질다.



심각 디하기

공자의 생애

공자는 중국 노(魯)나라에서 태어났다. 3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젊은 시절 철교지기와 가축 관리 일을 하다가 50세를 넘을 때를 행을 행하는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얼마 후 도함을 받아 물러났다. 그 후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며 도덕의 퇴폐와 政治 敗壞를 외쳤지만, 군주들은 모두 외면하였다. 결국 고향에 돌아왔으나, 사랑받는 아들들(공자 단회(桓桓), 자회(子路)가 잇달아 죽는 슬픔을 겪었다. 공자 자신도 얼마 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공자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후세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인격 완성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그가 제자들과 나눈 대화는 '논어'라는 책으로 남아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익히기

- 한자의 쓰임

反 ① 돌이키다 ② 反省
 ③ 반대하다 ④ 反共, 反面
- 읽기와 풀이

○ 君子(군자)는 求諸己(구자기)하고 小人(소인)은 求諸人(구제인)이니라. 군자는 자기에게서 (잘못을)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구한다.

○ 君子(군자)는 周而不比(주이불비)요 小人은 比而不周(비이부주)이니라. 군자는 두루 사귀고 무리 짓지 않으며, 소인은 무리 짓고 두루 사귀지 않는다.

○ 君子(군자)는 成人之美(성인之美)하고 不成人之惡(불성인之惡)이 아니라 小人(소인)은 反是(반서)이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고, 남의 악을 이루어 주지 않으나,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상식 Up

君子 군자는 임금과 귀족 남자를 부르는 말이다. 중국의 고대인들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純亦若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위도 있고 학덕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하였다. 공자 이래로 유교에서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 이해와 감상

군자는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인은 이와 반대의 삶을 산다. 지금도 공자는 군자로 살 것인지 소인으로 살 것인지 묻고 있다.



같이

○ 다음의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3)

(가) 君子 求諸己 小人 求諸人.
 (나) 君子 周而不比 小人 比而不周.
 (다) 君子 成人之美 不成人之惡 小人 反是.

- (가)의 밑줄 친 '諸'의 음과 뜻을 써 보자.
- 다음의 포스터와 관련 있는 문장을 써 보자.



지속적인 노력만이 손 잡고 할 수 있는 내공이네요.


- 다음 중 '小人'에 해당하는 학생은?

① 너도 자만하면 언젠간 언더가 될 거야.



② 완전한 친구가 있으면 더 행복해.



③ 모두 제 잘못이예요.



④ 너무 개인적인 취미는 내버려!



재미난 활동 - 나의 군자 지수는?

다음은 君子와 관련된 말이다. 자신과 비교하여 해당하는 만큼 색을 칠해 보자.

- 의리(義理)가 있다. ☆☆☆☆
- 마음이 평안하고 느긋하다. ☆☆☆☆
- 관대하고 고안하지 않다. ☆☆☆☆
- 남을 돕되 보답을 구하지 않는다. ☆☆☆☆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한문 과목의 목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일반 선택은 〈한문 I〉이고 진로 선택은 〈한문 II〉

- 60 -

이다. 각 과목의 목표를 정리하면 <표 17, 18>과 같다.

<표 17: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일반 선택 ->

고등학교 '한문 I'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라.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마.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바.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표 18: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진로 선택 ->

고등학교 '한문 II'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다.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라.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표 17, 18>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문 교육의 목표도 중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이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현장과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서 교수-학습 내용이나 수준도 다르다. 그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의 어휘력이나 언어능력 나아가 의사소통 능력에도 차이가 난다.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도 다양하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한자, 한자어, 한문 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19: 임 완혁. 2014. 고등학교 한문 I 1단원. 교학사〉

한자의 특징

1 한자

한자는 중국 한(漢)나라 때에 이르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자와 거의 같은 문자로 발달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한글이나 영어는 하나의 글자가 어떤 음의 단위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表音文字)이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소리와 함께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表意文字)이다.

	한자	한글	영어
모양	天	ㄱ	A
소리	천	기역	에이
뜻	하늘		

(1) 한자의 3요소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形)·소리(音)·뜻(義)의 세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학습할 때는 해당 글자의 모양과 소리와 뜻을 동시에 익혀야 한다.

(2) 한자의 여러 가지 음과 뜻

한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과 뜻을 가진다. 그러나 인류의 문화가 날로 발달하고 사의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미 있는 한자를 응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기났다.

樂	① 음악(악) 樂(악단), 樂(악어)
	② 즐겁다(락) 快樂(쾌락), 快樂(오락)
	③ 좋아하다(요) 樂山樂水(오산오수)

12 | 한문의 기초

• **진서(秦書)**

진서에는 대권(大篆)과 소권(小篆)이 있다. 대권은 춘추 전국 시대 때 각 제후국에서 사용한 자체(字體)이며, 소권은 진나라 때 문자를 통일하면서 정한 자체(字體)이다. 후세에 진서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권을 가리킨다.

◀ 중국 최초로 문자를 통일한 이서(李斯)의 소권(小篆)체로 전해지는 역산각석(峽山刻石)

• **해서(隸書)**

해서는 진(秦)나라 말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삼국 시대까지 사용된 자체로서, 진서의 필획을 생략하고 곡선이나 원을 직선과 네모난 모양으로 바꾸어 쓰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해서(隸書)는 이후 해서(楷書)의 등장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 글자 모양에 간체되어 있는 윤정비(乙瑛碑) 탁본

• **해서(楷書)**

해서는 한(漢)나라 말기에 출현하여 지금까지 통용되는 자체이다. 해서는 구불구불하고 쓰기 어렵던 획들을 곧은 획으로 고쳐서 네모 글자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오늘날의 한자는 바로 이 해서체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 명인권(顧鼎卿)이 해서로 쓴 언씨가묘(顔氏家廟碑)

(3) 한자의 역사

한자는 오랜 세월을 두고 발생·변화·발전해 왔다. 한자는 세계의 주요 문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사회와 문화의 발달에 따라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자의 글자 모양은 사물의 모습을 본뜬 그림 문자 형태에서 점차 발전하여 갑골문, 금문, 진서, 해서 등으로 여러 차례 자체(字體)의 변천을 겪어 왔다.

• 갑골문(甲骨文)

은(殷)나라의 왕들은 나라의 큰일이 있으면 점을 짓고, 그 내용을 기록의 배막지(甲)나 짐승의 뼈(骨)에 새겨 놓았다. 갑골문은 글자를 알로 새겨 놓은 것이므로 필획이 가늘고 길다는 특징이 있다.

◀ 가뿔의 배막지에 새긴 글자
◀ 짐승의 뼈에 새긴 글자

• 금문(金文)

금문은 종이나 솥과 같은 각종 청동기에 주조하거나 조각해 넣은 것이므로 자획이 넓고 굵으며 비교적 정연하여 균형이 잡혀 있다. 갑골문보다 회화적인 특징이 줄어들고 기초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

◀ 모공청(毛公鼎), 현존하는 금문 중 가장 많은 글자로 32행 497자의 영문이 새겨져 있다.

(4) 한자의 필순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나 선을 '획(劃)'이라고 하고, 이 획을 쓰는 순서를 '필순(筆順)'이라고 한다.

한자는 다음과 같은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바르고 썼을 있게 써야 한다.

- 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 ② 위에서 아래로 쓴다.
- ③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할 때에는 가로획을 먼저 쓴다.
- ④ 비탈과 피침이 만날 때에는 비탈을 먼저 쓴다.
- ⑤ 좌우의 모양이 있을 때에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 ⑥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에는 바깥쪽을 먼저 쓴다.
- ⑦ 꺾는 획은 나중에 쓴다.
- ⑧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찍는다.
- ⑨ 받침은 나중에 쓴다.

새로 나온 한자

乳 유乳	沒 음사라지다	了 도마지다	團 단모이다	雅 아바르다
模 오승급다	州 주교음	屯 툰정음지다	邗 한물다	義 상고귀리
鹿 띠사슴	龜 귀거북	駟 우깃	失 시화갈	舟 주배
美 위영미	突 음갑자기	器 기고릇	失 실표목하다	邗 한물하다
新 신거라	緜 현음	套 현급다	滄 창해대다	像 상모음
浩 호 넓다				

1 | 한자의 특징 15

<표 20: 임 완혁. 2014. 고등학교 한문 I 10 단원. 교학사>

31 가실과 설씨의 사랑

가실과 설씨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 진실한 약혼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여기서는 신인들의 참된 사랑과 신뢰에 대해 알아본다.

薛氏가 **甚喜**하여 **入告**於父하니 **父**가 **引見**하여

曰 “**聞公**欲代老人之行하고 **不勝喜懼**라.

思所以報之하니 **若公**不以**愚陋**見棄면

願薦幼女子하여 **以奉**其**帚**하리라.” **嘉實**이 **再拜**하고

曰 “**非敢望**也이런정 **是所願**焉이라.”

於是에 **嘉實**이 **退**而**請期**하니 **薛氏**가 **曰** “**婚姻**은

人之大倫이니 **不可**以**倉猝**이라. **妻**이 **既**以**心許**하니

有死無易하리라. **願君**赴**防**交代而**歸**하시. **然後**에

卜日成禮라도 **未晚**也리라.”乃 **取鏡**分半하여

各執一片하고 云 “**此所以爲信**이니 **後日**에

當合之리라.”하니라. “**실국사기**”

설씨가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 아버지에게 알리니, 아버지가 불리도록 말하길, “그대가 이 노인(아버지)의 행적을 대신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서 기쁨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무엇보다 보답할까 생각해 보니 만약 그대가 이리식고 추하게 이제 버리지 않는다면 원컨대 어떤 말을 시킬까 살림을 받게 하고자 하오.” 가실이 두 번 절하고 이르길, “감히 바랄 수 없지만 원하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해 가실이 풀리나 혼인할 날을 묻더니 설씨가 말하였다. “혼인은 인륜 중에서도 큰일이니 급자기 할 수 없습니다. 첩이 이미 마음대로 허락하였으니 죽는 일이 있어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그대는 변방에 가서 수자리를 살다가 고대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런 뒤에 날을 정해 혼례를 치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 가실을 가져다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한 조각씩 가지고 이르길, “이것이 신표가 될 것이니, 후일 맞추어 보도록 하지요.”라고 하였다.

새로운 낱말

卜복 점 恻인 측은하다 倉猝仓猝, 갑자기 薦薦 천거하다 妻妻 첩 引見 끌기
*薛薛 대륙, 설 *薛薛 주하다 *箕箕 기 *帚帚 비 *嘉嘉 기쁘다
*終終 갈라지

264 X 서사와 소설의 세계

31 가실과 설씨의 사랑 265

독해 마당

1 내용 파악

• 설씨 보건의 혼례 제의
聞公欲代老人之行 不勝喜懼
“그대가 이 노인의 행적을 대신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서 기쁨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思所以報之 若公不以愚陋見棄 願薦幼女子以奉其帚
보답할 것을 생각해 보니 만약 그대가 이리식고 추하게 이제 버리지 않는다면 원컨대 어떤 말을 시킬까 살림을 받게 하고자 하오.”

• 가실의 청혼과 설씨의 승낙
非敢望也 是所願焉 於是 嘉實 退而請期
감히 바랄 수 없겠음 이것이 원하던 것입니다. 이해 가실이 돌아가 혼인할 날을 물었다.
薛氏曰 婚姻 人之大倫 不可以倉猝 妻 既以心許 有死無易
설씨가 말하길 “혼인은 인륜 중에서도 큰일이니 급자기 할 수 없습니다. 첩이 이미 마음대로 허락하였으니 죽는 일이 있어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願君赴防交代 然後 卜日成禮 未晚也
원컨대 그대는 변방에 가서 수자리를 살다가 고대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런 뒤에 날을 정해 혼례를 치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가실의 신표를 삼음
乃取鏡分半 各執一片 云 此所以爲信 後日當合之
이해 가실을 가져다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한 조각씩 가지고 이르길, “이것이 신표가 될 것이니, 후일 맞추어 보도록 하지요.”라고 하였다.

2 감상적 질문

설씨는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과 행실이 아름다운 여자였다. 늙고 병든 아버지가 수자리를 살게 되어 걱정하던 중에 평소 설씨를 숭모하던 가실이 事終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설씨의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에 결혼을 許諾하여 군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하였지만 6년이 지나도록 가실이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는 말 끝에 혼자를 정하였다. 설씨는 가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례를 늦추고 가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결혼하였다. 가실의 희생적 사랑과 설씨의 절개가 찬찬한 감동을 준다.

비판적 수용

이 작품은 孝親이 시인 전형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군역은 16세부터 60세까지 모든 청장에게 부과 課役이었다. 군역과 관련지어 인물의 성격을 비교해 보자.

266 X 서사와 소설의 세계

어휘 마당

부수로 배우기 | 풍요(一)
嘉實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음으로 배우기 | 조(鳥), 양(羊)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언어와 생활 | 사랑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어휘 산책 | 破鏡(파경) - 가실을 깨다
破鏡은 가실을 깨는 뜻으로, 부부의 이별 또는 이혼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옛날 어느 부부가 이별할 때 가실을 둘로 쪼개어 왼쪽의 나누어 가지고 뒷날 다시 만나 종교로 삼았으니, 이대해 불이 꺼지므로 그 影響으로 가실의 한쪽이 깨지므로 변하여 남편에게 남의 부부의 破鏡이 끊어졌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破鏡을 알 수 없는 破鏡한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한 믿음과 慰하인 있으면 파경을 막을 수 있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嘉實(가실)

31 가실과 설씨의 사랑 267

<표 19,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내용도 한자에 대한 기초부터 한자어와 한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자 눈높이에 맞추어 한글 풀이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표 21>과 같이 단원마다

문화에 대한 정보와 평가 문항 등도 제공한다.

<표 21: 임 완혁. 2014. 고등학교 한문 I 10 단원. 교학사>

문화 마당

사람의 일생, 관혼상제

관혼상제는 개인이 일생을 거치면서 치르는 봉과 의례로, 冠禮·婚禮·喪禮·祭禮를 이르는 말이다.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조선 시대의 관혼상제는 단순한 儀禮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다.

원례
미혼의 남자가 20세 정도가 되면 머리에 관을 쓰고 성년이 되는 의식이다. 미혼의 여자는 15세가 되거나 혼인을 허락하면 머리를 음려 어른이 되는 계례(笄禮)를 치른다.

혼례
결혼식을 말하며 議婚·納采·納幣·親迎으로 구분된다. 의혼은 결혼을 의논하는 절차, 납채는 사주풀 보내는 일, 납幣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는 절차, 친영은 신랑이 처가로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 오는 의례이다.

상례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는 풍습으로, 장례라고도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이나 7일 동안 삼배로 지은 상복을 입고 문상객들을 맞으며 입관, 발인, 하관 등의 의식을 치른다.

제례
조상에게 祭祀 지내는 의식으로,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忌祭와 명절에 지내는 茶禮 등으로 나뉜다.

탐구 활동
제례를 행할 때 위패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다. 그 뜻을 알아보자.
• 顯考學生府君神位

1 본문에서 사건 진행의 중심 배경이 되는 것은?
① 喪後 ② 葬後 ③ 婚後 ④ 親喪 ⑤ 葬氏

2 ㉠~㉣ 중 동일 인물이 아닌 것은?
① 薛氏 甚喜 入舍於父 父引見 曰 "聞 公欲代 老人之行 不勝喜懼 恩所以報之 苟 公不以 愚陋見棄 願 幼 女子 以奉 其 養."
② 嘉實 再拜 曰 "非敢 贊也 是所 願焉."

3 본문의 내용 전개에 따라 그림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해 보자.
(가) (나) (다) (라)

4 창의·인성 활동 - 나도 소설가
•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듬별로 한 명의 스토리텔러가 어가 보자.

현재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자, 한자어, 한문에 대한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국어 교육과 한문 교육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한국인의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적 호기심, 어휘력, 이해력, 탐구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청소년기 곧 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자, 한자어, 한문 교육은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전 교과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실제 교육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를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교육 현장은 물론 교육 정책, 입시제도, 취업 환경,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까지 함께 정비되어야 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목표로 한 국어 교육과 한문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6. 맺음말

중등 교육과정에서 한문 교육은 국어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정보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한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예컨대, 사전에서 제공하는 어휘 정보는 국어 교육 현장이나 한문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동음이의어에 관한 정보는 국어 교육이나 한문 교육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표 22: {의사}에 대한 사전 정보〉¹¹⁾

- 의사01 (衣笥) 「명사」=옷상자.
 의사02 (意思)[의: -] 「명사」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의사03 (義士)[의: -] 「명사」의로운 지사(志士). ≒의자07 (義者).
 의사04 (義死)[의: -] 「명사」의를 위하여 죽음.
 의사05 (義師)[의: -] 「명사」의로운 뜻을 품고 일어난 군사(軍師).
 의사06 (疑事) 「명사」의심스러운 일.
 의사07 (疑辭) 「명사」의심스러운 말.
 의사08 (縊死) 「명사」'액사'의 원말.
 의사09 (擬死) 「명사」『동물』외부로부터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은 동물이 움직이지 않고 죽은 채하는 일. 곤충, 뱀, 조류, 포유류 따위에서 볼 수 있다.
 의사10 (擬以) '의사하다03'의 어근.
 의사11 (醫事) 「명사」의료에 관한 일.
 의사12 (醫師) 「명사」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의사13 (議史) 「명사」『역사』신라 때에 둔 내사정전의 으뜸 벼슬.
 의사14 (議事) 「명사」「1」회의에서 어떤 일을 의논함. 또는 그 회의. 「2」회의에서 의논할 사항.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

11) 신 현숙 (2012. 의미와 의미 분석: 112쪽. 푸른사상)에서 다시 인용한다.

〈표 22〉에 따르면 사전에서 제공하는 {의사}의 의미는 열 네 가지이다. 교육 현장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자와 한자어를 교수-학습할 수도 있고 통사 정보나 의미 정보도 교수-학습할 수 있다.

한편 중등 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한자나 한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표 10, 11〉과 같이 국어 교과서에 실린 한자나 한자어를 통하여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나 글 중에는 한자나 한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표 23: 남 미영 외. 2013. 중학교 국어③. 교학사〉



한문 원본과 함께 〈표 23〉에서 풀어쓰기 한 작품을 제시한다면 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문 교육 내용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과 〈표 24〉에 제시하는 원문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학습자의 흥미나 요구에 따라서는 원문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표 24: 「이옥설(理屋說)」 원문>12)

家有頽廡不堪支者, 凡三間, 予不得已悉繕理之. 先是, 其二間爲霖雨所漏寢久, 予知之, 因循莫理, 一間爲一雨所潤, 亟令換瓦. 及是繕理也, 其漏寢久者, 榑桷棟樑皆腐朽不可用, 故其費煩. 其經一雨者, 屋材皆完固可復用, 故其費省. 予於是謂之曰: “其在人身亦爾. 知非而不遽改, 則其敗已不啻若木之朽腐不用. 過勿憚改, 則未害復爲善人, 不啻若屋材可復用. 非特此耳, 國政亦如此. 凡事有蠹民之甚者, 姑息不革, 而及民敗國危, 而後急欲變更, 則其於扶起也難哉, 可不慎耶?”

이 밖에도 <표 25, 26>과 같이 국어 교과서에 실린 한자나 한문이 쓰인 글을 활용하여 한자, 한자어, 한문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표 25: 박 영목 외. 2013. 중등 국어① 교사용지도서. 천재교육>



12) 이 규보(李奎報, 1168~1241).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제21권에 실린 원문을 인용한다.

〈표 26: 김 중신 외. 2014. 고등학교 국어 I. 교학사〉

한중록

해경궁 중씨

그해에 나라에서 간택 단자를 올리라는 명이 내렸다. 누군가 이렇게 말 하였다.

“간택의 자식이 간택에 참여하지 않아도 집안에 재물은 없을 것입니 다. 그러나 단자를 올리지 마시지요. 오히려 가난한 집안에서 옷을 마 련하는 배를 띄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단자를 올리셨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을 받는 신하로서 내 딸은 재상의 손녀 요. 어찌 감히 인감을 기망하려 들겠는가!”


그러나 그때 우리 집은 심하게 빈곤하여 옷을 새로 매 입을 방법이 없 었다. 치마를 만들 때는 내 언니의 혼수에 쓸 것으로 마련하였고, 그 옷 속에는 낡은 천으로 속옷을 지어 입었다. 다른 차비는 빚을 내었다. 이러 니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준비해 주시던 일들이 저같은 눈에 선하다.

계해년(1743년) 9월 28일에 첫 번째 간택 날, 임금님께서는 뜻밖이고 15 재주가 남보다도 못한 나를 과하게 정한하시며 귀여워하셨다. 정성 왕후 께서는 나를 가늠이 보셨고, 신회궁께서는 직접 간택을 하는 자리에는 없 으셨지만, 먼저 나를 불러 보시고 화평한 기운으로 사랑하셨다. 내 곁에 궁인들이 다무이 많아 나는 심히 괴로웠다. 신회궁과 화평 왕후는 사물을 내려 주셨다. 또 내가 예를 받드는 모습을 보시고는 직접 예에 맞는 데도 20 를 가르쳐 주셨다.

는구나. 내가 내 아버를 보고 사랑을 알았다 기뻐하였더니 내가 그의 딸이로구나!”

또 정성 왕후와 신회궁께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니 내 복에 다행 했다. 여러 홍주들이 내 손을 잡고 귀여워하며 바코 내보내지 않았다. 그레 서 나는 경춘전이란 집에서 위엄 있는 태도를 차리고 오래 머물렀다. 짐 싣도 보내 주셨다. 궁녀들이 옷옷을 벗겨 치수를 재려 하는데 놀라서 벗 지 않으려 했으나 그 내인이 달려와 벗겨 치수를 잴다. 그때 나는 눈물이 날지만 억지로 참았다가 나을 때 가마에 들어가 울면서 길을 나왔다. 내 가 가마에서 나을 때 역에들이 옆에서 붙들어 내고, 길에서 임금님의 전 교를 전하는 여종들이 축단장을 하고 서 있는 모습도 눈앞에 비할 데 10 없었다.

집에 돌아와 내가 탄 가마가 사랑꾼으로 들어서자, 아버지께서 가마에 드러날 발을 들어 주셨다. 도포를 입고 나를 부축하여 내리 주시는데 나는



간택(間擇) 조선 시대에, 임금 왕이 왕비(왕후)를 간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간택(間擇) 간택(間擇)이란 임금의 딸을 왕비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간택(間擇) 간택(間擇)이란 임금의 딸을 왕비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간택(間擇) 간택(間擇)이란 임금의 딸을 왕비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자와 한문 교육은 한문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현재 고시된 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극 활용하여 국어 시간과 한문 시간을 운영한다면, 한국어 사용자의 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필요한 한자와 한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국어와 한문 시간의 합리적인 운영,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등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어 사용자의 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 언어문화와 한자 문화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언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 학습자, 교육 내용이다. 따라서 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자와 학습자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학계와 교육계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대한 범국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제2부: 연구 발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자 병기 도입에 대한 비판적 논의/ 이 정우

교과서에서의 한자 병기 필요성 재고/ 김 서경

범언어적으로 본 언어와 문자 표기 방식/ 이 성하

한자 병기 방식의 한자 교육이 교육적이지 않은 한자학적 이유/ 김 경일

한자 지식이 한자어 이해에 주는 효과/ 이 건범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2016년 10월 7일 (금) 10:00 ~ 16:20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 제2부: 연구 발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자 병기 도입에 대한 비판적 논의

이 정우

경기 현산초등학교 교사
choum0@hanmail.net

1. 머리말

교육부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 발표(교육부 보도자료 2014년 9월 24일)’를 통해 한자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다. 김 경자(2015)의 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전용 어문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글을 읽는다는 것이 단지 문자 기호 자체를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 문자 그 자체로 의미를 생성하고 표현하고 이해하는 思考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임을 강조한다. 특히 독해의 측면에서 볼 때 낱말은 문맥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漢字 표기 및 漢字 지식이 초등학생들의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노 명완 외, 2003). 그러나 한글 전용 어문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교과서 漢字 표기(또는 병기)를 반대하는 것이 곧 漢字 教育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 둘은 별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漢字 教育의 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말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쓸 수 있다는 점에서 漢字 教育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의 한글 전용 어문정책이 한글만 알면 누구나 읽기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글 전용이 곧 漢字 敎育폐지와 동일시되어 온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변 경애, 2002). 결국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漢字語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를 양산하였고, 이는 청소년들의 국어 능력 저하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비판한다(변 경애, 2002; 장 호성, 2015). 즉, 漢字 敎育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말을 맞춤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김 경자, 2015:19-20)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는 것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한글 전용 정신과 다른 방향이어서 어문 정책에 관여하는 국어과에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국어과가 다루는 대상은 학생의 언어 사용에 관한 것이다. 언어 사용은 학생이 일상생활이나 교과 학습 시간에 필요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행위에 관한 것이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행위는 언어 행위 과정에 작용하는 사고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국어과에서는 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을 통한 사고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국어과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국어과 교과서에 한자와 한글 병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이나 교과 학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어과에서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교과서에 한자와 한글 병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자 병기 도입 방안이 국어과 교육과 관련된 언어 심리, 언어 현상, 교육과정 문서 및 교육과정 실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지 비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본론

2.1. 언어 이해의 과정

초기 단계의 언어 이해 과정 또는 읽기의 인지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그러한 내용을 간략히 나타내면 읽기의 인지 처리 과정은 ‘글자 - 소리 - 의미’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자를 인식하고 이를 음성화하여 내적인 어휘 체계에 접근 시켜 궁극적으로 의미를 표상하는 것이다. 초기 읽기 과정에는 소리 내어 읽을 줄 아는 능력, 곧 글자와 말소리를 연결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다음의 예를 통해 초기 읽기 과정에서 한자 병기의 유용성에 대한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1〉		
글자	소리	의미
자전거	[자전거] -->	(‘자전거’의 개념)
자전거(自轉車) -->	[자전거] -->	(‘자전거’의 개념)
自轉車 -->	[자전거] -->	(‘자전거’의 개념)

이 그림은 글자의 표기 방식에 초점을 두고 글자-소리-의미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한글로만 ‘자전거’라고 쓴 경우,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여 ‘자전거(自轉車)’로 쓴 경우, 한자로만 ‘自轉車’라고 쓰인 경우이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주장하는 이들은 두 번째 방식과 같은 한자 병기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한자로 표기 되어 있지만 학생이 한자를 아는 경우와 한자로 표기 되어 있지만 학생이 한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¹⁾

먼저 한자 표기가 되어 있으나 학생이 이 한자를 아는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 하든 한자로 표기하든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학생이 한글을 보든지, 한자를 보든지 문자를 음성화하여 의미를 표상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 표기가 되어 있으나 학생이 그 한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자 학습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글과 한자 병기의 방식으로 한자를 제시하여 한자를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자는 한글과 달리 문자의 음성화를 통해 의미의 표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자는 음과 훈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소리 내어 읽는 것 이외에 한자의 뜻도 함께 알아야 한다. 학생이 한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한자 표기는 음성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한글 표기만이 문자의 음성화에 작동하여 의미를 표상하게 된다.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경우라면 한자는 의미 표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정보나 독자의 궁금증만 유발하는 기호가 된다. 한자를 한글과 함께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자를 통한 구체적이고 풍성한 의미의 표상이 가능해 진다.

문맥을 통한 어휘의 의미 파악 측면에서 보면 한자 병기의 필요성에 더욱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찬승(2015)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초등학교 한자 병기를 반대하였다.

“그 선수는 국내 경기에서 3연패를 한 후 은퇴했다.“는 문장을 보자.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때의 ‘연패’가 連覇(연달아 이김)를 뜻하는지 連敗(연달아 짐)를 뜻하는지 혼란스러운데 한자를 병기하면 해결된다는 듯하다. 이런

1) ‘자전거’라는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한자를 안다는 것은 그 한자를 소리와 뜻을 아는 것으로 전제한다.

주장은 얼마나 타당할까?

(중략) 연패(連霸)나 연패(連敗)란 단어를 보는 순간 뇌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보자. (중략) '연패(連霸)'란 글자를 보는 순간, 즉 주의를 이 글자에 기울이는 순간 아동의 뇌의 작업기억에는 한글 '연패'와 한자 '連霸'라는 2가지 정보가 올려놓아 진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작업기억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한자 병기가 과연 도움이 되는지 경우에 따라 그 효과를 살펴보자.

- 경우1: 학습자가 '연패'란 우리말 뜻을 알고 있고 문맥에 의해 이것이 '연이어 이긴 것'을 말하는지 '연이어 진 것'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 뒤에 병기한 한자 連霸는 쓸모가 없어지고 읽기에 방해가 된다.
- 경우2: '연패'란 우리말의 뜻도 모르고 連霸와 連敗란 한자어도 모를 경우 뇌는 이해에 실패한다. 이 경우 한자어는 작업기억의 정보처리에 부담만 주어 읽기에 방해가 된다.
- 경우3: 학습자가 '연패'란 우리말의 뜻을 알고 있으나 '연이어 이긴 것'을 말하는지 '연이어 진 것'을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한자어 連霸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이을 연', '으뜸 패'처럼 각 한자의 소리와 뜻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는 한자의 병기는 도움이 된다. 다만 이때는 한자어를 학교서 '한글보다 이전에'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한글도 잘 모르는 많은 아동들에게 한자 교육은 영어와 함께 이중 부담이 된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때문에 이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한자의 병기가 한글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한자를 우리말보다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매우 큰 학습 부담이다.

이러한 주장은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에 대한 학생에게 자유 진술 응답 내용이다.

<자료 2>

한글과 한자가 함께 있으면 읽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문장이 더 길어지거나 거슬러 거리거나 이해가 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4학년 김 00).
모르는 한자가 많아 책 읽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자꾸 쳐다봐져요. 신경쓰여요. (4학년 박 00)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경우 읽기 과정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제재 글에 한자가 나오면 학생들은 그 뜻을 알든 모르든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언어 기호를 해독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를 알고 있을 경우는 그 한자가 한자어의 뜻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한자 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한자 병기를 위해 한자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 한자를 알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한자 병기가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학생들의 인지 과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2. 국어과의 도구성과 국어과 교육의 목표

국어과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간 국어교육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었으며 여전히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어과 교육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학생들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또는 매체언어를 사용하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의사소통한다. 교사의 질문이나 설명을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기도 하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고 동료 학생과 토론하기도 한다. 주어진 자료를 읽고 핵심 내용을 간추리거나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거나 관찰하고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쓰기도 한다. 언어활동이 범교과적 학습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생활 전반이나 교과학습에서 필요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또는 매체 언어 사용 방법은 국어과에서 배운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어과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사용 기능을 가르치는데 이러한 언어 사용 기능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국어과를 기능교과, 도구교과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도구교과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것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노 명완(2002)에서는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적인 사고기능을 신장시켜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기능을 넘어서서 학생들에게 사고(생각)를 언어로 표현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사고(생각)를 이해 하는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다. 언어와 사고 사이를 연결 짓는 고등 정신 기능은 낱자나 단어 또는 하나의 문장(sentence) 수준이 아닌 담화(text 또는 discourse) 수준의 지적 기능을 뜻하며, 지식의 단순 수용 또는 단순 표출을 초월하는 일종의 앎의 양식(mode of knowing)이요, 지적 성장을 유발하고 조성하는 지식 생산의 힘인 것이다. 이 힘은 순차적(linear)으로 주어지는 말/글을 듣고/읽고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이해 과정과,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입체적 형태의 의미를 순차적인 말이나 글로 엮어 내는 표현 과정 속에서 구현된다. 국어 교가 도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함은 곧 국어 교과에서 기르고 자하는 언어 기능이 지식 자체가 아닌 지식의 활용 기능을 뜻하며,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은 범교과적으로 모든 학습 활동에서 요구되는 도구적인 지적 기능이 기 때문이다. (노 명완 외, 2002: 18-19)

이처럼 언어 그 자체만 초점을 두어 국어과의 도구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좁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자체로도 도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어과 도구성의 본질은 언어 그 자체라기보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인 것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언어 행위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언어’가 아니라 ‘언어 사용’이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사용이라는 도구를 통해 학생의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교과라는 것이다.²⁾

국어과의 도구성에 대한 인식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에도 잘 나타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국어과는 다른 교과의 지식을 심화, 융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어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국어 교과 역량 중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국어과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이고 하였다(서 영진 외, 2015). 사회적 요구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4.3%가 학교 국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국어 능력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윤 준채 외, 2009).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고, 언어 사용을 통해 고등 수준의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국어과를 도구교과로 인정하는 것이다.³⁾ 한자 교육, 한자 병기를 국어과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언어 사용의 도구로서 한자의 인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과에서 한자 병기를 통해 한자 교육을 하면 해당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학습에도 국어과에서 배운 한자 교육이 효과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어과의 도구성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언어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 사용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필요한 언어 처리 지식을 배우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 국어과에서 학생들에게 도구로서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은

2) 할리데이(Halliday)는 언어와 관련된 학습을 언어 학습(learning language), 언어에 관한 학습(learning about language), 그리고 언어를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language)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국어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 언어를 하나의 객관적인 구조물로 보고 탐구하는 ‘언어에 관한 학습’의 관점을 취하였다. 하지만 언어를 기능적 도구로 보게 되면서 국어교육에서도 ‘언어에 관한 학습’보다는 ‘언어 학습’ 그리고 ‘언어를 통한 학습’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국어 교육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활동에 주목하고, 이러한 언어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이 언어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다양한 고등 사고력 신장을 다룬다.

3) 최 미숙 외(2013)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소통의 교과, 사고 교과, 가치관 교과로 정리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국어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소통, 사고, 가치관 교육의 도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 사용을 통해 언어 자료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 사용 전략을 가르쳐야 한다. 글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기,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독자를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등과 같이 읽고 쓰는 언어처리 과정에 작용하는 지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만약 국어 교과서에 한자 병기와 같은 방식으로 한자 교육을 도입 한다면 의사소통 기능이나 국어사용을 통한 고등 수준의 사고력을 기르기 보다는 단순한 한자 학습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문장 수준에서 개별 한자 학습, 한자어의 어휘 학습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어과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국어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텍스트나 담화 수준의 의사소통이나 언어 사용 전략을 배우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⁴⁾ 물론, 한자 자체가 의사소통이나 사고력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한자 병기로 인해 개별 한자 학습을 하느라 의사소통이나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과 같은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 단위와는 거리가 있는 국어과 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언어 자료는 곧 학생의 학습 흥미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다.

국어과의 도구적 특성과 관련하여 2015 개정 초등학교 국어과 목표를 살펴볼 것이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국어과교육과정의 학년군별 목표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3>
[초등학교 1~2학년]

취학 전의 국어 경험을 발전시켜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문식성을 갖추고, 말과 글(또는 책)에 흥미를 가진다.

(2) 읽기

초등학교 1~2학년 읽기 영역 성취기준은 한글을 깨치고 읽는 활동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글자라는 약속된 기호가 있음을 알고 스스로 글자를 읽으려는 태도를 길러 읽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4) 노 명완(2003)에서는 국어교육이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를 언어 현상으로 보는 시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국어교육에서의 언어는 학생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학생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는 교육의 자료로 삼는 언어를 종래의 문장 중심에서 텍스트나 담화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종래의 문장 중심 언어관에서는 언어를 상징 구조물로 보았다. 그리고 언어는 그 자체 자족적이며 완성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국어 교육에서는 언어를 텍스트나 담화 수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생활 언어가 문장이 아닌 담화와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대상이 또한 텍스트나 담화이기 때문이다.

(3) 쓰기

초등학교 1~2학년 쓰기 영역 성취기준은 한글을 깨치고 학습자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학습 결과를 문자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쓰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글자를 바르게 쓰고, 자신의 생각을 문장이나 짧은 글로 쓰면서 쓰기에 흥미를 갖고 부담 없이 쓰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4) 문법

초등학교 1~2학년 문법 영역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기초 문식성을 습득하여 학교에서의 국어생활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한글을 해독하고 낱말과 문장, 문장 부호를 바르게 사용하며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초등학교 3~4학년]

생활 중심의 친숙한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생활화한다.

[초등학교 5~6학년]

공동체·문화 중심의 확장된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국어 교과와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각 학년군별 목표에서 기초 문식성,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문자를 정확하게 읽고 쓰는 능력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1~2학년군의 읽기, 쓰기, 문법 영역에서 한글을 깨쳐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 기초적인 문식성을 갖추도록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문자를 정확하게 읽고 쓰는 능력이 핵심인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기초’, ‘기본’과 관련된 언어 사용 능력은 다른 교과 학습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국어과에서 한자까지 다루게 된다면 한자나 한자 사용 역시 다른 교과나 일상생활의 도구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자어에는 전문어가 많은데 교과의 특수한 개념을 담고 있는 전문어에 쓰인 한자를 국어과에서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1~2학년군에서 한글 깨치기를 마치고 기초 문식성을 갖춘 후에 이를 바탕으로 3~4학년군이나 4~5학년군에서 기본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한글 깨치기를 1~2학년군에서 마칠 수 있게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한글 깨치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⁵⁾ 한글 깨치기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

로 다음 학년군에서 발전된 국어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자 교육에서는 ‘한자 깨치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계적으로 설정된 학년군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자 깨치기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학습용 한자를 선정하여 학년 수준에 맞게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글 깨쳐서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상태와는 다른 것이다. 한자 깨치기는 초등학교 특정 학년에 집중 지도를 통해 어느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하는 문자가 된다. 학생의 문자 학습량이 늘어나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자 학습을 위해 학생들은 반복적인 암기 학습을 하게 된다.⁶⁾ 이러한 반복 학습에서 학생의 언어 학습의 흥미를 잃을 것이다. 또한 한자 해독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되어 국어과에서 다루어야 할 언어 처리 과정에 필요한 인지 능력과 같은 고등 사고력 신장이 소홀해지기 쉬울 것이다.

2.3. 국어과 교과서와 수업

교과서에는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교사가 가르치거나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를 참조하여 선정한다. 이는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국어과는 언어를 다루는 교과이므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언어 기능 신장을 위한 언어 자료(제재 글)가 중요하며 교수-학습 과정 중에도 이 제재 글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⁷⁾ 제재 글도 하나의 자료이지만 이 제재 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교육과정에 제시한 언어 기능을 신장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국어과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에 제시한 목표와

5) 이 천희(2007)에서는 ‘글깨치기’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글깨치기는 문자와 음성의 대응 관계를 찾는 해독만이 아니라 기호의 해독과 의미의 재인(recognition)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글깨치기는 발생적 문식성을 지나서 글 자체의 내용 이해를 목표로 하는 학습 문식성(studying) 습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단계의 문식성이라고 하였다.

6) Boon(2011)은 일반적인 중국어 독자는 약 3,000개의 독특한 한자를 기억해야만 일상적인 글 읽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3,000자의 문자는 본인의 대량의 필사를 통하여 학습해 얻은 것이라고 하였다.

7) 제재 글을 중시하는 정도에 따라 글 중심 교과서관과 학습자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글 중심 교과서관은 교과서의 제재글을 가장 이상적인 글로 여기고 제재글을 모방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자 중심 교과서관은 제재 글은 여러 가지 교수-학습 자료 중의 하나로 보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이나 창의학습을 강조한다. 글 중심 교과서관은 닫힌 교과서관이라고 하며, 학습자 중심 교과서관은 열린 교과서관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제재 글을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은 반드시 글 중심의 교과서관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어과에서 제재 글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연관된 자료이므로 제재에 대한 학습을 거친다는 것이다.

관련된 내용과 제재 글과 관련된 내용의 두 차원이 존재한다.

교과서에는 제재 글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활동해야 할 내용과 방법을 정교하게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를 매개로 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하며 학습 목표에 다다른다. 교과서는 교수-학습을 위한 정교하고 구조화된 장치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6학년 1학기 1단원 교과서의 일부이다.

<자료 4>



이 차시의 학습 목표는 ‘비유적 표현의 좋은 점을 안다.’이다.⁸⁾ 이 차시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학습활동이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학습 활동 1~2는 제재 글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인데, 이를 내용 학습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비유적 표현의 좋은 점’을 알기 위한 목표와 관련된 학습활동인데 이를 목표 학습이라고 한다.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에 구성된 학습 활동을 참조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여 학습 목표에 다다른다. 이 때 비유적 표현의 좋은 점을 아는 목표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로 제재 글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내용 학습을 한다. 국어과 교과서의 대부분의 차시에도 이와 같이 내용 학습을 먼저 하고 목표학습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제재 글에 한자를 병기한다면 교사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한자의 뜻을 풀이를 하게 될 것이다. 제재 글에 나온 한자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라고 학습활동으로 구체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자 병기를 해 놓았다는 것

8) 이 차시의 단원 학습 목표는 ‘비유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알고 작품을 읽을 수 있다.’이다. 단원 학습 목표와 관련을 맺고 있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문3) 작품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한다.’이다.

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교과서 개발진은 학생들이 한자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보다 정확하고 풍부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국어 교과서에 한자어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러한 집필 의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한자어의 뜻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의 뜻풀이를 해 줄 것이다. 현행 교과서도 어려운 낱말은 교과서 아래에 별도의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이 뜻풀이는 학생의 학습을 돕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교사가 학생의 어휘 이해 정도를 파악해 보기 위한 기준이기도 하다. 교사는 뜻풀이에 나온 낱말을 학생이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낱말 풀이를 해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과서에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현되지 않더라도 제재 글의 이해나 목표 활동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있으면 이를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된다. 한자로 병기된 어휘의 뜻풀이를 하다 보면 국어과 수업을 한자 풀이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목표 학습에 써야 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수업을 설계하는 교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장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5>

“6학년은 낱말 풀이가 참 많은데, 이 낱말을 풀이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요 그냥 쉽게 풀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긴 뭐 사전식 풀이가 많아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풀이가 되어 있는데도 그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 낱말이 쓰인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한자가 나온다면 웬지 교과서에 나온 것이니까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한자까지 나오면 웬지 중요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해줘요. 라고 말할 것도 같아요. 한자까지 나오면 한자도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한자를 잘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잘 알지 학생도 있어서 한 번쯤은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자 풀이 하다 시간 다 갈 것 같은데요.” (교사 이 00)

초등학교 교사들은 국어 교과서에 굳이 한자를 병기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한자어의 한자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 다음은 국어 교과서에 나온 한자어의 한자 뜻을 교사가 학생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자료 6>

김 교사는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수업에 뉴스 기사문을 읽고 기사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민혁 학생이 김 교사에게

질문한다.

(기사문)

이를 위해서 게임과 교육이 접목될 수 있는 교육 소재를 개발하고, 오프라인 교재 시장과 접합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민혁: 선생님, 그런데 접목이 무슨 말이에요?

접목의 뜻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알맞게 조화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라고 되어 있다. 김 교사는 접목이 한자어이므로 한자로 알려주면 더 잘 알 것 같았다.

교사: 접목은 한자로 된 말인데, 한 글자씩 뜻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 ‘접’ 자는 ‘한 나무에 다른 나무의 가지나 눈을 따다 붙이는 것을 말해요. 무엇을 붙인다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하나에 다른 하나를 붙인다는 뜻으로 쓰인 ‘접’ 이 들어간 낱말이 많이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 접촉 사고, 접촉제, 접근 금지

교사: 그렇지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교과서에도 이 뜻으로 쓰인 다른 낱말이 있네요.

형우: 접합(큰소리로 말한다.)

교사: 그래, 형우가 잘 찾았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접’ 은 한 나무에 다른 나무를 붙이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이 ‘목’ 자는 나무를 뜻해요. 이 낱말을 잘 알고 있지요?

학생: 네.

교사: 그럼. ‘접목’ 이라는 낱말의 뜻을 글자 그대로 살펴보면 무엇일까요?

학생: 한 나무에다가 다른 나무를 붙이는 것입니다.

교사: 그래요. 그러면 이 글에서 접목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교사가 한자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도 학생에게 한자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관찰자는 수업이 끝난 후 김 교사에게 한자를 직접 써서 학생에게 설명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을 물어보았다. 김 교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자료 7>

“한자로 ‘接木’ 을 직접 써 줄까하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직접 써 준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이러한 한자를 실생활에서 별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자를 굳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한자어의 뜻만 풀어 주어도 충분히 낱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접목이라는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한자를 쓰고 읽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사 최 00)

김 교사는 접목이라는 한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한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뜻만 알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사의 설명을 통해 한 자어의 뜻을 알면 그 어휘는 학생의 어휘 체계에 자리 잡게 되어, 낱말의 한자를 읽거나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자어의 한자를 익히는 것은 굳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사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 대화 자료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국어 어휘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는 수업의 동기 유발 자료이다.⁹⁾

<자료 8>

선생님: (사전에서 찾은 하늘이란 낱말을 가리키며) 한결아, ‘하늘’이란 낱말 옆을 잘 보렴. 옆에 괄호나 다른 나라 글자가 없지? 다음에는 ‘학교’라는 낱말을 찾아보자.

한결: (사전을 넘겨 찾은 뒤) 찾았어요. 어, 그런데 먼저 찾아본 ‘하늘’과 달리 ‘학교’ 옆에는 괄호 안에 한자가 있네요.

선생님: 그렇지?

이 대화 자료는 국어의 어휘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사가 한자어를 설명할 때 사전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사전에는 한자어에 쓰인 한자가 표기되어 있다. 교과서에 굳이 한자를 병기하지 않더라도 사전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한자어에 사용된 정확한 한자를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한다면 학생들은 그 한자를 배워야 할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휘 학습에서 한자를 익히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국어 교과서에 나온 한자어를 배우는 것은 국어 어휘 체계를 이해하고 어휘의 뜻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다.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지 않더라도 한자어의 뜻풀이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자를 직접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을 참조하는 것과 같은 통해 한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4.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어의 비율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국어의 70%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거

9) 이 수업은 6학년 1학기 6단원 8차시의 내용 중 1~2차시에 해당한다. 해당 차시의 학습 목표는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을 분류하여 보고 어휘 구성의 특성을 안다.’이다. 그리고 관련 국어과 교육과정의 관련 성취 기준은 ‘[문법]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이다.

나 알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하여 학교에서 한자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의 정확한 것인지 최 운선(2012)의 연구를 인용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최 운선(2012)은 국어의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다는 통계는 특정 국어사전의 올림말의 단순 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이것이 우리말 전체의 비율로 소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¹⁰⁾ 국립국어연구원이 2002년 발표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를 보면 우리말의 낱말 사용 비율은 토박이말이 54%, 한자어 35%, 외래어가 2%라고 하였다. 국어 어휘에서 한자어 비중이 70%라고 하는 통계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할 때 국어의 한자어 비율은 더 줄어든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에는 한자어가 전체 어휘의 70% 정도가 될 만큼 많지 않다. 이에 대해서도 최 운선(2012)의 연구를 참조할만하다. 최 운선(2012)은 국립국어원의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쓰인 어휘 유형을 분석하였다.

<표 1> 초등학교 교과서 어원별 구성 어휘수와 비율 종합(최 운선, 2012)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한자어	한자어	고유어	합계	
				+고유어	+외래어	+외래어		
단순 구성	중복어휘 인정	9,243 (39.71%)	9,189 (39.48%)	772 (3.32%)	3,912 (16.81%)	113 (0.49%)	47 (0.20%)	23,276 (100%)
	중복어휘 안함	24,145 (46.26%)	15,509 (29.71%)	1,403 (2.69%)	7,981 (15.29%)	166 (0.32%)	72 (0.14%)	52,196 (100%)
빈도수	중복어휘 인정	487,580 (64.54%)	193,048 (25.58%)	11,215 (1.48%)	62,601 (8.29%)	539 (0.07%)	434 (0.06%)	755,417 (100%)

10) <표> 『우리말 큰사전』, 『국어 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의 어원별 비율

(최 운선, 2012: 528)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고유어	한자어	한자어	합계
				+한자어	+외래어	+외래어	+고유어 +외래어	
우리말큰사전 (1957)	74,612 (45.5%)	85,527 (52.1%)	3,986 (2.4%)	-	-	-	-	164,125 (100%)
국어대사전 (1961)	62,912.5 (24.4%)	178,745.5 (69.3%)	16,196 (6.3%)	-	-	-	-	257,854 (100%)
표준국어대사전 (2000)	111,299 (25.3%)	251,478 (57.1%)	23,196 (5.3%)	36,461 (8.3%)	1,331 (0.3%)	15,548 (3.5%)	751 (0.2%)	440,262 (100%)

『국어대사전』에서는 한자어의 비율이 69.3%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한자어+고유어+외래어’와 같은 혼종어의 구분 없이 한자어만 통계로 잡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한자어가 57.1%라고 제시하였으나 한자어를 포함한 혼종어를 모두 포함하면 한자어의 비율은 69.1%이다. 『국어대사전』이나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만 놓고 본다면 국어의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6학년의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는 고유어로 총 23,276개 중 9,243개로 39.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어는 9,189개로 39.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자어와 혼종으로 쓰인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의 비율은 각각 16.8%, 0.5%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어를 포함한 낱말은 전체 어휘의 56.8%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에서는 6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교과서는〈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외래어〉한자어+외래어≥고유어+외래어〉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다른 출판 매체 보다 의도적으로 고유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국정 교과서를 개발할 때 집필자들은 학생의 언어발달 상태와 교수-학습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개념어들을 가능하면 쉬운 어휘로 대체하거나 풀어서 기술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학생의 배려와 교수-학습 고려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사전에 등재된 통계와 다를 수 있다.

국어 어휘 중 한자어가 70%라는 주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짚어 볼 사실이 있다. 한자어가 전체의 70%라는 주장 속에는 한자어의 중요도 또한 70%가 된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한자어가 국어 어휘의 70%를 차지하니 70% 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등재된 표제어를 기준으로 한 통계일 뿐이다. 어휘 사용의 빈도를 고려한다면 해당 어휘의 중요도가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휘 사용 빈도에 비추어 보면 한자어의 비중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¹¹⁾ 사전에 올라가 있는 어휘들 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한자 조어 구조와 다른 일본의 한자, 중국의 한자 어휘를 그대로 실은 경우도 있다. 물론 사전의 편찬 방침에 따라 국어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한 말이면 사전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 빈도가 낮은 한자를 제외한다면 사전의 표제어 중 한자어의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결국 한자어의 사용 빈도를 고려할 때 한자어가 사전에 실린 비율 만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등학교 교과서만을 놓고 볼 때에도 한자어의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 최 운선(2012)이 분석한 <표 1>에서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어휘는 고유어로, 어휘수가 487,580개이며 전체 어휘의 64.54%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는 한자어이며 193,048개, 25.56%이라고 하였다. 고유어의 사용 비율이 한자어 사용 비율 보다 40%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11) 이 충우(2006)에서는 이 용주(1974)의 연구 결과에 인용하여 기초 어휘에서는 고유어의 체계가 발달하였고 전문 어휘에서는 한자어가 발달하였다고 하였다. 빈도가 낮을수록 전문 어휘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한자어는 국어의 빈도순 1~100에서는 7%이나 빈도순 901~1000에서 51%, 빈도순 2401~2500에서 63%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다. 어휘 사용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 어휘가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자 교육, 한자 병기를 한다는 주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한자어에는 개념어, 전문어가 많다. 이 충우(2006)에서는 국어 어휘의 특징 중 하나로 한자어가 개념어로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한자어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야 하는 개념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최 운선(2012)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한자어가 대부분 명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명사라는 품사가 개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한자어는 주로 개념을 나타내는데 주로 쓰이고 있으며, 교과와 관련된 어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도덕과, 사회과, 과학과와 같은 내용교과에서 ‘갈등’, ‘절제’, ‘총력’, ‘민주 정치’, ‘전기 분해’, ‘연소’ 등의 교과 고유의 내용 지식을 나타낼 때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의 어휘에 한자어가 많으므로 국어과에서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국어과에서 다른 교과와 개념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어 어휘를 구성하는 한자어가 많다고 하더라도 교과와 관련된 개념어, 전문어가 대부분이므로 국어과에서 관련 한자를 다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련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개념이다. 설령 국어과에서 한자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한자어로 된 개념어, 전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어과에서 다루는 지식은 개별 한자에 대한 지식이라기 보다는 한자어를 통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2.5. 학생들의 문식 환경

아동의 문식성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해 노 명완(2006)에서는 성숙주의 관점, 행동주의 관점, 상호작용주의 관점,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네 가지 관점은 문자 언어 학습관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성숙주의 관점에서는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 문자 언어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다.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초기에도 문자 언어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다. 상호작용주의 관점에서는 사고 발달 단계에 따라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사회적 상호작용 주의 관점에서는 출생 직후부터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자 언어를 학습한다고 본다. 이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관점 가장 최근의 이론이며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에서는 아동에게 문자를 가르치지 않아도 문식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다고 본다. 따라서 풍부한 문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국어 교육에서도 학생의 문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풍부한 문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풍부한 문식 환경 속에서 주변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문식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문식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인 상호 작용, 문식 자료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도적인 차원과 학교 밖 문식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한 학생의 문식 환경과 관련지어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병기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한글 해득을 위한 시간을 강화하여 학생의 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김 창원 외(2015)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한글 교육의 강화를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점 요소로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한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시수를 가시적으로 강화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한글 교육의 내용이 27차시에 머물렀지만 2015 개정에서는 45차시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다. 교육부(2016)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안내 자료집에 따르면 1학년 1학기 국어과 교과서에 기초 문식성 지도 내용을 집중 배치하였다. 한글 낱자 학습과 관련된 내용만 5개 단원에 51차시를 배정하였다. 이는 1학기 전체 교과서의 배정 차시의 약 55%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글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한 것은 초등학교 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식성 지도를 위한 시간 부족, 지도 자료 부족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깨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풍부한 문식환경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국어 교과서에 한자 교육을 병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한글 깨치기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만약, 한자 병기를 한글 깨치기를 마친 3~4학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있다. 한글을 소리 내어 읽을 수만 있다고 하여 기본적인 문식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문자 학습은 단어 인식에서 의미 파악으로까지 연결되어야만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단어 인식 능력은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글 이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글자를 읽는 능력과 글자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밀접하게 관련을 이루며 초등학교 전 학년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과업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도 소리 내어 책 읽기를 활동을 하고 있다. 국어 교과서의 한자 병기는 제도적으로 학생들의 문식 환경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문식 활동 환경과 한자 병기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 혜승 외(2013)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어떤 내용을 얼마나 읽고 쓰는지 폭넓게 조사하였다.¹²⁾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미, 스포츠, 연예, 게임 등의 오락적 내용의 독서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인쇄 매체인 책은 점차 덜 읽는 반면,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무료 문자 서비스, 인터넷 자료, 전자우편, SNS를 읽는다는 응답은 5학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읽는 자료의 내용이나 매체의 특성을 보면 일상적인 내용이거나 교과 학습의 지식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어와 개념어가 중심인 한자어를 비교적 적게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

한글과 한자의 병기는 국어의 문자 정책과도 동떨어져 있다. 2005년 제정된 국어 기본법에서는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로 ‘한글’을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대부분의 인쇄물을 한글 전용으로 표기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과서 이외에 접하는 다양한 자료 역시 거의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어과 교과서에 굳이 한자를 병기하면서까지 한자 교육을 하여 학생들의 문식 능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자 병기 도입에 대해 언어 이해의 과정, 국어과의 도구성과 국어과 교육의 목표, 국어과 교과서와 수업,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어의 비율, 학생들의 문식 환경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초기단계의 문식성 학습에서 학생들이 문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표상하는 과정에서 한자 병기가 과연 효과적이지에 논하였다.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한자가 한자어 어휘를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어휘 학습 이전에 개별 한자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자를 알지 못하면 그 한자는 의미 표상에 불필요한 정보나 혼란을 초래하는 정보가 된다.

12) 학교 밖이라는 명칭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학교 밖 문식 활동은 문식 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용어로,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 학생들이 읽고 쓴 모든 활동을 총칭한다. ‘문식 활동(literacy practices)’이란 문식성을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관점의 용어로, 텍스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event) 속 행위를 뜻한다. 문식 활동이 일어나는 사건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맥락인 문식 영역(domains)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Street, 2001; Barton, 1994; Barton & Hamilton, 1998., 정 혜승 외 2013: 288-289에서 재인용).

둘째, 국어과의 도구적 성격과 국어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한자 병기를 통한 한자 교육의 부적합성을 논하였다. 국어과에서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사용 기능을 가르친다. 또한 이러한 언어 사용을 통해 고등 사고능력을 계발한다. 따라서 국어과에서는 언어 자체에 대한 학습 보다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학습이나 언어를 통한 학습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나 고등 사고능력 신장을 길러 주어야 한다. 한자 학습은 한자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여 국어교육에서 개별 한자를 익히는 암기 학습을 강조할 우려가 있다. 이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와 국어 수업을 통해 한자 병기의 불필요성을 논하였다. 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한다면 교사는 제재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 학습 동안 한자를 다루게 될 것이다. 한자를 많이 다룰수록 학습 목표와 관련된 목표학습 시간을 줄어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지 않아도 교사는 해당 한자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국어 어휘에서 한자어의 비중과 관련하여 한자 병기 도입에 대해 논하였다.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른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특정 사전의 특정 사전의 표제어에 기댄 것일 뿐만 아니라 어휘 사용 빈도까지 고려하면 그 비중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한자어의 비율이 더욱 낮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학생의 언어 발달 상태나 교수-학습을 고려하여 고려하여 어려운 개념어나 한자어 표현을 쉽게 풀어 썼기 때문에 한자어의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학생의 문식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한자 병기가 적절성을 논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한글 익히기에 관한 차시 수를 늘리고 한글 깨치기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접하는 문식 환경 역시 한자를 사용하는 언어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식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들여 한자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의문이다.

국립국어원(2010)에 따르면 2008년 한국 학생들의 문해율은 98.3%로 세계 선진국 평균인 99.6%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20~40대의 경우 문해율은 100%에 이른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표음문자인 한글의 특성으로 인해 한글을 배우기가 쉽다는 점이 주요 요인 중 하나 일 것이다. 하지만 국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게 된다면 한자 표기의 확대에 의해 학생의 문해율은 낮아질 것이다. 또한 한국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읽기 소양 부분에서 높은 성취를 보였다. 15세 이하 학생의 읽기 능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읽기 동기 부분에서는 읽기 소양에 비해 높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읽기의 독특한 현상이다. 한자 병기로 인해 국어 교육에서 한자를 암기하는 방식과 같이 한자 교육을 잘못 도입하면 학생의 읽기 동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국어의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지식은 국어 어휘를 이해하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자는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문자이고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가 기록된 문화유산이다. 국어 교육에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면서 한자 교육을 활성화 하려는 방안이 필요한지, 그러한 방안이 초등학교의 한글과 한자 교육, 궁극적으로는 언어 교육에 효율적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이 학생의 언어 발달에 적합하지 않거나 언어 학습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 병기로 인해 학생의 학습 부담이 늘어나고, 학습 동기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의 병기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Boon, J. L. MinM X.(2011). 「중국 어린이들에게 있어 필순과 기억이 중국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자한문교육 6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p. 413-460.
- 최 운선(2012). 『초등 교과서에 나타난 고유어와 한자어 비율에 따른 인식과 의미 분석』.
- 국립국어원(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 국립국어원(2010).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 노 명완·박 영목·권 경안(1997). 『국어과 교육』, 갑을 출판사.
- 정 혜승·김 정자·민 병곤·손 원숙·백 혜선·백 정이·박 치범·오 은하·정 현선 (2013). 「초등학생의 학교 밖 문식 활동 조사 연구」, 독서연구 제30호, 한국독서학회. pp.287-336.
- 김 경자(2015). 「한자교육 활성화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에 관한 논의」, 한글한자 문화 194권,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pp.18-25.
- 서 영진·이 인제·조 용기·박 진용·양 정실·가 은아·민 재원·민 병곤·김 주환·김 주영·김 보람(2015), 「미래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 국어」, 연구보고 CRC 2013-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 준채·이 형래·옥 현진·서 수현·박 창균(2009). 「한국인의 언어활동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2009-01-74.
- 이 천희(2007). 「읽과 언어의 상호작용과 글깨치기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 미숙·원 진숙·정 혜승·김 봉순·이 경화·전 은주·정 현선·주 세형(2013), 『국어교육의 이해(개정2판)』, 사회평론.
- 노 명완·정 혜승·옥 현진(2003),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와 국어과 교육』, 박이정.
- 노 명완·이 차숙(2006), 『문식성 연구』, 박이정.
- 최 현섭·최 명환·노 명완·신 헌재·박 인기·김 창원·최 영환(2006), 『국어교육학개론(제2증보판)』, 삼지원.
- 교육부(2016), 『초등학교 국어 6-1』, (주)미래앤.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 교육부(2016),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안내』 자료집.
- 이 충우(2006), 『좋은 국어 어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학사.
- 이 찬승(2015).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방침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http://www.huffingtonpost.kr>(2015년 7월 1일)
- Halliday, M. A. K. & Hasan, R.(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 Aspect of language in a social perspective*. Oxford an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bert, W. H.(1986). *Curriculum: Perspective, paradigm, and possibility*. New York: Machillan Publishing Company.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2016년 10월 7일 (금) 10:00 ~ 16:20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 제2부: 연구 발표

교과서에서의 한자 병기 필요성 재고

김 서경

서울 이수중학교 교사

nowyme@naver.com

1.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논란

2014년 9월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이 발표된 이후 교과서 한자 병기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우리말을 무엇으로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글의 창제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이는 몇 백 년을 끌어 온 우리의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인 셈이다. 광복 후 어문운동 및 국가정책의 영향으로 한글 전용이 우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한자 병기에 대한 논쟁도 사그라드는 듯하였으나, 2015 교육과정에서 인문소양 함양의 한 방안으로 한자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그 예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능력, 모호성과 다양성의 수용태도, 감수성과 상상력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문소양이 ‘인성교육의 기초 및 창의·융합 인재의 기초 소양으로 강조’되고 있어서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양한 교과 및 예술·체육 교육 중 인문소양을 기를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2015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14:23)의 의도는 타당하며 합리적이다. 그러나 인문소양의 함양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자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은 한자 낱자들에 대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과연 2015 교육

과정에서 의도한 인문소양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차라리 2015 교육과정의 최초 의도가 단순한 한자 교육의 활성화가 아니라 한문 교육의 활성화였다면 - 한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차치하고라도 - 한문 교육의 목표나 성격을 고려할 때 한문 교육을 통해 인문소양의 함양을 이루겠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납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5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활성화’의 대상은 ‘한문 교육’이 아니라 ‘한자 교육’이었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겠다는 논리는, 한문 교과를 선택 교과에서 필수 교과로 설정해 전체 교육과정 편제를 흔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모든 교과의 실제 수업에 한자 교육 내용을 확보하겠다는 치밀한 의도로 읽히기에 인문소양의 함양이라는 전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여론이 일자, 2016년 1월 발표한 2015 교육과정 총론 관련 질의 자료에서 한자 병기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삭제하였다. 대신 교육부는 2016년 4월 정책연구과제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방안 연구’를 공모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의 발달수준에 맞는 적절한 한자 목록과 한자어 풀이 방안이 없어, 교과서 본문에 무분별한 병기 발생’하므로 ‘초등 5-6학년 수준에 적합한 200~300자 내의 한자를 선정’, ‘교과서 밑단 또는 옆단 등에 효과적인 한자어 풀이 방안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6월 해당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¹⁾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자 병기 대신 표기를 선택하여 가독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자 한 듯 보인다. 그러나 사실 학교 현장에 미치는 여파는 한자 표기가 병기보다 더욱 위력적일 수 있다. 교과서 옆단 혹은 밑단에 설정된 별도의 한자어 풀이는, 이것이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는 이상 교육 현장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교과서 지문 중, 혹은 어휘에 대한 설명단에 병기되어 있는 한자였다면, 인명이나 지명을 해당 언어의 문자로 보조 표기하는 경우를 접할 때와 비슷하게, 무의미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지나칠 수도 있겠으나, 교과서에 별도의 체계로 구현되어 한자가 표기된 경우라면 이것은 반드시 교육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진숙 외(2009:11, 123)²⁾에서는 한자 교육 방안 중 하나로 한자 병기를 제

1) 교육부 누리집 ‘공지사항’의 ‘2016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2016.04.16.)’, ‘2016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결과 알림(2016.05.20.)’이란 제목의 게시글 두 개와 ‘정보 공개-정보 목록’ 중 비공개처리 된 내부 문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방안 연구’ 계약체결 알림(2016.06.13.)’ 참고.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보고서인 김 진숙 외(2009)는 한자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 바람직하게 한자를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총 5가지 들고 있는데, 한자(한문) 과목 신설(정규 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 국어과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교육과정

시하고 있으며, ‘교과서 본문의 일부 한자어 뒤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과, 교과서 본문 낱개나 단원 말미에 별도로 일부 한자어를 병기, 제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2015 교육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김 진숙 외(2009:11)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글 전용을 추구하는 현 국어 어문 정책을 고려할 때, 그 구체화를 위해서는 국어 공동체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 한계를 밝혀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한자 병기³⁾를 고수하고 있기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문소양 교육의 함양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우며, 국어 공동체의 합의도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15 교육과정에서 한자 병기를 꾸준히 언급하는 이유는, 한자 교육이 어휘 교육에 유의미하다는,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할 것처럼 보이는 가정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병기할 수 있는 한자에 대해 조금만 고민해보면, 한자 교육이 곧 한자어 어휘 교육으로 연결되며, 한자어 어휘 교육이 곧 한문이나 국어 교과뿐 아니라 다른 타 교과의 교육 내용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허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교과의 교과서를 통해 한자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도는, 한문 이외의 교과에서도 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전제한 것이기에, 이는 곧 모든 교과의 정체성과 목표 자체를 뒤흔드는 일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문 교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자를 통한 어휘 교육이 마치 한자 교육 및 한문 교육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한문 교과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한문 교과의 존립 여부 역시 다시 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2. 한자 병기와 한자 표기 논쟁이 불필요한 이유

2.1. 문자 정책과 한자 병기

교과서의 한자 병기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문자 정책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자 정책이란 한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기

별첨 자료로 제시하는 방안, 재량·특별활동에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하는 방안, 교과서에서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 3) 본고에서는 한자 병기와 한자 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이후 ‘한자 병기’를 2015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 병기’와 ‘한자 표기’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자 병기나 한자 표기 모두 결국은 같은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한자를 바탕으로 각 교과의 어휘를 교육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위한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무엇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우선 여기서 ‘무엇을’은 표기의 대상이 되는 언어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표기만을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외국어 역시 표기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외국어는 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 명사의 경우 어떻게 표기할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을 살펴보면 각 언어별로 표기 세칙을 두고 그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필요할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추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문자 정책에서 그 대상이 되는 언어는 일반적으로 한국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하기 어려운, 지명이나 인명과 같은 외국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무엇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어를 무엇으로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한국어는 한글로 혹은 한자로 표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모든 한자는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한글, 한자를 바탕으로 표기가 가능한 조합은 ‘한글·한자 혼용’, ‘한자 병기’, ‘한글 전용’의 셋이 된다. 여기서 한글·한자 혼용은, ‘冊이 學校에 있다.’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며, 한자 병기는, ‘책(冊)이 학교(學校)에 있다.’로 표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 문장에 대한 한글 전용 표기는 ‘책이 학교에 있다.’가 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란 표기 방법에 대한 것으로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과 같은 어문 규범들이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한자 병기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언어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압축해볼 수 있다. 그 중 중국어와 일본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며, 해당 언어가 외국어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과서 병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자로 표기가 가능한 한국어, 즉 한자어일 것이다.

그런데 한자어를 무엇으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비단 교과서 병기에만 한정되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한자어 표기에 대한 입장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한자어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보자면 한자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속성 - 한자는 표의 문자로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 한자가 국어 어휘 조어에 큰 역할을 할 만큼 생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발음대로 표기할 경우 각각의 글자가 의미하는 바를 표현해내지 못하게 되어 어문 규범에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특성 때문이며, 통시적으로 보자면 한글 창제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문자이기에 언어 생활에 있어서나 문화의 측면에서나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아직 이러한 연구들의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

급히 한자어를 무엇으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첨예하게 논란이 지속되는 일일수록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한글을 전용하는 쪽으로 문자 정책의 가닥을 잡고 있다. 국어기본법 3조에서는 “국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로,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국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한글을 사용하며, 한글을 표기하기 위한 표기법으로 한글맞춤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어 역시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현재의 문자 정책이다. 사실 어느 쪽이 앞으로 언중의 언어 생활에, 심지어 남북 통일 이후의 언어 생활에 더욱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그렇기에 국한 혼용, 한자 병기, 한글 전용 중 어느 쪽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일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의 언어 정책이 한자보다는 한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나서서 쉬운 공공 언어 쓰기 정책을 꾸준히 벌이고 있으며, 언어 순화의 대상이 무분별한 외국어나 일본어 잔재에 한정되지 않고 어려운 한자어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들⁴⁾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언어 정책은 어려움 없이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언어 정책의 밑바탕에는 한글을 중심에 둔 문자 정책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 문자 정책을 검토하여도 결과는 같다. 우선, 한자어 교육을 위해 한글 이외의 새로운 문자를 교육할 수는 없다. 한자와 한자어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한자를 배운다고 국어 어휘 중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만약 한자를 통해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 가정하여도, 국어 어휘 교육을 위해 다른 문자를 학습해야 하는 본말전도의 상황이 발생하고 만다. 우리나라가 이중 문자 정책을 쓰지 않는 이상, 한글 전용

4) 최근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과용도서 편찬 시 ‘우리말 다듬기’ 수록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각 출판사로 전달된 교육부 발송 공문(교육부 교과서정책과-3290(2016.08.24.))에서도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라고 하는 중학교 국어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과서 구현 방안으로 ‘담화 상황에 맞게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말과 고유어로 다듬은 말을 사용하도록 안내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사소한 제안을 통해서도 현재의 어문 정책은 한자 병기가 필요 없는, 누구나 들어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책이 폐기되고, 한자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일상적 문자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국어 어휘의 일부인 한자어 교육을 위해 한자라고 하는 별도의 문자를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둘 수는 없다. 이는 현재의 문자 정책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문자 정책 하에서라면 정책의 산물인 교과서⁵⁾ 역시 한글만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사실 국어기본법을 수정 혹은 폐지하고 문자 정책 방향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교과서에서 한자 병기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2.2. 교과서 편집 체제과 한자 표기

이번에는 한자 표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한 번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교육부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자 병기 대신 한자 표기를 활용하여 교과서 하단이나 옆단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 교과서의 단원 체제 속에 한자 교육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2015 교육과정⁶⁾에 따른 교과서 개발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과서 편집 체제 상 하단 혹은 옆단을 활용할 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만 별도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드물기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일정하게 지속되는 편집 체제를 통해 그 내용이 구현된다면 한자 교육의 효과는 더욱 커지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Gavin Ambrose & Paul Harri(2008:78)에 따르면 ‘페이지에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방식은 전달되는 메시지를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허 강 외(2005:88)에서도 ‘레이아웃(layout)이란, 계획, 설계, 공간 분할이라는 뜻으로, 문자·그림·사진 등 각 구성 요소들을 지면에 일정하게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각 요소를 최대의 학습 효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 속에 배열시키고 시선을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레이아웃이 잘 된 판면은 전술한 포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독성·조형성·미려성은 물론 학습자의 심리적 동기 유발과 안정성, 나아가 학습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현재 정책 연구과제로 진행 중인 한자 표기가 하단이나 옆단을 활용한 교과서 구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교과서 편집 체제로 구현된 한자 표기는 한자 병기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편집 체제 자체

5) 교과서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가 교육과정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으며, 교육과정이 정부의 교육 정책의 일부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며,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교과서가 우리나라 정책의 일부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 본다.

가 교육부에서 의도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제로 행할 수밖에 없기에 그 결과는 더욱 분명해진다.

문제는, 하단 혹은 옆단을 활용한 한자 표기가 가져올 교육과정 전체의 혼란이다. 모든 교과서를 통해 한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자의 자의를 활용하여 한자어를 교육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은 사실 한문 교육 혹은 국어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내용이지 각 교과목의 교육 내용으로 삽입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모든 교과목의 교육 내용 중 한자 교육 및 한자어 교육이 일정 부분 확보될 수 없으며, 현재 고시된 2015 교육과정에서도 한자 교육이 각 교과목별로 확보되어 있지도 않음은 그를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표기를 통한 한자 교육을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에 적용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2015 교육과정 전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한자 표기를 통한 한자어 어휘 교육이 다른 교과 교육 내용으로 삽입되는 일은, 국어 어휘 교육이 다른 교과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곧 이는 국어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한자 교육이 다른 교과서를 통해 구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한문 교육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에 더하여 다른 교과목의 교과서에 구현된 한자 교육 및 한자어 교육 내용은 해당 교과목에서 근본적으로 그를 위한 시간을 편제받은 바 없으므로 다른 교육 내용들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교과목 내용의 충실한 구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교과별 학습내용을 핵심원리 중심으로 엄선하여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분절적 단편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학습량 과다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는 2015 교육과정에서,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은 교육 내용을, 그것도 단편지식 중심으로 흘러갈 소지가 상당히 높은 교육 내용을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에 구현하려는 이유를, ‘행복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의 방향을 해칠 위태로운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교과서 편집 체제로 구현된 한자 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또한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교과서 편집 체제로 삽입된 한자 교육은 각 교과목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과서에 비슷한 형태로 적용될 것이기에, 결국 모든 교과목의 편집 체제에 있어 비효율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각 교과목은 교육 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서 편집 체제를 활용하고자 할 것인데, 교과목별 특성이 무시된 채 위로부터 하달된 특정 체제가 과연 얼

마나 효과적으로 교과서에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옆단이나 하단과 같은 교과서 편집 체제를 바탕으로 한자 표기는 그 체제가 교육적으로 효과를 장담할 수 있을 경우에도, 그리고 효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에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어느 쪽도 긍정적 결과를 확보할 수 없다면,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해서는 안 되기에, 한자 병기는 그 논리적 근거를 잃고 만다.

2.3. 실증적, 과학적 연구 과정에 근거한 연구 결과

한자 병기에 대한 논의가 종종 입장의 차이에 따른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마는 이유는, 많은 논저들이 실제 학교 현장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박 영목 외(1990, 1991)과 노 명완 외(2003)의 경우 실증적이며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그를 통해 밝혀진 결과, 한자 혼용 혹은 병기의 교육적 의미가 미미하다 할 수 있는데, 한자 병기의 논의의 장에서 이 연구 결과들은 종종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박 영목 외(1990:80)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자 교육을 받아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에 초등학생에게 이 연구 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가 한자 병기가 아니라 한자 혼용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한자 혼용 표기가 문자의 지각 속도, 독서 속도, 어휘의 의미 파악, 독해 및 내용 요약 등에 도움이 된다는 한자 혼용 측의 주장과 한자 혼용 표기가 독서의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되며 문자의 지각 속도, 독서 속도에 있어 한글 전용 표기가 유리하며 어휘의 의미 파악이나 독해 및 내용 요약 등에 있어 한글 전용 표기가 한자 혼용 표기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는 한글 전용 측의 주장이 상당히 이분법적이며, 다른 한 쪽의 주장이 전적으로 잘못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 없음을 밝혀낸 바 있다. 후속 연구인 박 영목 외(1991:3, 144)에서는 초등학교 3, 5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국어 읽기 시간 중에 한자 혼용의 읽기 교과서를 사용하고 읽기 교과서에 나온 한자를 이용하여 어휘를 지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한자 지식의 신장 측면을 제외하고는 한자 교육 집단이 비한자 교육집단에 비해 어휘력, 내용 이해력, 문장 쓰기 능력, 텍스트 쓰기 능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3학년의 경우, 한자 교육 집단이 어휘력에 있어 제2회 사후 검사에서 큰 향상을 보인 것으로 보아 한자 교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자를 이용하는 어휘 지도가 통상적인 방법의 어휘 지도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리란 추측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박 영목 외(199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쪽의

주장이 무조건 그르다고 말할 수 없으니 ‘한자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박 영목 외(1990, 1991)를 간단히 종합해 보면, 현재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어휘력 신장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국어 교과에서 한자 교육을 바탕으로 한 어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언어 사용 기능 능력 - 읽고 쓰는 능력의 신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 명완 외(2003)의 연구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 ‘2003년도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과제 답신 보고’로 이루어진 노 명완 외(2003:96, 150, 174)에서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수준(단어, 문장, 문단, 조어력) 및 조어력에서 텍스트의 표기 방식(한글 전용 표기와 한글·한자 병용 표기) 및 한자 지식(한자 집단 vs. 한글 집단)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바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 ‘한자 지식의 여부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텍스트 읽기 시간, 단어와 문장의 재인 및 의미 재인, 더 나아가 단락 수준에서의 읽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읽기 시간 검사(단어, 문장, 단락), 재인 및 의미 재인 검사(단어, 문장, 단락) 그리고 이해 검사(단락)에서 독자들은 한글 전용 표기보다는 한글·한자 혼용 표기에서 의미 있게 높은 수행’을 보였는데,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 대상 중 한자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한글 집단’⁶⁾이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실시한다면, 사교육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⁷⁾ 학생들은 한자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위 연구에서는 한글 전용 집단에서 ‘의미 있게 높은 수행’을 보인 이유에 대해 ‘한글·한자 병용 표기 자극을 처리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이는 자극에 대한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차후의 수행을 촉진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자 병기 자체가 유의미했다기보다는 한글과 함께 병기된 한자 -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능한 무의미한 문자였겠지만 그 한자 자극을 처리하느라 읽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그것이 결국 재인 및 이해에 있어 높은 수행 결과를 낳았다는 말이다. 결국 이는 한자 병기의 무의미성을 바로 증명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자를 병기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무의미했던 한자처럼, 무의미한 다른 표식을 활용하였어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을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6) ‘한글 집단’은 체계적인 한자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사전 검사 결과, ‘한자 집단’이 실험에 사용된 한자의 85% 정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한글 집단’은 10%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노 명완 외 2003:108-112)

7) 2015 교육과정에서 한자 병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교육의 활성화가 아니라면, 학생들이 한자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2.4. 어휘력 신장과 한자 병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어문 정책과 교과서 체제만 살펴봐도 한자 병기는 그 논리적 근거를 상실한다. 또한 이미 그 결론을 명백하게 내린 바 있는 실증적이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한자 병기의 교육적 효과가 미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자 병기를 실시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어휘력 신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한자 병기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자를 통한 한자어 교육은 그 교육적 의미를 확신하기 어렵다. 사실 한자가 한자어 어휘 자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동음이의어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한자어를 통해 그 의미를 분간할 수 있는 동음이의어는 무수히 많을 것이나 그 중 국어 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 한다. 국어 교과에서 사용하는 ‘전기(소설)’라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이 담긴 기록을 뜻하는 경우가 첫 번째,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용궁에 가 보는 것과 같은 기괴하고 신기한 내용의 소설을 뜻하는 경우가 두 번째이다.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전기(傳記) 혹은 전기(傳奇)라고 명시한다면 그 의미가 단번에 드러나며 그 어떤 사람도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깊이 있게 한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주장이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선 낱낱의 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라야 해당 어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므로 사실 천차만별의 학습 수준을 보이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교육적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혹여 해당 한자 교육이 이상적으로 완벽히 이루어진 이후일 것이라 가정한다 하여도 문제는 존재한다. 한자 자의가 가진 몇 가지 문제들 때문이다. 우선 한자 자의가 해당 어휘 자체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예로 든 전(傳)이 ‘전할 전’임을, ‘기(記)’가 ‘기록할 기’임을 알고 있다면 전기(傳記)의 의미를 바로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전할 전’과 ‘기록할 기’로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전기(傳奇)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이함’의 의미가 다차원의 세계를 가정한, 현대의 ‘판타지’와 일맥상통한다는 추측을 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이미 김 왕규(2004), 조 영호(2012), 이 동재(2012)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자 자의가 한자어 어휘의 이해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경우는 한정적이기에 선별적 한자 병기 혹은 한자 표기를 구현한다 하더라도 그 교육적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한자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기이할 기’의 경우 ‘기이함’의 의미 역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이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다시 한 번 찾아봐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만다.⁸⁾ 한자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국어사전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한 후에야 해당 한자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과연 한자 병기는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자어는 국어 어휘의 일부이기에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 어휘 교육을 위해 한자 자체를 교육하는 수고로움과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수고로움 중 어느 것이 더 비효율적인지 고민해 본다면 그 답은 분명하다. 교육은 마치 언제나 모든 경제성의 측면에서 예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이 시점에, 한자 자체에 대한 교육을 굳이 교과서에 구현하고자 이유를 수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국어사전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한 한자어 교육, 한자사전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한 한자 교육이 몇 배는 더 가치 있을 것이며, 효율적일 것이라 본다.

3. 교과별 교육 용어와 한자 병기의 관계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한자 병기의 무의미성이 밝혀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병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한자 병기가 결국 각 교과들의 핵심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자 병기 측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한자 병기를 바라보기로 했다. 한자 병기를 교과서에 적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 자체를 검증해보기로 한 것이다. 한자 병기가 한자어의 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것, 그는 결국 각 교과들의 핵심 개념에도 한자 병기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이다.⁹⁾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연구를 실시

8) 만약 ‘기이하다’를 이해하기 위해 국어사전 대신 한자 사전을 활용한다고 가정하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奇)의 훈에 해당하는 ‘기이하다’는 그 의미의 일부가 여전히 ‘기(奇)’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자 자의는 그 의미가 순환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이 또한 한자 자의를 활용한 한자어 어휘 교육이 가진 맹점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9) 한자어가 각 교과들의 핵심 개념에만 사용되지 않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교과들의 핵심 교육 내용과 연관이 없는 한자어까지 한자 병기를 시도하고 그에 대한 어휘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진정으로 국어과, 한자과, 그리고 여러 다른 교과 자체의 특성과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각 교과들의 핵심 개념 풀이에 한자 병기를 사용하려는 것이 2015 교육과정의 의도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

하였다.

가정1. 병기된 한자는 한자어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가정2. 병기된 한자를 활용한 교과별 교육 용어의 개념에 대한 교육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자 병기가 각 교과에 핵심적인 개념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보았으며, 최근 고시된 2015 중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5 중학교 교육과정 중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교과에서 핵심을 이루는 교육 용어¹⁰⁾를 정리하고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교육 용어는 국어 59개, 사회 80개, 역사 98개, 수학 46개, 과학 88개로 총 371개였으며, 각 교과에 교육 용어의 이해에 한자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해당 용어에 대한 개별 한자의 자의를 조사하고, 그 자의가 해당 교육 용어의 이해에 얼마나 교육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한자의 자의가 해당 개념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는 ‘이해 가능’, ‘이해 불가’, ‘일부 이해 가능’의 3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 용어 추출, 개별 한자어의 자의 및 한자어의 의미 정리, 자의가 개념 이해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과정을 본 연구자가 1차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 교사 검토를 실시하였다. 최소 10년 이상, 많게는 2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고 있는 교사를 과목별로 3명 선정한 후 한자 병기와 한자 교육에 대한 사전 설문, 그리고 해당 자료의 검토, 검토 이후 한자 병기 및 한자 교육에 대한 사후 설문으로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첫째로 현재 한자 병기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중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본 이유는, 한자 교육이 일부 창체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 하

행하고자 한다.

10) 2015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로 제시된 것을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문법적 단위가 일정하지 않아 적절한 명칭을 찾을 수 없었기에, 그 용어의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용어’라 칭하였다. 2015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기에 교과서에 실제 노출될 용어이며, 동시에 각 교과별 전문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 구 등을 본고에서는 ‘교육 용어’라고 하였다.

다만,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 용어로 그 대상을 한정하다보니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품사’는 명시하고 있으나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용어는 노출하지 않고 있기에 결국 세부 품사 명칭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는 다른 모든 교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기에 교과별 형평성에 문제는 없을 것이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에서 한자 병기를 논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¹⁾ 반면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선택 교과로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많은 학교에서 ‘한문’ 선택하여 한문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¹²⁾을 감안한 것이다. 학교 교육을 통한 한자 교육을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할 수 있다면 한자 병기의 효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겠다 본 것이다.

둘째, 중학교 교육과정 내 다양한 과목 중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의 총 5개만을 그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한문, 환경, 8개의 생활 외국어 과목, 보건, 진로와 직업 등 15개가 넘는 과목의 수업 시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시수의 교육이 위 다섯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 시수가 결코 적다할 수 없는 도덕 과목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핵심 교육 용어들이 ‘삶, 이웃’과 같은 고유어이거나 ‘도덕, 평화, 윤리, 폭력’처럼 한자 병기의 영향이 미치기 어려운, 학생들이 이미 그 어휘의 중심적 의미는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¹³⁾ 비슷한 측면에서 보자면, 국어과의 경우에도 일상 어휘들이 그대로 교육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도덕과와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었으나, 교육과정 전체 편제 속에서 국어과가 차지하고 있는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국어과의 교육 용어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한자의 자의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실용 옥편 및 인터넷 한자

11) 물론 노 명완 외(2003:173)에서 이미 한자 지식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텍스트 읽기 시간, 단어와 문장의 재인 및 의미 재인, 더 나아가 단락 수준에서의 읽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함’이 밝혀지긴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한자 지식을 어휘 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므로 한자 지식이 어휘 교육에 유의미하다고 전제한 것이다.

12) 학교알리미 누리집(<http://www.schoolinfo.go.kr>)의 ‘정부 3.0 공개 데이터’ 중 ‘2016년도 표시과목별 교원현황’ 중 중학교 통계를 보면, 선택 교과 교원 중 ‘일본어’ 464명, ‘중국어’ 767명, ‘진로와 직업’ 132명, ‘환경’ 11명임에 비해, ‘한문’은 2082명이었다. 이는 곧 ‘한문’ 과목의 선택 비율이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13) 2015 중학교 교육과정 중 도덕과의 핵심 교육 용어로 추출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한자 병기가 교육적으로 유효할 것이라 예측되는 단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찾는다 하여도 ‘자아’, ‘친화’ 정도가 전부일 것이라고 보았다.

[도덕적 삶, 도덕적 행동, 모델링, 회복탄력성, 자아정체성, 비판적 사고하기, 창의적 사고하기, 배려적 사고하기, 가정윤리, 우정, 성윤리, 이웃생활, 정보통신윤리, 평화적 갈등 해결, 폭력의 문제, 인간존중, 문화다양성, 세계 시민 윤리, 도덕적 시민, 사회 정의, 북한 이해, 통일윤리의식, 자연관, 과학과 윤리, 삶의 소중함, 마음의 평화, 인간의 도덕성, 규범과 도덕, 도덕적 자아, 도덕적 삶의 이유, 갈등의 발생 원인, 갈등 상황의 다양한 해결 방법, 평화적 갈등 해결의 중요성, 평화적 갈등 해결의 구체적 방법 익히기, 사회 정의의 의미, 공정한 경쟁의 조건, 정의 실현을 위한 참여 방법,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환경친화적 삶, 환경친화적 소비 생활]

사전을 활용하여 선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각 한자의 대표 자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학교 한문 교과 시간에 학생들이 접하는 한자의 자의가 대표 자의이며, 모든 학생들이 각 한자의 중심적 의미부터 주변적 의미까지 모두 알고 있기는 불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외우고 있는’ 한자의 자의가 대표 자의라면 그것을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표 자의만으로 한자어의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자의까지 최대한 수용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넷째, 최소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지닌 교사로 한정하는 이유는,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7차 교육과정 이후 여러 차례 수시 개정되어 온 교육과정을 모두 접했을 것이며, 변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을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과의 핵심 교육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온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기에, 이들 교사들의 검토가 해당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자 자의를 바탕으로 한 해당 교육 용어의 이해는 사실 극단적으로 보면, ‘이해 가능’하거나 ‘이해 불가능’하거나 한 경우만 존재할 것임에도 ‘일부 이해 가능’ 수준을 설정하였다. 부분적으로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말은, 해당 교육 용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곧 이해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 가능’의 수준을 설정한 이유는, 해당 교육 용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경우를 별도로 표기하고자 했을 경우, 혹은 교사들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를 ‘일부 이해 가능’으로 간주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한자 병기가 2015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교과의 중학교 교육과정 핵심 교육 용어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개) 교과	연구 대상 전체 교육 용어	이해 가능 교육 용어	이해 불가 교육 용어	일부 가능 교육 용어
국어	59	25	30	4
사회	80	20	31	29
역사	98	41	35	22
수학	46	16	26	4
과학	88	40	39	9
합계	371	142	161	68
비율(%)	100	38.3	43.4	18.3

[표 1] 한자 자의를 통한 교과별 교육 용어 이해 정도 평가

[표 1]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한자 자의를 활용한 각 교과 교육이 상당히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자 자의가 해당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최소 절반은 차지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분석 결과가 바로 한자 병기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한자 자의가 해당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본 경우일지라도, 그 한자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이 그 한자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 한자 병기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5개의 과목보다 한문 과목의 수업이 선행될 것이며, 수업 시간에 다른 한자를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 자체의 전제도 사실 지나치게 한자 병기 측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지만, 그에 더하여 중학교용 기초 한자는 모든 학생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까지 더한 후 교육 용어들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¹⁴⁾의 ‘중학교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검토 결과, 교육용 한자 목록 자체에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제시되어 있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기에 중학생 입장에서는 알 수 없을 한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대상(개) 교과	이해 가능 교육 용어 수 ¹⁵⁾	중학교용 기초 한자 해당 여부	
		○	×
국어	25	14	11
사회	20	9	11
역사	41	18	23
수학	16	12	4
과학	40	13	27
합계	142	66	76
비율(%)	100	46.5	53.5

[표 2] 중학교용 기초 한자 해당 여부

*** 자의로 의미 이해 가능하며, 중학교용 기초 한자만 사용된 교육 용어 목록**

국어 : 면담(面談), 청중(聽衆), 공정성(公正性), 욕망(欲望, 慾望), 요약(要約)하기, 인과(因果), 보고서(報告書), 통일성(統一性), 어종(語種), 고유어(固有語), 한자어(漢字)

14) 교육용 대상 한자에서 제외된 44자와 추가된 44자가 반영되어 있으며, 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 2014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목록을 활용하였다.

15) ‘이해 불가’ 및 ‘일부 이해 가능’ 수준의 한자는 중학교용 기초 한자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중학교 수준에서 알고 있는 한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한자 자의로 해당 교육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며, 이는 곧 다른 조건의 달성 여부와 관계 없이 한자 병기의 무의미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語), 외래어(外來語), 동질성(同質性), 이질성(異質性)

사회 : 선거(選舉), 외교(外交), 시장(市場), 물가(物價), 교역(交易), 지도(地圖), 산지 지형(山地 地形), 국토애(國土愛), 지가(地價)

역사 : 사료(史料), 선사(先史), 유물(遺物), 제천 행사(祭天 行事), 관등제(官等制), 무신 정변(武臣 政變), 반원자주화(反元自主化), 권문세족(權門勢族), 향약(鄉約), 사림(士林), 회군(回軍), 제정(帝政), 변법자강(變法自疆), 개화론(開化論), 치외법권(治外法權), 의병(義兵), 군사정변(軍事政變), 민주화(民主化)

수학 : 양수(陽數), 음수(陰數), 작도(作圖), 내각(內角), 외각(外角), 합동(合同), 외접원(外接圓), 내접원(內接圓), (피타고라스의) 정리(定理), 산포도(散布度), 변량(變量), 도수분포표(度數分布表)

과학 : 변성암(變成巖), 부력(浮力), 변이(變異), 기체(氣體), 기화(氣化), 삼원색(三原色), 파형(波形), 전류(電流), 해수(海水), 빙하(氷河), 질량보존법칙(質量保存法則), 유전자(遺傳子), 수정란(受精卵)

이상의 66개 교육 용어들이 한자의 자의만으로 해당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한자가 중학교용 기초 한자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그래도 전체의 17.8%에 해당하니 이것만이라도 한자 병기를 해 교육적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의 교육 용어 중 밑줄 친 총 21개(5.7%)는 한자의 의미가 다시 해당 단어를 지칭하는 순환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學校)’라고 하는 의미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한자어를 활용한다고 할 때, ‘학(學)’의 자의는 ‘배우다’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교(校)’의 자의는 ‘학교’이므로, ‘학교’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한자어가 다시 해당 개념을 가리키는 순환의 상황에 빠지고 만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자의, 즉 훈만으로는 그 한자가 사용된 한자어의 의미를 설명을 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본다.

또 다른 문제는 ‘시(市)’와 같은 한자어에 해당하는 일부의 경우이다. ‘시(市)’의 의미는 ‘저자’이다. 그런데 ‘저자’가 무엇인지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 결국 ‘저자’의 의미를 다시 국어사전에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저자’는 ‘시장’을 의미하는 고유어로 현대 국어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시(市)’는 고유어의 의미와 한자의 의미가 1:1로 잘 대응되어 있으며, 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저자’ 자체가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에 한자어의 활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저자’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시장04(市場)’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라 하여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고 마는, 순환 오류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하여 다음의 [표 3]은 위에서 정리한 목록 중 밑줄 친 교육 용어, 즉 그 의미에 순환 오류가 발생하여 의미 풀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교과	교육 용어	의미 순환 과정 ¹⁶⁾
국어	요약하기	요약→요약하다⇨요약하다→요약하다⇨...
	통일성	통일성→성질⇨성질→성질⇨...
	동질성	동질성→성질⇨성질→성질⇨...
	이질성	이질성→성질⇨성질→성질⇨...
사회	선거	선거→가리다, 선거→선거하다⇨선거하다→선거하다⇨... 선거→들다, 선거→선거하다⇨선거하다→선거하다⇨...
	시장	시장→저자⇨저자→시장⇨...
역사	사료	사료→역사⇨역사→역사⇨... 사료→사기⇨사기→사기⇨...
	선사	선사→역사⇨역사→역사⇨... 선사→사기⇨사기→사기⇨....
	무신 정변	정변→정사⇨정사→정사⇨....
	권문세족	권문세족→겨레⇨(같은 핏줄을 이어받은)민족⇨민족→겨레⇨....
	제정	제정→정사⇨정사→정사⇨....
	변법자강	변법자강→법⇨법→법⇨...
	치외법권	치외법권→법⇨법→법⇨...
	군사정변	군사정변→정사⇨정사→정사⇨....
수학	정리	정리→이치⇨이치→이치⇨....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도수⇨도수→도수⇨... 도수분포표→표⇨표→표⇨...
과학	기체	기체→공기⇨공기→공기⇨...
	기화	기화→공기⇨공기→공기⇨...
	전류	전류→전기⇨전기→전기⇨...
	질량보존법칙	질량보존법칙→법⇨법→법⇨... 질량보존법칙→법칙⇨법칙→법칙⇨...
	수정란	수정란→정액⇨정액→정액⇨...

[표 3] 의미 순환 오류를 보이는 한자 자의

16) [표 3]에서 ‘→’는 밑줄 친 한자에 대한 자의를 표현하며, ‘⇨’는 그 자의에서 사용하고 있

[표 3]에서와 같이 순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전히 한자의 자의만으로 해당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서 교육적 의미를 갖는 교육 용어만을 정리하면 45개가 남는다. 과연, 각 교과별 교육 내용의 위계나 중요도, 혹은 다른 교육 내용과의 연계 정도를 무시한 채, 교육적으로 유효한 몇 개의 용어에 한해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닐지 의심스럽다.

사실 이러한 결론은 이미 예측된 것이었다. 개별 한자의 중심적 의미가, 그 어휘가 사용된 모든 어휘의 의미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각 어휘의 중심적 의미가 곧 교과에서 사용하는 교육적 개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어휘 교육이 곧 교과별 개념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결국 한자 병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미미할 것임은 굳이 실제 교과별 개념어들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유추 가능한 결론이었다.

또한, 한자의 자의에 대한 문제 역시 이전 논의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 조영호(2012)에서는 한자의 자의와 한자어의 어의가 불일치하는 문제, 어의의 현대적 의미와 고전적 의미가 비통합적으로 기술된 문제 등으로 인해 한자어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 자의의 파생경로와 가차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 동재(2012)에서도 중학교용 기초 한자를 대상으로 동음동의(同音同意)의 한자, 동음동의에 ‘-하다’를 붙여 뜻풀이 한 한자, 난해한 의미의 한자 등을 분석하고 중학교용 한자의 의미 통일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논한 바 있다.

이처럼 교육용 기초 한자가 갖고 있는 그 자체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자를 바탕으로 한 한자어 교육에 한계가 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개의 과목에서 교육 용어를 추출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본 이유는, 2015 교육과정에 실제 명기된 어휘들을 통해 그 교육적 의미를 직접 검토해 보는 과정 자체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전체 371개의 교육 용어 중 45개(12.1%)만이 한자 병기를 통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결과는, 한자 병기의 실질적 교육 효과가 미미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4. 한자 병기 논란 후 남은 과제

2015 교육과정에서 어휘력 신장을 목표로 한자 교육 활성화를 의도하고 있다면, 그를 위한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한자 병기와 같은 방법

는 단어의 자의를 다시 찾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선’의 자의가 ‘선거하다’이므로 ‘선거→선거하다’라고 표현한 것이며, 그 자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선거하다’의 ‘선’의 자의를 다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선거하다→선거하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으로는 의도한 바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 시 단순한 한자 교육 활성화가 아니라 한문 교육 활성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한문 교육과정 자체가 한자 교육으로부터 한문 교육까지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한자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문교육 연구자들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되며, 한문교육계의 꾸준한 연구가 결국 한자 교육 활성화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한문 교육에서도, 국어 교육에서도 적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한자어 교육의 바람직한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자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의 저변에는, 학생들의 어휘력 저하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한자 교육에 대한 요구¹⁷⁾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학생들의 어휘력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한자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는 국어교육계와 한문교육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어교육 측에서는 한자어가 국어 어휘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자가 국어 어휘의 조어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어휘에 대한 이해가 곧 국어 어휘의 이해로 이어지고, 이는 원활한 국어생활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문교육 측에서도 한자의 자의를 통해 한자어의 의미를 교육하고, 자의를 기반에 둔 한자어 교육이 다른 어휘의 이해에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재편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2015 교육과정에서 당장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시간을 들인 연구에 기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둔 교육 연구 결과물들은,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벌이지 않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 창석(2005). 한자어의 한글 표기에 대하여. 국어학 45집.

17) 한자 교육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자료 중 하나인, 국립국어원이 5년마다 수행하고 있는 ‘국민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국민의 65.1%가 초등학교 때 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가장 최근 실시된 2015년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 세부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8.6%,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6.5%, 그리고 중학교부터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1.7%였다. 또한 2005년, 2010년, 2015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급속도로 줄고 있으며, 중학교부터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진정한 조사 결과라 여겨지지만, 한자 교육에 대해 긍정적 입장인 비율이 높다는 점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구 본관(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제40집.
-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201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공청회 자료집.
- 국립국어원(2015).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김 명희(2015). 한국의 공공언어정책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 김 왕규(2004). 한자 자훈 이해와 한자어 의미 이해의 상관도. 청람어문교육 30집.
- 김 정남(2009). 한자어의 한글 표기에 나타나는 두음법칙과 그 예외 조항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제144호.
- 김 진숙 외(2009).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 김 창진(2009). 한글전용 체제에서 한자어 표기의 문제. 한자한문교육 제23집.
- 김 창호(2011). 한자어 교육의 현황과 언어교육 지평의 확장 모색. 한자한문교육 제26집.
- 노 명완 외(2003).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가 독서 과정에 미치는 효과 비교 연구. 2003년도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과제 답신 보고.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위탁연구과제.
- 민 현식 외(2004ㄱ).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과제.
- 민 현식 외(2004ㄴ). 중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과제.
- 박 동근(2006).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겨레어문학 37집.
- 박 영록(2011). 중국 한자어 원지음 표기의 문제점. 대동문화연구 제76집.
- 박 영목 외(1990). 한글 전용 표기와 한자 혼용 표기가 독서 과정에 미치는 효과 실험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 박 영목 외(1991). 국민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이 국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실험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 변 경애(2002). 현장 교육에서의 한자 병기 학습 적용 방안. 한문교육연구 제19호.
- 송 병렬(2006). 새로운 한문교육의 지평. 문자향.
- 신 기상(2005). 한자어의 국어화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제125권.
- 이 동재(2012).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의미' 통일화 방안. 한자어휘교육론. 보고서.
- 이 관규(2011).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 국어교육연구 제28집.
- 이 관규(2011).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문법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권.
- 이 명학(2012).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 한자한문교육 제24집.
- 전 광진(2015). 한자 병기에 관한 3종 이론 기초. 이문과학 제59집.
- 조 영호(2012). 한자어의 의미 분석을 통한 어휘 지도 방안. 한자어휘교육론. 보고서.
-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2016). 2015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투쟁백서.
- 허 강 외(2005).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
- Gavin Ambrose & Paul Harri. 김은희 역(2008). The Layout Book. (주)안그라픽스.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2016년 10월 7일 (금) 10:00 ~ 16:20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 제2부: 연구 발표

범언어적으로 본 언어와 문자 표기 방식

이 성하

한국외대 영어학과 교수
srhee@hufs.ac.kr

1.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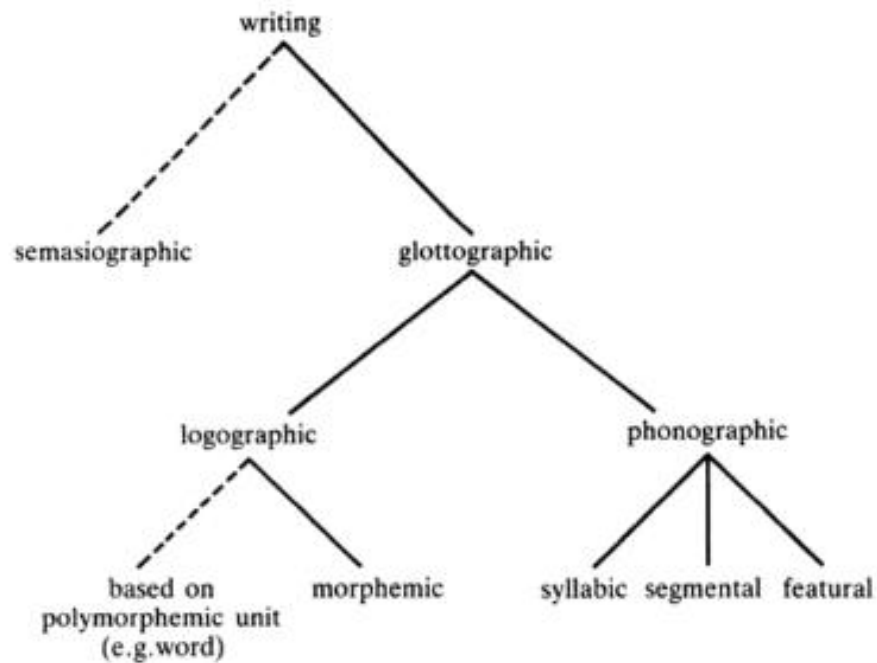
- 문자학 ('grammatology' Gelb 1952)
- “인간됨은 언어로 규정되지만 문명은 문자로 규정된다.” (“Humankind is defined by language; but civilization is defined by writing.”) (Daniels & Bright 1996)

2. 언어와 문자

[문자체계의 유형]

- 학자마다 문자체계 분류법이 다름. (Gelb 1963, DeFrancis 1989, Sampson 1985, Hill 1967 등)

(1) Sampson의 문자체계의 분류 (Sampson 1985: 32)



[문자의 언어학적 영향]

- 고대에는 문자를 단어 경계 없이 들리는 대로 쓰기 (“scriptura continua” Saenger 1991; Coulmas 2003: 212)
- 말하기에 영향 (Vygotsky 1930)
- 담화계획에 영향 (Chafe 1987)
- 문장구조의 복잡성에 영향 (Givón 1979) (Kalmár 1985의 이눅티툰어 사례)
- 차용된 문자에 의한 언어 변화

3. 문자의 생성과 소멸

3.1. 문자의 기원

- 수메르 설형문자 (BC 3,500 경)
- 상나라 갑골문자 (BC 1200~1050)
- 원시문자 (“proto-writing”)

(2) 원시문자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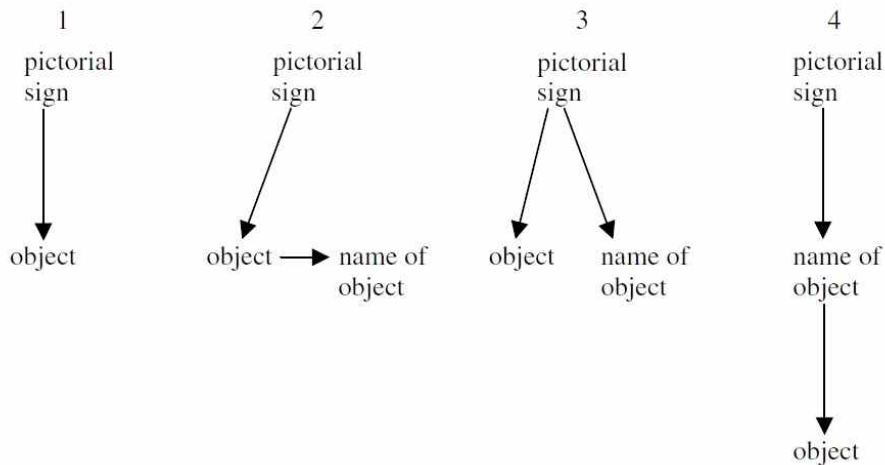
그릇 문양, 메시지 막대, 매듭끈, 인장, 썸 막대, 진흙 인장, 채색된 조개껍질, 그림표지, 키푸 등. (cf. Hill 1967, Amerindian pictograms: “discourse writing”)

- 단일기원설 오류 (Coulmas 2003: 192)
 - 독립적 발달: 메소포타미아, 중국, 메조아메리카 등.
 - 타 문자와 관련 파악 어려운 기타 문자: Proto-Elamite (이란 수사지역, Damerow & Englund 1989), Linear A (미노아 크레테인, Godart & Olivier 1976), 인더스 문자 (인더스 계곡, Parpola 1994)

3.2. 문자의 발달

- 그림과 관계: 고대 이집트어, 한자, 그리스어 ‘쓰다’ ‘그리다’ 동일 동사만 있었음.

(3) 그림에서 문자로 (Coulmas 2003: 197)



- Gelb(1963)의 단일방향성 가설: 표의문자(logography) > 음절문자(syllabography) > 알파벳(alphabotography) (알파벳 중심주의)
- 최근 연구는 알파벳 중심주의의 단일방향성 가설을 부정.
- 경제성 원리는 원리 중 하나. 문화적 관성과, 보수주의, 규범주의 등 단순효율 보다는 문화적 산물로 보아야 함. (Coulmas 2003: 201)

3.3. 문자체계의 변화

[사례]

- 베트남어: 한자에서 로마자로. (한자에서 로마자로)
- 몰도바. 소련 붕괴 후 키릴에서 로마자로.
- 북한: 한자 폐지, 한글전용 운동
- 인도네시아 (말레이어): 나가리문자 > 아랍문자 > 로마자
- 터키어, 소말리어, 키스와힐리어, 하우사어: 아랍문자 > 로마자
- 구소련 내 다수 언어: (1920-1930년대) 아랍문자 > 로마자 > 키릴문자 (소련 붕괴후 몇 언어는 회귀; 타지크스탄 1992: 키릴문자 > 아랍문자; 아제르바이잔: 키릴문자 > 로마자)
- 고대 콥트인: 이집트문자 > 그리스 문자
- 원나라: 한자 > 위그르 파스파 문자로 개혁 시도. (쿠빌라이 칸)

[종교의 역할]

- 로마자, 키릴문자, 아랍문자, 한자 등 문자와 종교의 밀접한 관계 (경전어로서 개종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문자체계는 모두 지역 문자로만 잔존함).

- (4) a. 로마자 - 로만 가톨릭
- b. 키릴문자 - 동방정교
- c. 아랍문자 - 이슬람
- d. 한자 - 유교
- e. 페르시아문자 (팔라비) - 조로아스터교
- f. 티벳문자 - 라마교
- g. 팔리문자 - 불교
- h. 구르무키문자 - 시크교
- i. 히브리문자 - 유대교 (이디시, 라디노, 유대-아랍어)

- 종교에 의한 문자체계 분리

- (5) a. 이집트 기독교인들 콥트문자 개발.
- b. 시리아 기독교인들 세르토문자.

- c. 이란 기독교인들 네스토리안문자.
- d. 가톨릭 크로티아인 라틴문자, 정교회 세르비아인 키릴문자.

- 성직자가 기록자, 회계사. (영) *clerk, cleric...* 성직자가 성전에서 상행위를 통제하고 기록함.
- 글자/경전내용을 신성시하고 다른 문자를 종교적으로 배격하여 멸절시킨 예들 다수. (예: 신의 이름을 빙자한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한 마야와 중남미 문화 말살) (Coulmas 1999: 436)

[무역/정치의 역할]

- 설형문자 (아시리아/바빌로니아 > 인접 제국국가)
- 아람문자 (> 제국어로)
- 키릴문자 (러시아 > 구소련 제국가)
- 한국어, 몽골어, 페르시아어, 루마니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등 문자 체계 변화. (정치적 이유)

[문자체계의 혼용]

- 혼합한 예:
 - (6) a. 이중문자, 이중언어로 표기된 히타이트 수필루리우마 1세 (1380-1346 BCE)의 인장. (정치-사회적 이유)
 - b. 키릴문자와 몽골문자의 두 가지 철자법으로 나란히 표기한 몽골어 사전. (역사적 이유)
 - c. 표의문자, 표음문자, 지정문자 체계가 혼재된 이집트문자.
 - d. 표의문자, 음절문자, 지정문자 체계가 혼재된 아카드문자.
 - e. 디모틱문자와 그리스문자가 혼합된 파피루스 문서 예 (Stadler 2008: 160, Baines et al. 2008) 외국어/외래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위해 가필.
 - f. 표의체계와 음절체계가 혼합된 한국의 고대문자.
 - g. 한자, 한글이 혼합된 ‘국한문혼용’. (식민정책 영향)
 - h. 간지, 히라가나, 가다가나, (+로마자)가 혼합된 일본문자.

- 일본문자: 재해석, 발음차용, 문자응용, 중화주의에 의한 반복 차용. 읽는 방법이 다양하고 문맥에 의존적임.

(7) a. 明 (중: min ‘bright’)

한자식 발음: myo (6세기 영향), mei (8세기 영향), min (14세기 향주 영향).

일본식 발음: a, aka 등.

b. 日: ‘sun, day, Japan...’

한자식 발음: nichu, jitu

일본식 발음: 12개 reading

c. 昼飯 ‘lunch’

한자식 발음: chuhan

일본식 발음: hiromeshi

d. furigana를 사용

やまみち
山路を登りながら、こう考えた。

YAMAMICHI

YAMAJI -o NOBORinagara, kou KANGAeta

Climbing the mountain path I thought this.

- 영어: 어원을 살린 표기

(8) a. *dette* > *debt* (L. *debitum*), *samon* > *salmon* (L. *salmonem*)

b. *honour*, *hour* (F. *honneur*, *heure*) (그러나 일관성 부족 *ability* (F. *habilité*))

c. ‘th’의 어원 오류: *author* (L. *auctor*)

(9) 이중 문자체계의 기타 예

로마자 루마니아 vs. 키릴문자 몰다비아

로마자 핀란드 vs. 키릴문자 Karelian

그리스문자 알바니아 vs. 로마자 알바니아

자바문자 자바 vs. 로마자 자바

아랍문자 스와힐리 vs. 로마자 스와힐리

몽골문자 몽골 vs. 키릴문자 몽골

[문자 정책]

- Fishman (1988: 280): 개혁은 기존 식자층을 따돌리는 효과가 있다.
- 항상 편의성 따르는 것 아니다. (Coulmas 2003)
- 정책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된 개혁안도 실패한다. (단순성, 우아함, 언어적 적합성만의 등식이 성립 안 된다.) (한글의 예: 정착에 500년 걸림)

3.4. 문자의 차용

- 통상 커뮤니티는 다민족 다문화.
- 문자는 정치와 정체성, 문화적 이유 때문에 다른 문자로 변환: 터키어 (아랍 문자 > 라틴 문자). 구소련 지역 언어들. (키릴문자, 로마자, 기타 문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함. Baines 2008: 351)
- 터키: 국가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사회 개혁과 관련. (Baines 2008: 351-352)

3.5. 문자의 소멸

- 문자의 소멸과 밀접한 관계: 언어 소멸, 정치단위 소멸, 문화 소멸, 문명 소멸. (Baines 2008: 351)

[국가 소멸]

- 만주 문자: 1911년 청나라의 패망과 더불어 만주 문자를 가르치지 않게 됨. 원래 1599년 누르하치의 명령으로 몽골문자를 만주문자로 개발함. 250년 제국의 멸망으로 문자 소멸. (변경에 잔존)
- 수메르문자와 아카디아문자: 페르시아에 의한 정복으로 2500년이나 지속되었던 문자가 소멸, 바빌론의 폐허화. (Brown 2008: 80)

[학문체계 변화]

- 수메르문자: 설형문자로 기록되었던 천문학/점성술 지식이 알파벳 체계로 대량 번역됨으로써 학문체계가 변함. (Brown 2008: 94)

- 설형문자를 배우는 사람들이 감소함. (Houston et al. 2003: 456)

[정체성 소멸]

- 만주문자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만주족이 한족 문화에 동화된 것.
- 문자의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언어 사용자가 문자체계에 대해 가지는 정체성. (Baines 2008: 353)
- 이집트 디모틱문자의 소멸 원인: 사제들이 상형문자와 디모틱 문자를 이용해 매우 어려운 체계를 만듦으로써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 한 대중으로부터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문자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졌기 때문. 당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식자층의 실수. (Stadler 2008: 158-159, 174)

4. 문자의 기능

4.1. 문자와 개인

- 글자사용자인 엘리트들이 위신과 명망을 얻음. (Black 2008: 65)
- 혼합표기 경우 현학적 태도가 생겨남.
- 문자체계가 같을 때에는 글자체 (font)를 달리 해서 정체성을 주장하기도.
- 문자해득률 낮음 > 사회적 주변인, 가난함. (개인/국가) (Adiseshiah 1990)

4.2. 문자와 사회

- 문자는 도시생활과 밀접함. (Wheatley 1971: 401)
- 문자-언어-종교-문명의 동일시. (Houston et al. 2003: 450)
- 상징성: 사용기능보다 상징기능으로 잠시 더 존속한 경우. (Black 2008: 56; 엘람문자, 아케메니드문자, 고대페르시아문자, 아카디아문자 등)
- 과시 기능 (고대페르시아의 설형문자) (Black 2008: 63-64)
- Noah Webster in 1789 영국영어로부터의 독립 역설:

(10) 이제 우리는 독립국가가 되었으니 비록 영국이 우리의 조상이기는 하나 영국의 표준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 (“As an independent nation, our honor requires us to have a system of our own, in language as well as government. Great Britain, whose children we are, and whose language we speak, should no longer be *our* standard; for the taste of her writers is already corrupted, and her language on the decline.”) (Webster 1992: 34)

- 손 호민 (1997: 212ff): 언어(문자) 통일이 국가적 정체성과 한반도 통일에 열쇠.
- ‘제대로 된 언어는 자기 문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인들.)
- 문자가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다. (힌디 vs. 우르두)
 힌디: 데바나가리문자, 다수의 일반인, 힌두.
 우르두: 페르시아계 아랍문자, 소수의 엘리트, 이슬람.
-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자들이 로마자로 변화하는 과정에 작용한 국가/지역 정체성. (Lomas 2008, Keller-Cohen 1994, Gaur 2000)
- 피지배자의 문자는 경멸받는 문자. (“a subordinate script is a despised script”) (Houston, Baines & Cooper 2003: 433-434, Lomas 2008: 128)
- 멕시코에 스페인 문자와 그림이 들어와 종교 등 특정 장르에서 그림문자의 사용이 금지되고, 법률, 행정 문서 등이 로마자로 쓰이게 되면서 그림문자의 기능이 위축되어 결국 특수 ‘위엄 있는 문자’로만 잔존. (Boone 2008: 278)

4.3. 한국적 맥락 속의 문자

[다양한 쟁점들]

- 한자를 써야 이해가 된다(?)
- 동북아시아 교류에 한자 사용이 도움이 된다(?)
- 한자 병기가 언어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된다(?)
- 전통문화 이해에 한자가 도움을 준다(?)

[한글의 평가]

- Coulmas (2003: 168): “한글의 많은 탁월성 중의 하나는 통일성과 체계적 순수성이다.”

“One of the many extraordinary features of Han’gŭl is its uniformity and systematic purity.”)

- Otto Neurath (Quine 1960): “우리는 마치 배를 도크에 들여와서 처음부터 새로 조립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넓은 바다 한 가운데서 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선원들과 같다.”
 (“We are like sailors who must rebuild their boat on the open sea without ever being able to take it apart in a dock and reassemble it from scratch.”)
- Coulmas (2003: 169): “한글은 바다로 진수시키기 전에 도크에서 세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배와 같은 아주 드문 예이다.”
- Vos (1964:31): “세계 최상의 알파벳” (“the world’s best alphabet”) (Sampson 1985에서 인용)
- Reischauer (1960: 435):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 (Sampson 1985에서 인용)
- Sampson (1985): 한글은 의심의 여지없이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업적의 하나로써 자리를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

[읽기와 문자]

- Coulmas (2003: 215): 문자 읽기의 다양한 전략: 보인 단어와 머릿속 템플릿의 짝짓기, 문맥에서 단어들을 예측하기, 음운적인 단어 재구를 위한 글자-음소 대응 짓기, 알고 있는 단어로부터 모르는 단어를 짐작하기, 형태소 확인하기... 등.
- 다양한 매체/도구에 따른 문자생활 환경의 변화.

[한자]

- 어표문자: 중국어
- 중국 한자의 간략체 1964년 2,238개 발표, 1977년 2차 발표. (대만은 불수용)
- Hannas (1999: 279): 한자는 속도와 용이성에 있어 로마자보다 불리.
- 무수히 많은 동음이의어를 문자로 해결 (11) 참조.
- 지식인들은 동음이의어의 중의성 해소를 위해 말하기 중 허공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도 함.

(11)

graph	gloss	Old Chinese pronunciation	Modern Chinese pronunciation
欺	cheat	*k ^h jəg	c ^h ī
期	period	*kjəg	
崎	mountainous	*g ^h ia	
溪	creek	*k ^h ieg	
七	seven	*ts ^h jět	
沏	to mash tea		
漆	varnish		
妻	wife	*ts ^h iər	
悽	grieved		
棲	roost	*siər	
戚	kinsman	*ts ^h iok	
研	grind/research	*Nian	jén
延	prolong	*djan	
蜒	slug		
檐	eaves	*djam	
炎	flame		
嚴	strict	*Njäm	
巖	cliff	*Nam	
言	speak	*Njän	
閻	name of the King of Hell	*djæm	
顏	face/colour	*Nan	
鹽	salt	*xljam	
沿	along	*dɕan	
焉	there	*ʔjan	

[일본어와 한자]

• 일본어 내 한자어 비율: 연예잡지 35%, 신문 50%, 과학저널 60% (Shibatani 1990)

• 다수의 동음이의어 (12) 참조.

(12)

	중국어 발음	의 미	일본어 발음
甘	kān	‘달콤한’	} <i>kan</i>
感	kǎn	‘감동된’	
刊	kān	‘인쇄하다’	
慣	kuàn	‘~에 익숙하다’	
覩	kuān	‘보다’	
勘	kàn	‘조사하다’	
緩	xuǎn	‘느린’	
管	kuǎn	‘관, 통’	
環	xuán	‘고리’	
飲	xuān	‘즐기다’	
卷	cyàn	‘책’	
韓	xán	‘한국의’	
漢	xàn	‘중국의’	
	등 등		

5. 끝맺는 말

- 문자의 힘: 언어는 끈이다. 문자는 쇠뿔줄이다. (예: 히브리어를 소생시킨 히브리문자. 엔테베 공항 인질구출작전)
- 지식인의 문자 태도가 중요하다.
- 문자에 대한 자긍심, 정체성이 중요하다.
- 언어정책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 Adiseshiah, M. S. 1990. Illiteracy and Poverty. Paris: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 Baines, John. 2008. Writing and its multiple disappearances. In: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 (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London: Equinox.
- Baines, John, John Bennet, & Stephen Houston (eds). 2008. *The Disappearance*

-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London: Equinox.
- Black, Jeremy. 2008. The obsolescence and demise of cuneiform writing in Elam. In: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 (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London: Equinox.
- Boone, Elizabeth Hill. 2008. The death of Mexican pictography. In: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 (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London: Equinox.
- Brown, David. 2008. Increasingly redundant: The growing obsolescence of the cuneiform script in Babylonia from 539 BC. In: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 (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London: Equinox.
- Chafe, Wallace. 1987. Properties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In: R. Horowitz and S. J. Samuels (eds.) *Comprehending Oral and Written Language*. New York: Academic Press.
- Coulmas, Florian. 2003[1999]. *Writing Systems: An introduction to their linguistic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merow, Peter & Robert Englund. 1989. *The Proto-Elamite Texts from Tepe Yahy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aniels, Peter & William Bright. (Eds.) 1996. *The World's Writing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Francis, John. 1989. Digraphia. *Word* 35.1: 59-66.
- Fishman, Joshua A. 1988. Ethnocultural issues in the creation, substitution, and revision of writing systems. In: B. A. Rafoth and D. L. Rubin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Written Communication*. Norwood, NJ: Ablex, 273-86.
- Gelb, I. J. 1963[1952]. *A History of Writing*.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Givón, Talmy.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Godart, Louis & Jean-Pierre Olivier. 1976. *Receuil des inscriptions en linéaire A*. 5 vols. Paris: Geuthner.
- Hannas, W. C. 1999. *Asia's Orthographic Dilemm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ill, Archibald A. 1967. The Typology of Writing Systems.' In: William M. Austin (ed.) *Papers in Linguistics in Honor of Leon Dostert*. The Hague: Mouton, 92-9.
- Houston, Stephen, John Baines, & Jerrold Cooper. 2003. Last writing: Script obsolescence in Egypt, Mesopotamia, and Mesoamerica. *Comparative*

-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5: 430-479.
- Kalmár, I. 1985. Are there really no primitive languages? In: D. R. Olson, N. Torrance and A. Hildyard (eds.), *Literacy, Language and Learning: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Reading and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8-66.
- Lomas, Kathryn. 2008. Script obsolescence in Ancient Italy: From Pre-Roman to Roman writing. In: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 (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London: Equinox.
- Parpola, Asko. 1994. *Deciphering the Indus Scrip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ne Willard van Orman. 1960. *Word and Object*. Cambridge, MA: MIT Press.
- Reischauer, Gerald M. 1969. Perceptual recognition as a function of meaningfulness of stimulus materia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81, 275-80.
- Saenger, Paul. 1991. The separation of words and the physiology of reading. In: David R. Olson and Nancy Torrance (eds.), *Literacy and Or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4-214.
- Sampson, Geoffrey. 1985. *Writing Systems: A Linguistic Introduc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hibatani, Masayoshi. 1990. *The Languages of Jap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hn, Ho-min (손 호민). 1997. 1997. Orthographic divergence in South and North Korea: toward a unified spelling system. In: Y.-K. Kim-Renaud (ed.), *The Korean Alphabet: Its History and Structur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3-217.
- Stadler, Martin Andreas. 2008. On the demise of Egyptian writing: Working with a problematic source basis. In: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 (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London: Equinox.
- Vos, F. 1964. Papers on Korean Studies. In: J. K. Yamagiwa (Ed.). *Papers of the CIC Far Easter Language Institute,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Webster, Noah. 1992. Declaration of linguistic independence. In: J. Crawford (ed.), *Language Loyalties: A Source Book on the Official English Controvers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3-36.
- Wheatley, P. 1971. *The Pivot of the Four Corner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2016년 10월 7일 (금) 10:00 ~ 16:20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 제2부: 연구 발표

한자 병기 방식의 한자 교육이 교육적이지 않은 한자학적 이유

김 경일

상명대 중국어문학과 교수

aoxkim@smu.ac.kr

1. 문제 제기

女眞(여진), 肅愼(숙신), 拷問(고문), 古文(고문) 등의 표기는 익숙한 한자 교육 방식의 하나이다. 앞에 쓴 글꼴의 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굳이 이렇게라도 이름 모를 글꼴을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데에는 이 글꼴들의 음을 알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이유는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동안 당위성을 얻은 적이 있었다. 그 후 그 글꼴들 없이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주장은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이들 글꼴들이 없으면 의사소통도 어렵고, 전통의 계승도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한자 兵器(병기), 아니다 併記(병기)의 한자 교육 방식을 主將(주장)하는, 아니다 主張(주장)하는 흐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또 지루한 말씨름이 이어질 모양이다.

천자문 공부부터 시작해서 동몽선습, 고문진보, 여한십가문초, 대동시선, ... 설문해자, 죽간, 청동 문자, 갑골문, 간체자 등으로 한자와 한자에서 파생된 다양한 글꼴과 의미들을 다루어 본 결과 漢子(한자) 형태의 표기 방식의 교육으로

漢字(한자)가 지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광화문의 세종 동상을 보여주고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나누었던 긴 고뇌를 깨닫기를 바라는 일보다 더 허망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다시’ 등장한 이 오래된 집념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앞뒤를 다 짚어 보면 결국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자를 그렇게 가르치면 무엇이 문제가 될 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한다. 곁들여 분명 한국의 역사 속에 녹아 있기도 하고 21세기의 실존적 갑이기도 한 중국 글자와 유사해 보이는 한자를 아예 모른 채 지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려 한다. 동일한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예들에 대한 반박은, 말로 하는 방송이 한자어의 음과 훈을 불러주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그냥 지나치려 한다.

2.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설명

2.1. 한자 발생학적 검토

한자를 후대에게 교육하려는 이유의 하나는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거나 한자 기록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즉, 한자를 알아야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 현실이 분명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알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한자가 지닌 의미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단순화 시켜 표현하면 이들 교육의 태도는 일반적인 한자의 훈을 근거로 한문 문헌의 해석을 진행하려는 입장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문헌학적인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해석이라는 작업을 하곤 한다. 물론 해석의 결과는, 익숙한 사람들은 감지할 수 없겠지만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픽션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익숙한 단어 몇 개를 들어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한다.

먼저 동이에 대해 살펴본다.

‘東夷’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며 그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헌은 『後漢書』 「東夷傳」이다. (그 이전 陳壽(233-297)가 지은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어 ‘東夷’ 명칭의 기원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東夷傳」은 맨 처음 도입부에서 『禮記』 「王制」의 기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東夷’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王制》에는 동방을 ‘夷’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夷’는 다음의 아홉 종류가 있다.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

《王制》云; ‘東方曰夷’……夷有九種. 曰畎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그리고 ‘東夷’의 특성에 대해서는 『說文解字』의 다음과 같은 문자 풀이를 근거로 활 잘 쓰는 민족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夷’는 동쪽 지역 사람들이다. 글꼴은 大와 弓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東夷’와 관련한 명칭들의 흔적들은 殷代 갑골문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다음에 보이는 ‘東尸’의 기록이 그것이다.



최초의 東夷 표현 갑골문 글꼴 『습』8410反

흔히 동녘 동으로 읽는 한자 東은 흔히 해가 뜨며 나무에 걸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풀고 있다. 그런가?





갑골문 자형
『英』0173



갑골문 글꼴
『습』18512



갑골문 글꼴-60
『습』17950



갑골문 글꼴-61
『습』17949

사실 東은 막대에 망태기를 고정시킨 배낭의 모습이며 주로 곡물을 저장하여 메고 다니는 도구였다. 무거울 重의 고대 자형은 사람이 東이라는 배낭을 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오랑캐 이로 읽는 夷는 정말 활 잘 쏘는 오랑캐의 모습을 묘사한 글꼴인가? 다음 글꼴들을 자세히 보기로 한다.



金文 글꼴
‘兮甲盤’



金文 글꼴
‘柳鼎’



金文 글꼴
‘夷鼎’



『說文古籀補』
글꼴



『說文古籀補』
글꼴

이번에는 배울 학으로 읽고 있는 學에 대해 살펴본다.

『論語』가 漢代 경학가들에 의해 편찬되고 그 주해 역시 주류로 자리하게 되면서 『論語』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는 거의 대부분 漢代 경학가들의 이해 범주 안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論語』 「學而」의 첫 문장에 등장하는 /學/을 /배우다/로 간단하게 치환해 버리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十三經注疏本：論語』 속에서 /學/을 /誦/과 /習/ 즉, /외우다/와 /익히다/로 단정한 馬融의 주해에 아무도 새로운 질문을 던진 일이 없기 때문이다. 宋代의 邢昺은 이를 답습해서 외우고 익혀야 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다름 아닌 경학서라는 주해를 곁들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漢代의 경학자인 包咸은 /朋/을 /同門/으로 치환한다. 이를 통해 '朋'은 같은 스승을 섬기는 제자들의 의미로 한정되었고 마찬가지로 宋代 邢昺에 의해 재확인된다. 이러한 경학적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권위를 근거로 /學/을 /배우다/로 /朋/을 /同門/ 또는 /친구/로 치환하는 작업은 『論語』 읽기 과정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이 반복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풀이의 권위’는 저절로 단단 해졌다. 그리고 지금도 이 권위는 지속되고 있다. 이게 뭐하는 짓이지?

다음은 흔히 배울 학으로 읽고 있는 學, 가르칠 敎의 고대 글꼴들이다.



갑골문 글꼴
합18222正



갑골문 글꼴
합3513



갑골문 글꼴
합3511



갑골문 글꼴
합8732



갑골문 글꼴
합20100



갑골문 글꼴
합36650



갑골문 글꼴
합39430



갑골문 글꼴
합27712



금문 글꼴
金224



그림 13
합28008



그림 14
합5617



그림 15
합27733

사실 學은 제례 공간이었다. 다음의 갑골문을 보자.

若, 𠄎于學?- 순조로울까? 제례 공간인 '學'에서 𠄎 제례를 지내면. (屯南 662)

于大學尋?- 위대한 제례 공간 大學에서 尋 제례를 지낼까? (屯南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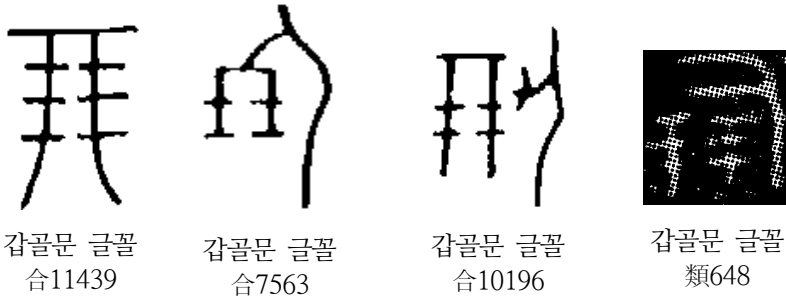
作學于入, 若?- 入 지역에 제례 공간인 '學'을 지으면 순조로울까? (京都 S0060)

서주 시대 역시 學은 ‘배우다’의 의미가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의미, 즉,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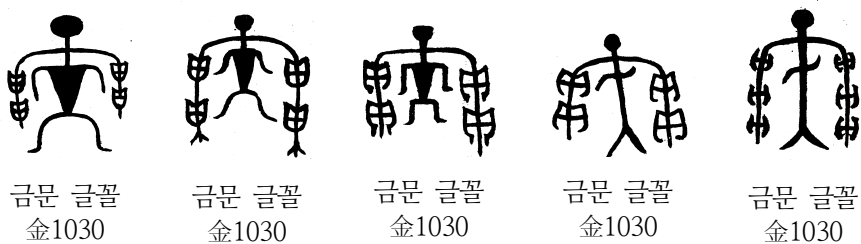
히 조상 제례와 관련된 왕실의 특별 공간이었다.

在昔先王小學.- 옛 선왕들에게 제사하는 小學에 거하다. 「師^整籩」(引5052)
 王令靜司射學宮.- 왕이 靜으로 하여금 선왕들을 제사하는 學의 궁에서 射
 제례를 진행하도록 명했다. 「靜籩」(引5020)
 余佳卽朕小學.- 나는 오로지 왕인 나의 小學, 즉 선왕들에게 제사하는 小學
 으로 가겠다. 「大盂鼎」(引4024)

다음은 벗 붕으로 부르는 朋의 의미를 알아보자. 먼저 갑골문을 보자.



이번에는 동 시대의 금문을 보자.



郭沫若은 이 물건을 줄로 펜 조개로 보면서 '朋'의 글꼴을 조개 장식을 목에 건 모습으로 풀이하고 있다. 동 시대의 조개 貝와 보물 寶 글꼴을 보자.



결국 朋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벗이 아니다. 재물의 단위이다. 殷代 金文에는 貝가 왕이 하사하는 상급의 대상임을 밝혀주는 기록이 있다. 다음을 보자.

虢商小子夫貝一朋...- 虢가 친 아들 夫에게 조개 다섯 개를 하사했다.「小子夫貝尊」(引2081)

그런가 하면 朋은 재화를 다루는 인물이며 한 집단의 통솔자이기도 하다. 다음의 갑골문을 보자.

己丑卜, 賓貞: 令射朋衛? 一月.- 기축일에 卜을 하면서 貞人 賓이 묻는다. 활을 쏘는 부대의 지휘자로 하여금 방어하도록 할까? 일월에. (합13)

또한 朋은 고대 왕실과 혈연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권력 집단이다. 다음의 西周 金文을 보자.

王朋下不其.- 왕의 朋 집단이 커다란 기초를 내리셨다.「盞駒尊」(引2116)
...用好宗廟享夙夕, 好朋友雩百諸婚媾, 用祈屯泉永命,...- ...이 (청동 簋)에 담긴 제물로 아름다운 종묘에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바치고, 또 아름다운 朋友 및 혼인으로 맺어진 친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데 사용될 것이니, 이에 (이 청동 簋가) 어려움 없이 영원히 명을 다할 것을 기원하는 바이다....「乖伯歸夆簋」(類241)

결국 알고 보면 朋은 왕실과 혈연관계에 있는 내부 권력 계층으로 서주 봉건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이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學而時習之’와 ‘有朋自遠方來’를 풀어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이번에는 한의학계의 오랜 숙제였던 脈 관련 문제를 통해 단순한 음과 훈의 교육이 얼마나 비교육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한의학과의 기본 과목으로 『傷寒論』이 있다. 『傷寒論』 이해의 기본 전제는 脈이라는 글자에 대한 해석이다. 전통적으로는 脈을 혈맥 맥으로 읽으며 寸脈으로 이해해 왔고 진맥 역시 寸脈을 잡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음과 훈의 이해에 따른 결론일 뿐이다. (사실 脈의 『說文解字』의 자형은 脈이다. 즉, 血과 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꼴에 대한 이해는 오랜 숙제

였었고 한의학계는 여전히 寸脈의 뜻만으로 脈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헌들이 발견되면서 고대 문헌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학계는 새로 발굴된 漢代 馬王堆 帛書에 나오는 脈 관련 기록들에 관심을 가졌다. 해당 글꼴들과 관련 글꼴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陰陽十一脈灸經’ 甲046



‘陰陽十一脈灸經’ 甲051



溫 ‘足臂十一脈灸經’ 012



溫 ‘足臂十一脈灸經’ 021



肉(月)



肉(月)



月



月



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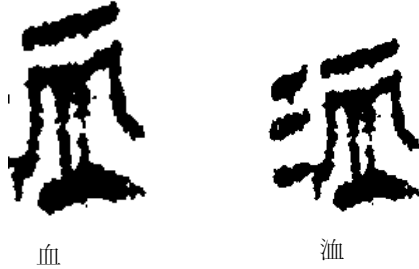


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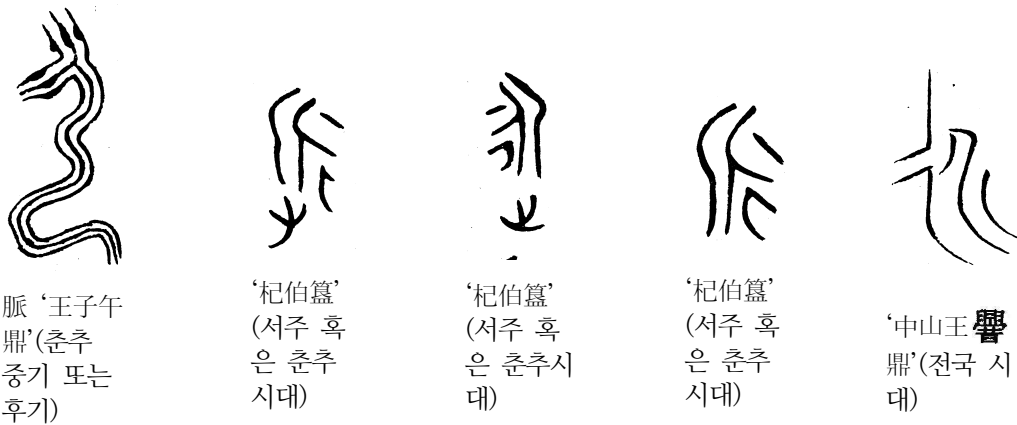
그러나 새로운 문헌 발굴 이해에 대한 인문학적 인프라가 부족한 한의학계는 중국학자의 풀이를 번역해 놓은 『중국 고대 의학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해 차원에 머물고 만다.

“足臂十一脈灸經에서는 脈을 모두 ‘溫’으로 썼는데, 이것은 脈의 이체자이다. ‘溫’의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은 ‘目’인데, 바깥쪽의 ‘口’는 혈관벽을 나타내고, 안쪽의 ‘二’는 혈관 내의 氣와 血을 나타낸다. ‘溫’자는 혈관을 절개해 기혈이 그릇으로 흘러가는 모양을 나타낸다.

하지만 馬王堆 帛書에서는 血을 아래 글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글꼴은 皿과 호환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체 맥락을 모르고 있기에 중국학자는 馬王堆 帛書의 脈을 오해한 것이었고 중국학자의 책을 맹신한 한국사회는 또 다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寸脈의 차원에서만 脈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의 성격상 자세한 고증을 할 수는 없으나) 사실 馬王堆 帛書보다 이전의 脈의 고대 자형과 관련 글꼴은 다음과 같다.



고증을 종합하면, 갑골문이나 金文에 존재하는 脈의 자형은 行, 水, 人의 기본 요소를 근거로 사람의 몸을 흐르는 혈액의 전체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재해석된 『傷寒論』을 바탕으로 한의학계에서는 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한자의 음과 훈을 근거로 한 단순한 한자 교육이, 한자의 발생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려 했다. 즉, 역사 속의 문헌 이해를 전제로 한 한자 교육,

그 중에서도 음과 훈을 근거로 한 한자 병기 교육은 역사 속 문헌이 담은 내용을 제대로 풀어내기에는 어렵도 없는 방식인 셈이다.

2.2. 한자의 미래 확장성 차원의 검토

이번에는 한자를 익히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유용한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1800개 상용한자를 한자 학습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질문을 이 1800개 상용한자의 학습이 어떤 효율성을 지니고 있을 지에 대해 주목해 살펴보려한다. 예를 들어 필자는 주변에서 자녀들이 한자검증시험을 보고 급수를 따야하는 가의 질문을 받을 때 권하지 않는다. 그 글꼴과 음과 훈을 익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 있을까? 질문 중에는 한자를 익혀두면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것도 있다. 과연 한자는 중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까? 먼저 다음의 한자들을 보자.

賣買, 環境, 傳送, 經濟

이들 단어를 중국 간체자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卖买, 环境, 传送, 经济

과연 위의 한자 글꼴을 익히는 것이 중국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까? 더구나 이들 어휘들은 글자 배열이 동일하다. 이번에는 다음의 한자 조합들을 보자.

矧谷, 西雅图, 首爾, 虚拟, 互聯網, 大數據

이들 조합은 한국어 어휘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더구나 이들 글꼴들 역시 다음과 같은 간체자로만 사용된다.

矧谷, 西雅图, 首尔 虚拟 互联网, 大数据

어떻게 보면 예로 제시한 한자어 조합들은 타이완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더구나 이들 발음은 한자어의 발음과 거리가 멀다. 혹시 음이라도 유사하다면 조금 미련이라도 갖겠으나 그마저도 없으니 일반적인 한자교

육의 의미는 더욱 작아진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한자와 중국어의 쓰기 호환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상당 부분 손으로 글쓰기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어의 쓰기 환경 역시 종이보다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즉, 한자 학습을 통해 중국어 학습을 도울 수도 있다는 기대가 무리라는 점을 앞에서 밝혔지만, 설사 가능하다 해도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쓰게 될 때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가능해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어 쓰기를 위한 플랫폼을 고려한 한자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플랫폼에서는 한글 사용이 불가능하다. 흔하게 사용하는 한글, 한자 변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오로지 중국어 발음, 즉 병음방식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經濟가 經濟의 글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경제’가 아닌 ‘jingji’의 알파벳을 사용해야만 소통이 가능하다. 虚拟가 虚拟의 글꼴로 바뀌어야 함을 안다고 해도 ‘허의’가 아닌 ‘xvni’의 병음을 사용해야 쓰기 소통이 완성된다.

종합해 보면, 한자의 학습은 중국어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글꼴로도 발음으로도 또 의미의 차원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 물론 몇 몇 글자의 유사성을 들어 학습을 고집한다면 할 말은 없다.

3. 맺는 말

한자의 학습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시대적 강제를 내면에 담고 있다. 지정학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한자의 학습에 여전히 강제력이 살아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한반도에 사는 한 앞으로도 한자로 된 정보들을 떠나 살 수는 없다. 이전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분량의 한자 관련 데이터들을 접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정보들은 모두 모바일 베이스의 디바이스를 매개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한자는 향후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에서 빠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제기되는 한자 병기 방식의 한자 교육 운운은 한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전통 계승을 위한 역사 문헌에 대한 이해 역시 발굴과 발견을 통해 중국에서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의 연구 없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들 거대한 분량의 자료들 역시 IT 기반의 기술과 도구를 매개로 소개되고 있다.

한자 교육에 전혀 다른 차원의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2016년 10월 7일 (금) 10:00 ~ 16:20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 제2부: 연구 발표

한자 지식이 한자어 이해에 주는 효과

이 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thistiger@naver.com

* 이 글은 2016년 9월 23일 열린 제22회 한글문화토론회에서 발표한 ‘초등교과서 속 한자말과 한자 어원의 상관성 분석’을 몇 군데 손질한 것입니다.

우리 문자 생활에서 한자를 사용할 것인가, 사용한다면 어떤 용도로 얼마나 써야 하는가 따위 문제는 해방 뒤 70년 넘게 치열한 논쟁거리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20년은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주요 문자가 한자에서 한글로 옮겨가는 과도기였으므로, 대다수 국민이 서로 명쾌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과도기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자 표기의 역사를 돌아보면, 19세기 말까지는 우리말 한국어를 중국어 문법에 맞게 번역한 한문이 기록과 표현의 주된 방법이었다.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언문 불일치 시대였다. 나라의 공문서는 국문을 위주로 한다는 1894년 고종의 칙령 1호 포고 즈음에, 우리말 문법에 맞춰 언문일치를 이루려는 흐름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독립신문>처럼 쉬운 말을 한글로 적은 획기적인 실천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한성주보>와 같은 국한문혼용의 흐름이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버릇과 생활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인지라 대부분 한자를 일시에

모두 버리지 못했다. 게다가 <한성주보>를 통해 일본 언론인이 부추긴 국한문 혼용의 문체는 일본어 문체와 원리가 같은 것이라 일제 강점기 동안 대중적인 문체로 자리를 잡았고, 그런 만큼 한편으로는 넘어서야 할 장벽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해방 뒤 1948년에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한글전용은 쉽사리 자리를 잡지 못했다.

역사는 지루한 밀고 당기기를 거쳐야 했다. 해방 뒤 한글 위주로 표기하던 교과서 역시 한자병기가 차츰 늘어나다 기어코 1965~1969년 동안은 국한문혼용으로 뒷걸음질 치기도 했고, 1970년부터는 다시 초등교과서에서 온전한 한글전용을, 중등교과서에서는 한자병기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신문은 여전히 국한문혼용이었다. 1990년대에 일간신문의 한글전용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비로소 우리 민족은 한국어를 한글로 적는 언문일치를 이룩했다. 1894년 고종황제가 공문서의 국문 위주 사용을 선포한 지 백 년이 지나서야 한글이 진정한 나라글자로 대접받게 된 셈이다. 그러니 그사이에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한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온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이렇듯 한자를 둘러싼 대립은 우리의 주류 문자가 바뀌는 과도기에 나타난 온갖 갈등 요인을 품고 있다. 그런 탓에 이성적인 토론이 불가능할 때도 잦다. 대개의 혼란은 한자 표기와 한자 교육을 혼동하여 벌어진다. 그리고 이 혼동의 뿌리는 “한자어는 한자 지식을 이용해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자어는 한자에 바탕을 둔 말이므로 한자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는 그동안 우리 언어생활에서 크게 의심받지 않아 왔다. 어떤 낱말이 개념이나 현상을 총체적으로 담아내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자어건 고유어건 마찬가지 이기에 굳이 한자어의 어원적 한계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의 개념이 담아내는 다양한 관계, 하나의 현상에 연결된 다양한 사정, 하나의 물체에 담긴 다양한 성질은 낱말에 아주 부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그 낱말이 대표하는 모든 관계와 사정과 성질은 우리의 언어와 사고 속에서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한자어의 의미가 구성 한자의 뜻으로 투명하게 환원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낱말을 폐기하거나 의미를 부정하려 들지는 않는다. 오늘날 너무 높게 칭송되는 한자의 효능이란 결국 ‘사회적 약속’인 언어생활의 일반 속성이 언중으로 하여금 한자어의 어원을 의심하지 않고 쓰게 강제한 효과인 셈이다. 한자를 알면 한자어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믿음에는 이런 역전된 사정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한자 문제는 늘 입씨름 거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자 교육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가장 주된 명분, 즉 한자어

는 한자에 바탕을 둔 말이므로 한자를 모르면 뜻을 알기 어렵다는 주장을 좀 더 파고 들어가면 한자어 이해를 위한 한자 활용이 오히려 그 명분의 기반을 무너뜨림을 알게 될 것이다. 즉, 한자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한자만으로는 한자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낱말 교육의 핵심 도구로 한자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자어를 포함한 어휘 교육 전반에 좀 더 과학적인 방법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다가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자어의 의미를 익히는 데에 한자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어원 정보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실증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초등 3~6학년 국어, 사회, 과학,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1만 1,000여 개 한자어의 뜻과 한자 어원 정보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1. 한자 논란, ‘표기’보다는 ‘교육’의 문제이다.

한자 문제에는 두 가지 논쟁점이 있다. 하나는, ‘한자어 뜻을 익히는 데에 한자 지식이 꼭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한자어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가’하는 점이다. 한자 중시론¹⁾에 선 사람이나 한글전용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 논쟁에서 이 두 문제를 자주 혼동하고 뒤섞어 말한다. 그러다 보니 논점에서 벗어나 엉뚱한 과녁을 겨눈다. 두 문제는 ‘낱말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채는가’라는 하나의 물음에서 나오지만, 엄밀히 보자면 ‘교육’과 ‘표기’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 새로운 낱말을 이해하는 국면에서 한자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교육의 문제이고, 낱말을 눈으로 지각하고 식별하는 국면에서 한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표기의 문제이다.

생활문화에서 한글전용이 굳건히 자리를 잡은 오늘날, 한자어는 반드시 한자로 표기해야 낱말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은 지지받기 어렵다.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활 경험이 이 주장의 설 자리를 허문다. 우리는 라디오나 전화 따위를 사용하여 한자어를 무수히 포함한 문장을 입말로 주고받지만, 아무런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방송, 강연, 토론, 수업 등에서도 뜻을 아는 말은 귀로 들어서 이해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한글로 적었을 때 이를 읽고 이해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한자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동음이의어조차, 한자어는

1) 문자 표기에서 한자를 혼용하거나 병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문자 습득 초기인 초등학교 공교육에서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 구체적인 안에서는 편차가 있음에도 현재 공교육에서 펴는 것보다 한자 사용과 교육을 강조하는 의견을 아울러서 ‘한자 중시론’이라고 부르겠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 표기 측면에서는 한글전용이고, 교육 측면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대개 문맥 속에서 뜻을 구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소리로 주고받는 음성언어나 글자로 쓰고 읽는 문자언어에서 모두 마찬가지다. 한글조차 모르는 어린아이도 ‘부모, 유치원, 자동차’와 같은 한자어의 뜻을 말로 들어 이해한다면 한글을 배운 뒤 한글로 적어놓은 ‘부모, 유치원, 자동차’와 같은 낱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한자어는 한자로 적어야만 뜻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은, 한자만 사용하는 중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표의문자가 아닌 표음문자 원리에 바탕을 둔 중국어 점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사정은 같다. 표의문자인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표음 원리의 점자를 사용해 글을 읽는다는 건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로 적어야만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반증한다. 이는 한자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표음문자인 한글로 표기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문장에 쓰인 낱말의 뜻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즉, 말로 들어서 문장 속의 한자어를 다 이해한다면 그 말을 한글로 적어놓아도 다 이해한다는 이야기이다. 한자 표기를 고집할 근거가 없다. 자주 사용하는 고빈도 한자어는 모두 그 뜻을 알고 있으므로 한자 표기가 필요 없다. 반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저빈도 한자어는 대개 전문적인 용어이므로 그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자로 표기하더라도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²⁾, 포괄수가제(包括收價制)³⁾, 용암법(溶暗法)⁴⁾과 같은 전문적인 용어를 한자로 적어놓는다 하여 일반인이 그 한자를 읽고 정확한 뜻에 다가가기란 쉽지 않다. 낱말의 뜻을 모른다면 한자로 표기하든 한글로 표기하든 매우 모호한 수준에서 뜻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앞의 낱선 세 한자어도 설명을 읽고 나면 그 뜻을 어느 정도 알게 되므로 한글로 표기한다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뜻을 모르는 낱말은 ‘교육’의 영역에서 해결할 일이지 ‘표기’의 영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2) 심장에 마비가 왔을 때 심실과 심방의 간떨림을 억제하여 규칙적인 심장 박동의 리듬을 찾도록 심장에 강한 전류를 순간적으로 보내는 기기. 한글문화연대에서 요구하여 ‘자동심장 충격기’라고 바꾸어 부르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6년 5월)했다. 한글문화연대에서는 결코 고유어만을 사용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공공 영역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사용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게 한글문화연대의 운동 정신이다.

3)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의료비 정찰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4) 도움이나 촉진을 점차 줄여 나가서(fade out)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행동 중재 방법의 하나. 특수교육 분야에서 심리치료 기법으로 활용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자 중시론도 모든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자신들의 핵심 논리를 모호하게 흐리면서, 한자를 가르쳐 한자어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강조점을 옮긴다. ‘교육’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아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자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에 한자 지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그 한자 지식이란 결국 한자의 ‘모양’(표기 영역)이 아니라 한자에 붙어 있는 ‘의미’(교육 영역)라고 보는 것이다.

“가령, ‘문제의 난이도’라는 용어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 한자를 배운 사람의 경우에는 ‘난이도(難易度)’란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글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배우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쉽고 어려움의 정도’라는 의미를 그 전체로서 암기하여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⁵⁾

‘개별 글자의 의미’가 결국은 한자어 이해에 관건인 한자 지식임을 한자 중시론자들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낱말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한자 ‘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자혼용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한자병기조차 신조어나 전문어를 사전에서 정확하게 찾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다. 한자혼용이나 한자병기 확대 주장은 영어를 사용하면서 로마자에 고대 그리스 문자를 혼용하거나 병기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굳이 어원을 밝혀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두 가지 문자를 함께 사용하는 표기 방식은 읽기에 걸림돌일 뿐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표기와 교육의 두 요소가 함께 다가올 때도 있다. 혼자 글을 읽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자말이 나왔을 경우다. 이때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된다. 하지만 한자가 다르고 한글로는 모양이 같은 동형어가 많다면 국어사전에서 어떤 낱말을 골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한자 표기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리고 한자를 알고 있다면 그 한자를 보면서 한자말의 뜻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럴듯한 문제 제기다.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 처지에서는 얼굴 모르는 독자가 내 글 가운데 어떤 한자말을 몰라 곤란해질지 미리 알 방도가 없다. 만일 이런 걱정이 크게 인다면 모든 경우에 대비해 모든 한자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선택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 그게 아니라면 글쓴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조어나 전문용어 등 일반적인 독자가 낯설게 느낄만한 한자말에 한해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국어기본법에서 허용한 한자병기의 원칙이다. 이럴 때 한자는 사전에서 그 낱말의 뜻을 찾아가는 꼬리표 노릇을 한다. 사실, 사전에 올라있는 동형어가 많다고 해

5) 감 지연 외, ‘국어기본법 등 위헌심판청구서’ 4쪽, 2012, 10,

도 용례를 비교해보면 문맥으로 충분히 구별할 수 있으니 동형어를 헛갈릴 위험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자 중시론자들은 왜 한자혼용이나 한자병기 확대와 같은 표기 문제를 강조할까? 그것은 한글전용이 읽기에 불편함을 주기보다는 한자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한자를 잊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⁶⁾ 즉,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한자를 재교육하는 수단으로서 한자 표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쌓은 지식의 많은 부분이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건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한자 표기는 한자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다. 그리고 이는 한자 지식을 보전하여 다른 한자어를 습득할 때 그 지식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교육 방법을 전제로 삼기에 나오는 요구다. 결국은 한자어 교육의 문제이다.

한자 중시론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강도 높은 한자교육을 원하는데, 이는 한자 중시론이 낱말 교육에서 한자가 실제로 맡는 역할보다 지나치게 큰 의미를 한자에 부여한 탓이다. 그런데 과연 한자 중시론의 주장대로 한자어의 뜻은 ‘개별 글자의 의미’를 더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이 문제를 짚어 보자.

2. 한자어 이해에 한자 지식이 주는 도움은 천차만별이다

2.1. 한자가 의미에 기여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한자어의 의미는 대개 구성 한자의 뜻을 모아 꼬집어낼 수 있다고들 여긴다. 우리 토박이말을 중국 한자와 비슷한 음으로 압축 번역한 것이 한자 음이고, 이 한자 음을 모아 만든 낱말이 바로 한자어이므로, 한자를 알면 낱말 뜻 이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⁷⁾ ‘난이도’라는 말은 ‘어려울 난, 쉬울 이, 정도 도’라는 한

6) 한자 정보 중심으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습관을 지녔다면 한자 표기가 매우 중요한 식별 조건이 될 수 있다. 한문 시대에서 한글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태어나 글을 배우고 쓰던 식자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응이다. 그렇지만 1970년 초등교과서 한글전용 뒤에 글을 배우고 쓰기 시작한 세대는 이런 습관과 거리가 멀다. 이들은 한글전용 문서에 익숙하고, 한글전용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음도 체험한 세대다.

7) 이 건범, 2016, <한자 신기루>, 도서출판 피어나, 5장을 참조하라. 영어에서 ‘sky’라고 표현하는 대상이 우리 토박이말에서는 ‘하늘’이고 중국어에서는 ‘티엔’이다. 중국어에서는 이 ‘티엔’을 ‘天’이라고 적고 ‘티엔’이라고만 읽는데, 한국 한자에서는 ‘天’이라 적고 ‘하늘 천’이라고 익힌다. ‘하늘’을 ‘티엔’과 비슷한 ‘천’이라는 음으로 압축 번역한 것이므로 그 훈인 ‘하늘’로 ‘천’의 뜻을 설명해준다. 이 압축 번역 효과가 한자는 뜻을 가진 글자이고 한글은 뜻을 표현할 수 없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한자도 중국어에서는 표음 기능을 지니는 문자 본연의 역할을 하며, 한글이 자모 글자만으로는 뜻을 표현하지 않지만 낱말을 표기하면 당연히 뜻을 표현한다.

자를 모아 만든 말이니, 그럴듯하다.

그러나 사정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한자어 이해에서 한자가 주는 도움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한자어 이해에 한자 지식을 동원할 수 있지만, 한자 지식이 쓸모가 없는 경우도 많다. 한자에 달린 훈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한자 중시론에서 예로 든 ‘난이도’라는 말로 돌아가 보자. 이 낱말은 ‘어려울 난, 쉬울 이, 정도 도’라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뜻은 ‘어렵고 쉬움의 정도’이다. 한자에 맞춰 이루어진 풀이를 보면 한자어 이해에 개별 한자의 의미가 연결된다고 믿기 쉽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글자인 ‘정도 도’에 주목해보자. 이 글자의 훈인 ‘정도(程度)’라는 말은 한자어인바, ‘정도’라는 낱말을 구성하는 개별 한자 ‘한도(限度) 정, 정도(程度) 도’의 의미를 더하면 그 뜻이 ‘한도와 정도’라는 한자어로 되돌아간다. 무한정 일어나는 동어반복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던 말인 ‘정도’라는 한자어의 뜻을 우리는 한자 지식으로 도무지 해명할 수 없다.⁸⁾ 사실 우리는 ‘정도’라는 말의 한자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 말을 사용하는 다양한 체험을 거쳐 뜻을 익혀버린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말의 한자 어원이 ‘정도 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동어반복이라면서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체험 속에서 형성된 머릿속 사전의 개념 덕에 한자 어원과 낱말 개념 사이의 상관성은 전혀 강력하거나 중요하지 않아서다.

이렇듯 한자의 훈이 설명해주어야 할 한자의 음을 포함하고 있어 동어반복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한자 뜻을 더하여 그 낱말을 설명할 수 없다. 기초한자 1,800자의 30% 남짓은 대표 훈이 한자어이고, 대개는 설명해야 할 한자를 그 훈에 담고 있다.⁹⁾ 예를 들어 판단할 판, 재물 재, 법 법과 같은 글자이니, 훈이 있으나 마나 한 동어반복일 뿐이다. 이런 한자는 훈에서 뜻을 끄집어낼 수 없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다. ‘정도 도’의 훈은 20개가량이고, 그 대표 훈은 ‘법도’인데, ‘법도’든 ‘정도’든 뒤의 그 ‘도’는 자기 자신과 같은 말 ‘도’이니,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나다.”라고 답하는 꼴이다. 이런 한자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한자어보다는 근대 서양 문물을 번역한 한자어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서 오늘날 쓰는 한자어의 상당수가 이런 동어반복 문제를 안고 있다.

8) ‘정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1. 사물의 성질이나 가치를 좋고 나쁨과 우열 따위에서 본 분량이나 수준.(예: 정도의 차이, 중학생이 풀 정도의 문제), 2. 알맞은 한도.(예: 정도에 맞는 생활),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그만큼가량의 분량.(예: 20리 정도의 거리) 등 세 가지 뜻풀이가 나온다.

9) 교육부에서 한문교육용으로 권장한 기초한자 목록에는 훈이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표준화된 한자 훈은 없는 셈이다. 이 한자의 훈을 정리한 사람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략 28~32%의 한자는 훈이 한자어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어문회의 한자 가운데에는 25%의 한자가 훈이 한자어인 경우였다.

앞서 한자어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한자 지식은 바로 ‘한자의 훈’이라는 점을 밝혔는데, 먼저 한자 훈이 한자어인 경우에 대부분은 동어반복에 빠진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훈이 한자어인 한자 말고 훈이 고유어로 되어 있는 ‘어려울 난, 쉬울 이’와 같은 한자가 들어간 말은 한자 지식이 도움되지 않겠냐고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중고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가운데 70% 남짓의 한자는 대표 훈이 ‘아비, 어머니, 어렵다, 쉽다’와 같은 고유어이다. 이 경우에, ‘부모’는 ‘아비 어머니’라 풀이되므로 말뜻과 한자 어원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 ‘난이도’에서 ‘난이’ 또한 ‘어렵고 쉬운’이라고 풀이할 수 있으므로 ‘부모’처럼 한자어 말뜻과 개별 한자의 의미 사이에 상관성이 매우 높다. 한자 중시론은 주로 이런 한자어의 이해에 한자 지식이 도움된다는 사실을 앞세워 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가 고유어의 뜻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훈이 고유어인 한자들은 훈을 더하여 해당 한자어의 뜻을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지만, 그 기대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훈이 고유어임에도 ‘사회(社會)’와 ‘회사(會社)’는 ‘모임+모임’ 정도의 뜻이므로 한자 어원과 낱말 뜻 사이에 상관성이 그리 높지 않으며, ‘우주(宇宙)’는 ‘집+집’이고 ‘방송(放送)’은 ‘놓아 보냄’인지라 상관성이 전혀 없다. 한자의 훈이 고유어인 경우에도 이렇게 한자어 낱말의 뜻과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 한자어에는 셀 수 없이 많다.

따라서 한자어 의미를 결정짓는 구성 한자의 훈이 동어반복에 불과한 한자어 계열이냐, 무언가 풀이를 대주는 고유어 계열이냐에 따라 한자어는 여러 가지 조합으로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라 한자 어원 정보와 한자어 의미 사이의 상관성이 달라질 수 있다.

2.2. 한자어의 네 가지 유형

한자어는 뭉뚱그려서 모두 한자어라고 칠 게 아니다. 한자 중시론에서 밝혔듯이 한자어 낱말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구성 한자의 훈이므로 그 훈의 속성에 따라 한자어를 나눌 수 있다. 먼저, 훈이 고유어인 한자와 훈이 한자어인 한자 가운데 어떤 한자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크게 한자어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한자 훈을 결합한 결과가 한자어 뜻과 얼마나 상관성이 높은가에 따라 거의 직역에 해당하는 한자어와 의역에 해당하는 한자어, 아무 상관이 없는 한자어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사건이나 사물 사이에 서로 관계되는 성질이나 특성을 상관성이라고 부르는데, 한자 어원과 한자어 뜻 사이의 상관성이 어떠한냐

에 따라 한자어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자 훈의 구성에 따른 한자어 구분

	구성 한자의 훈	한자어 성격	한자어 사례
1무리	모두 고유어	어원 상관성이 높은 한자어. 낱말을 이루는 한자의 훈이 모두 고유어이고, 이 고유어 훈을 엮으면 한자어의 정체기가 바로 보인다. 직역에 가깝다.	부모(아버지 부, 어머니 모) 애국(사랑 애, 나라 국)
2무리	모두 고유어	어원 상관성이 낮은 한자어. 낱말을 이루는 한자의 훈이 모두 고유어이지만, 훈을 엮어도 한자어의 정체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한자 뜻이 주는 실마리를 이용해 의역해야 한다.	사회(모일 사, 모일 회) 자연(스스로 자, 그럴 연)
3무리	모두 한자어 또는 일부 한자어	어원이 동어반복인 한자어. 낱말을 이루는 한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훈이 한자어라 한자어와 구성 한자의 뜻 사이에서 동어반복이 일어난다.	재물(재물 재, 물건 물) 헌법(법 헌, 법 법)
4무리	관계없음	어원 상관성이 없는 한자어. 낱말을 이루는 한자의 훈이 고유어든 한자어든 관계없이 훈을 엮어도 낱말 뜻과 거리가 너무 멀다.	우주(집 우, 집 주) 방송(놓을 방, 보낼 송)

이와 같은 한자어 분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 자르듯이 낱말을 분류하기란 쉽지 않다. 아니, 엄격하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분류 결과를 보는 사람들의 어휘력이나 국어 감수성의 차이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뜻이다. 특히 나이와 학력에 따른 어휘 감각의 차이는 훈이 모두 고유어인 1무리와 2무리를 헛갈리게 한다. 어휘력이 높다면 의역에 해당하는 2무리의 한자어조차 직역에 가까운 1무리의 한자어라고 여길 공산이 높은 것이다.¹⁰⁾ 반대로 2무리라고 할만한 한자어를 4무리로 취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관성이야말로 어휘의미 이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속성이므로 이 주관성이 우리의 언어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세 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한자어,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난이도’와 같은 한자어에서 앞의 ‘난이’는 훈이 모두 고유어이고 직역에 가까우므로 1무리로 분류하겠지만, 마지막 글자인 ‘정도 도’는 훈이 한자어이므로 ‘난이도’는 3무리로 분류한다. 이 역시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도’와 같은

10)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 20대 후반의 젊은 조사자들과 4~50대의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고, 이 때문에 ‘직역’에 가까운 말만으로 1무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말은 한자어긴 하더라도 그 뜻이 어렵지 않으니 웬만하면 아는 낱말인데, 이것이 동어반복적인 한자라고 3무리에 넣는다면 생트집 아니냐는 비판일 것이다. 하지만 ‘한자어의 뜻을 알려면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한자 중시론의 명제에 논리적으로 충실하기 위해서는 한자 공부를 통해 이해한 한자어 외에 다른 경로로 얻은 어휘 지식을 인정해선 안 된다.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한자를 몰라도 한자어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므로, 오히려 한자 중시론의 근본 전제를 허무는 꼴이다. 따라서 3무리로 분류하는 한자어에 대해 적절성을 거론하는 것이 한자 중시론에는 불리할 뿐이다.

이런 한계야말로 한자를 활용하여 한자어를 학습하는 데에 누구든 겪게 될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한자어의 종류를 이렇게 네 무리로 나눔으로써 우리는 ‘한자어를 이해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한자 중시론의 주장이 얼마나 실질적인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할 기준을 얻게 되었다. 한자 중시론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1무리 한자어가 전체 한자어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자어 이해에 한자 지식을 동원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3. 한자어 분류 대상과 기준

이 연구에서는 한자어 의미와 구성 한자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등 3~6학년 국어, 사회, 과학,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한자어를 뽑았다.¹¹⁾ 4개 학년 네 과목 교과서에서 뽑은 한자어는 모두 25,000여 개였고, 각 과목 안에서 중복된 낱말을 하나로 합치니 11,000개가 남았다.¹²⁾ 이 낱말에 해당하는 한자와 그 훈을 찾아 붙이고 사전의 뜻풀이를 옮겨 넣었다.¹³⁾ 이렇게 한자어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사람 이름과 땅 이름, 도시 이름, 나라 이름 등과 같은 고유명사는 해당 한자어에서 뺐다.

둘째, ‘게임-기’, ‘검은-색’처럼 낱말에 한자가 한 글자 들어간 섞임말(혼종어)은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 이 작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초등 교사 10여 명이 한글문화연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수학 교과서에서도 한자어를 뽑았으나, 허민님의 연구(2016)가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12) 국어, 사회, 과학, 도덕 교과서 사이에 중복되는 낱말까지 하나로 추리면 전체 낱말 수는 더 줄어들지만, 하나로 추린 낱말을 어느 과목에 넣느냐 하는 분류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우리는 11,000개의 낱말을 기준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13) 이 작업은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함께 수행하였다.

셋째, ‘가치’와 ‘가치성’처럼 접미사(-성, -부, -화, -도 따위)가 붙어 다른 낱말로 뽑힌 경우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로 올린 말이라면 따로 잡아 분류하였다. 다만 관형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어미인 ‘-적’, 부사형 어미인 ‘-상’은 중복되는 앞말이 있으면 앞말과 하나로 쳤다. ‘문화’와 ‘문화적’이 있다면 ‘문화’만 대상어로 삼았다는 뜻이다.

넷째, 한자의 훈은 교육부 권장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경우 한자급 수시험 주관 단체인 한국어문회에서 ‘사이버 서당’¹⁴⁾을 통해 제시한 대표 훈을 따랐다. 기초한자 1,800자 바깥의 한자에서는 ‘아래 아 한글’의 한자 사전에 나오는 대표 훈을 따랐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는 대개 하나의 음을 가지고 있지만 훈은 최소 5개 이상 20여 개나 된다. 어떤 훈을 취할 것인가는 어떤 다른 한자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수가 많다. 그 모든 훈을 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 대개는 대표 훈만 외운다. 따라서 이런 단순한 상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다섯째, 대표 훈이 고유어일 경우에 다의어라면 각각에 알맞은 뜻을 취했다. 예를 들어, ‘다스리다’라는 말이 ‘정치’에서는 ‘다스릴 치’로, ‘수리’에서는 ‘다스릴 리’로 훈을 대표하는데, 이 두 경우에 ‘다스리다’의 뜻을 달리 잡았다. 이는 조사자의 머릿속 사전에 그 다의어가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고유어의 다양한 뜻을 풍부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자칫 4무리로 분류할 위험을 없애 한자 증시론에서 주장하는 명분에 전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주고자 함이었다.

여섯째, 대표 훈이 딱 하나라기보다는 유명한 게 2개여서 하나만 고르기 어려울 때 나머지 뜻도 반영하기는 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 한자어 분류에서는 실마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2무리로 분류한다. 갓을 보/알릴 보, 무리 등/같을 등 따위가 대표 사례다.

일곱째, 한자의 훈을 결합하여 한자어 뜻과 대조할 때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교과서 용례와 같은 뜻풀이를 골랐다.

3. 초등교과서 속 한자말 뜻과 한자 어원의 상관성 분석

3.1. 어휘 분류의 실제

이제 초등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예로 들어 한자어 의미와 한자 어원의 상관성에 따라 한자어를 분류한 실재를 보이겠다.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14) <http://www.cyberseodang.or.kr/>

나오는 한자어는 모두 250개이다. 이를 구성 한자의 훈이 낱말 의미와 맺는 상관성에 따라 네 무리로 나누면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4-1 사회 교과서 한자어 갈래별 분포

나눔	1무리	2무리	3무리	4무리	합계
낱말 수	82	36	101	32	250
비율	33%	15%	40%	13%	100%

〈표 3〉 4-1 사회 교과서 1무리 어원 상관성이 높은 한자어 보기

	한자	한자의 훈과 음			사전 풀이
감소	少	덜 감	적을 소		양이나 수치가 줄
건립	建立	세울 건	설 립		건물, 기념비, 동상, 탑 따위를 만들어 세움
계획적	計劃的/ 計畫的	셈할 계	그을 획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른. 또는 그런 것
고랭지	高冷地	높을 고	찰 랭	땅 지	저위도에 위치하고 표고가 600미터 이상으로 높고 한랭한 곳
고령화	高齡化	높을 고	령(영)	될 화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나타나는 일
공동	共同	한가지 공	한가지 동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은 자격으로 관계를 가짐
교사	教師	가르칠 교	스승 사		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귀촌	歸村	돌아올 귀	마을 촌		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기초	基礎	터 기	주춧돌 초		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토대
노인	老人	늙을 로	사람 인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당선자	當選者	미땅할 당	가릴 선	사람 자	선거에서 뽑힌 사람
매립장	埋立場	묻을 매	설 립	마당 장	돌이나 흙, 쓰레기 따위로 메워 올리는 우묵한 땅
모의	模擬	본뜰 모	헤아릴 의		실제의 것을 흉내 내어 그대로 해 봄. 또는 그런 일
모집	募集	모을 모	모을 집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음
모형	模型	본뜰 모	거푸집 형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
목장	牧場	칠 목	마당 장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소나 말, 양 따위를 놓아기르는 곳
반영	反映	돌이킬 반	비칠 영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남. 또는 어떤 현상을 나타냄
방지	防止	막을 방	그칠 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음
방파제	防波堤	막을 방	갈래 파	둑 제	파도를 막기 위하여 항만에 쌓은 둑

	食	나눌 배	먹을 식		군대나 단체 같은 데서 식사를 나누어 줌
보수	補修	기울 보	닦을 수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
보육	保育	지킬 보	기를 육		어린이들을 돌보아 기름
보행자	步行者	걸음 보	다닐 행	사람 자	걸어서 길거리를 왕래하는 사람
분석	分析	나눌 분	쪼갤 석		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불만	不滿	아닐 불	찰 만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
사무실	事務室	일 사	힘쓸 무	집 실	사무를 보는 방
산간	山間	메 산	사이 간		산과 산 사이에 산골짜기가 많은 곳
산지촌	山地村	메 산	땅 지	마을 촌	주로 임업과 목축업 따위를 행하는, 산지에 이루어진 마을
생산량	生産量	날 생	낳을 산	량	일정한 기간 동안 재화가 생산되는 수량
소음	騒音	떠들 소	소리 음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수거	收去	거둘 수	갈 거		거두어 감.
수리	修理	닦을 수	다스릴 리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
수질	水質	물 수	바탕 질		물의 성질
수집	蒐集	모을 수	모을 집		취미나 연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음
어부	漁夫	어	남편 부		물고기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연설문	演說文	펼 연	말씀 설	글월 문	연설할 내용을 적은 글
예상	豫想	미리 예	생각할 상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둠. 또는 그런 내용
예측	豫測	미리 예	헤아릴 측		미리 헤아려 짐작함
외국산	外國産	비갈 외	나라 국	낳을 산	다른 나라에서 생산함. 또는 그런 물건.
용지	用紙	쓸 용	종이 지		어떤 일에 쓰는 종이.
우수	優秀	넉넉할 우	빠어날 수		특별히 뛰어나다.
운행	運行	웁길 운	다닐 행		정하여진 길을 따라 차량 따위를 운전하여 다님
읍내	邑內	고을 읍	안 내		읍의 구역 안.
인근	隣近	이웃 린	가까울 근		이웃한 가까운 곳
임업	林業	수풀 림	일 업		각종 임산물에서 얻는 경제적 이윤을 위하여 삼림을 경영하는 사업
자치	自治	스스로 자	다스릴 치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
재배	栽培	심을 재	복돋을 배		식물을 심어 가꿈
재생	再生	두 재	날 생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
저수지	貯水池	쌓을 저	물 수	못 지	물을 모아 두기 위하여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만든 큰 못.
적절	適切	맞을 적	꿇을 절	알맞다	
전시실	展示室	펼 전	보일 시	집 실	물품을 차려 놓고 보이는 방

	用	오로지 전	쓸 용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정화	淨化	깨끗할 정	될 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함.
제공	提供	끌 제	공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
제기	提起	끌 제	일어날 기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
제시	提示	끌 제	보일 시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
제출	提出	끌 제	날 출		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냄
조선	造船	지을 조	배 선		배를 설계하여 만들.
종사	從事	좃을 종	일 사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다
지대	地帶	땅 지	띠 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한정된 일정 구역
차로	車路	수레 차	길 로		사람이 다니는 길 따위와 구분하여 자동차만 다니게 한 길
체육	體育	몸 체	기를 육		일정한 운동 따위를 통하여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일
초대	招待	부를 초	기다릴 대		어떤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청함.
최근	最近	가장 최	가까울 근		얼마 되지 않은 지나간 날부터 현재 또는 바로 직전까지의 기간
추진	推進	밀 추	나아갈 진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감.
축	軸	굴대 축			좌표를 정할 때 그 표준이 되는 축.
축산	畜産	짐승 축	낳을 산		가축을 길러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
출산	出産	날 출	낳을 산		아이를 낳음.
출퇴근	出退勤	날 출	물러날 퇴	근	출근과 퇴근을 아울러 이르는 말
탁	濁	흐릴 탁			액체나 공기 따위에 다른 물질이 섞여 흐리다.
탐방로	探訪路	찾을 탐	찾을 방	길 로	어떤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감+길 또는 '도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토양	土壤	흙 토	흙덩이 양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여 자라게 할 수 있는 흙.
판매량	販賣量	팔 판	팔 매	량	일정한 기간에 상품 따위를 파는 양.
포장	包裝	쌀 포	꾸밀 장		물건을 싸거나 꾸림.
해양	海洋	바다 해	큰 바다 양		넓고 큰 바다.
현장	現場	나타날 현	마당 장		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그곳.
혼잡	混雜	섞을 혼	섞일 잡		여럿이 한데 뒤섞이어 어수선행.
확충	擴充	넓힐 확	채울 충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회관	會館	모일 회	집 관		집회나 회의 따위를 목적으로 지은 건물.
휴가	休暇	실 휴	겨를 가		직장·학교·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
휴식처	休息處	실 휴	실 식	곳 처	휴식하는 곳.
희망	希望	바랄 희	바랄 망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위에서 본 1무리의 한자어는 낱말 의미와 한자 훈 사이의 상관성이 높아서 한자 훈을 더하면 낱말 의미의 정체에 거의 맞아 떨어진다. 이런 한자어는 한자의 훈을 이루는 고유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한자 지식이 도움된다. 즉, 고유어 지식이 한자 지식으로 이전되어 다시 한자어 이해로 전달되는 2단계를 거친다.

다만, 한자 지식을 이용하여 이 한자어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훈으로 잡힌 고유어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수리’의 ‘다스릴 리(理)’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면 ‘수리’는 4무리로 분류될 수도 있다. ‘다스리다’에는 ‘다스릴 치’가 사용된 ‘자치’처럼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의 일을 보살피 관리하고 통제하다.’의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어지러운 일이나 상태를 수습하여 바로잡다.’가 있다. 마찬가지로 ‘제공’의 이바지할 공(供)에서 ‘이바지하다’의 뜻으로 ‘도움이 되게 하다’만 알고 있다면 이 한자어 역시 4무리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바지하다’에는 ‘물건들을 갖추어 바라지하다’라는 뜻이 있고, ‘바라지’는 ‘음식이나 옷을 대어 주거나 온갖 일을 돌보아 주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공’이 1무리의 한자어로 분류될 수 있다.

〈표 4〉 4-1 사회 교과서 2무리 어원 상관성이 낮은 한자어 보기

	한자	한자의 훈과 음			사전 풀이
가구	口	집 가	입 구		집안의 사람 수호
갈등	葛藤	칠틈 갈	등나무 등		칠틈와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과태료	過怠料	지날 과	게으를 태	료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국가	國家	나라 국	집 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군수	郡守	고을 군	지킬 수		군(郡)의 행정을 맡아보는 으뜸 직위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직위
기업	企業	괴할 기	일 업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낭비	浪費	물결 랑	쓸 비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허뜨게 씀
단체	團體	둥글 단	몸 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단체장	團體長	둥글 단	몸 체	길 장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등고선	等高線	무리 등	높을 고	줄 선	지도에서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을

						곡선
미술관	術館	미	재주 술	집 관		미술품을 전시하는 시설
반면	反面	돌이킬 반	낮 면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
부서별	部署別	데 부	마을 서	다를 별		기관, 기업, 조직 따위에서 일어나 사업의 체계에 따라 나뉘어 있는, 사무의 각 부문. + 그것에 따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비밀	秘密	숨길 비	백백할 밀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비용	費用	쓸 비	쓸 용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
삼면	三面	석 삼	낮 면			세 방면
상하수도	上下水道	위 상	아래 하	물 수	길 도	상수도와 하수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서예	書藝	글 서	재주 예			글씨를 붓으로 쓰는 예술
선거	選舉	가릴 선	들 거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
소방서	消防署	사라질 소	막을 방	마을 서		소방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일선 소방 기관
소홀	疏忽	트일 소	갑자기 홀			대수롭지 아니하고 예사로움. 또는 탐탁하지 아니하고 데면데면함
시장	市長	저자 시	길 장			지방 자치 단체인 시의 책임자
심각	深刻	깊을 심	새길 각			상태나 정도가 매우 깊고 중대하다. 또는 절박함이 있다.
양옥집	洋屋-	큰바다 양	집 옥			서양식으로 지은 집
예산	豫算	미리 예	셈할 산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
이상	以上	써 이	위 상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옴.
이장	里長	마을 리	길 장			행정 구역의 단위인 '이(里)'를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
인구	人口	사람 인	입 구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
접수	接受	이을 접	받을 수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음.
주의	注意	부을 주	뜻 의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
처리	處理	곳 처	다스릴 리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지음.
청년	青年	푸를 청	해 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촌락	村落	마을 촌	떨어질 락			시골의 작은 마을.
학습내용	學習內容	배울 학	익힐 습	안 내	얼굴 용	배워서 익힘+사물의 속내를 이루는 것
홍보	弘報	클 홍	값을 보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

2무리의 한자어들에 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대상 한자어가 익숙한 것들이므로 구성 한자들의 훈을 기계적으로 결합해도 한자어 뜻에 이른다고 썼을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언어생활을 하면서 이 말에 익숙해진 탓이다. 이 한자어들 역시 처음 배울 때 한자 훈으로 한자어 의미를 해석하려 들면 고개를 갸웃하거나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느낄 말들이다. 하나하나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	家口: 사람 수를 입에 비유한다.
갈등	葛藤: 칩과 등나무의 얽힘을 비유로 사용한다.
과태료	過怠料: 헤아릴 료에서 돈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국가	國家: 집 가를 왜 붙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군수	郡守: 고을을 지킨다는 뜻으로 직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기업	企業: 일을 꾀한다는 뜻에서 영리를 떠올리기 어렵다.
낭비	浪費: 정도에 넘친다는 뜻을 물결에 비유하였다.
단체	團體: 둥글게 몸을 묶었다는 식으로 의역해야 한다.
단체장	團體長: 길 장에서 우두머리 장으로 훈을 하나 더 익혀야 한다.
등고선	等高線: 무리 등에서 같을 등으로 훈을 하나 더 익혀야 한다.
미술관	美術館: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단지 미술이라고 한정하기 어렵다.
반면	反面: 얼굴을 돌린다는 행위의 의역이다.
부서별	部署別: 부서를 마을에 비유한다.
비밀	祕密: 뻑뻑하다는 뜻이 왜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비용	費用: 쓰는 돈의 개념이 핵심인데 빠져 있다.
삼면	三面: 얼굴에서 면으로 확대되는 훈을 알아야 한다.
상하수도	上下水道: 윗물, 아랫물이 비유임을 알아야 한다.
서예	書藝: 붓글씨 쓰는 예술 영역을 재주에 한정시킨다.
선거	選舉: 무엇을 드는지 헤아리기 어렵다.
소방서	消防署 기관을 마을에 비유한다.
소홀	疏忽:훈의 힘이 너무 약하다.
시장	市長: 행정구역을 저자에 비유한다.
심각	深刻: 중대하거나 절박하다는 뜻의 비유에 해당한다.
양옥집	洋屋: 서양을 바다로 표현한다.
예산	豫算: 계획의 의미가 빠져 있다.
이상	以上: 써 이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
이장	里長: 길 장에서 우두머리 장으로 확대되는 훈을 알아야 한다.
인구	人口: 사람 수를 입에 비유한다.
접수	接受: 이을 접이 무엇을 잇는다는 뜻인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주의	注意: 뜻을 물대듯이 붓는다는 비유가 들어 있다.
처리	處理: 곳 처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년	青年: 푸르다는 뜻으로 젊음을 비유한다.
촌락	村落: 떨어질 락은 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학습내용	學習內容: 안에 담긴 것을 얼굴에 비유한다.
홍보	弘報: 값을 보의 다른 훈인 알릴 보를 알아야 한다.

과태료(過怠料)에 쓰는 ‘헤아릴 료’는 밭에 양분으로 주는 비료(肥料)에도 함께 쓰는 글자이니, 쓰임새에 따라 부여한 의미와 각각의 경우를 구별하는 일은 낱말의 의미를 통으로 외우는 일보다 더 번거로울 때가 많다. 비용(費用)과 낭비(浪費)에서도 같은 ‘쓸 비’를 사용하지만 비용은 ‘돈’이라는 뜻에 한정되고, ‘낭비’는 돈 문제에서도 사용하지만 비교적 ‘물자’를 평평 쓰는 쪽에 자주 사용한다. 언어적 장면이 서로 다르다.

이렇듯이 2무리의 한자어는 비유나 의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한 번 더 징검다리를 놓고 설명해주어야 한자어 정체에 이를 수 있거나, 또는 뜻이 잘 연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훈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한자를 포함한 낱말들이다. 따라서 상관성이 1무리에 비해 매우 낮다. 한자어 이해에 크고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모호함과 의아함도 함께 따라 붙는 낱말들이다.

〈표 5〉 4-1 사회 교과서 3무리 어원이 동어반복인 한자어 보기

	한자	한자의 훈과 음			사전 풀이
가공	工	더할 가	장인 공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임
간척	干拓	방패 간	넓힐 척		육지에 면한 바다나 호수의 일부를 독으로 막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육지로 만드는 일
감독	監督	볼 감	감독할 독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
감사	感謝	느낄 감	사례할 사		고맙게 여김
감옥	監獄	볼 감	옥 옥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개표	開票	열 개	표 표		투표함을 열고 투표의 결과를 검사함
검토	檢討	검사할 검	칠 토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짐
고민	苦悶	쓸 고	번민할 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고층	高層	높을 고	층 층		건물의 층수가 많은 것
곡식	穀食	곡식 곡	먹을 식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 보리, 콩, 조, 기장, 수수, 밀, 옥수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공공기관	公共機關	공평할 공	한가지 공	틀 기	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

	約	공평할 공	맺을 약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공업	工業	장인 공	일 업			원료를 인력이나 기계력으로 가공하여 유용한 물자를 만드는 산업
공평	公平	공평할 공	평평할 평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
과학화	科學化	과목 과	배울 학	될 화		과학적으로 체계화됨. 또는 체계화함
관리	管理	주관할 관	다스릴 리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광역시	廣域市	넓을 광	지경 역	저자 시		상급 지방 자치 단체의 하나
교육청	教育廳	가르칠 교	기를 육	관청 청		시나 군을 단위로 하여 학교 교육이나 그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구역	區域	구분할 구	지경 역			갈라놓은 지역
구청장	區廳長	구분할 구	관청 청	길 장		구(區)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의 우두머리
국민	國民	나라 국	백성 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군민	郡民	고을 군	백성 민			그 군(郡)에 사는 사람
귀농	歸農	돌아올 귀	농사 농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감
기계화	機械化	틀 기	기계 계	될 화		사람이나 동물이 하는 노동을 기계가 대신함. 또는 그렇게 함
기관	機關	틀 기	관계할 관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
기후	氣候	기운 기	기후 후			기온, 비, 눈, 바람 따위의 대기(大氣) 상태
농산물	農產物	농사 농	낱을 산	물건 물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농수산물	農水產物	농사 농	물 수	낱을 산	물건 물	농산물과 수산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농업	農業	농사 농	일 업			땅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거나 하는 산업
농촌	農村	농사 농	마을 촌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이나 지역
다양	多樣	많을 다	모양 양			여러 가지 모양이나 양식
당선증	當選證	마땅할 당	가릴 선	증거 증		선거에서 뽑힘+증명서
대비	對備	대할 대	갖출 비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도청	道廳	길 도	관청 청			도의 행정을 맡아 처리하는 지방 관청
등록	登録	오를 등	기록할 록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나 학교 따위에 문서를 올림
목재	木材	나무 목	재목 재			건축이나 가구 따위에 쓰는, 나무로 된 재료

	主的	백성 민	임금 주	과녁 적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또는 그런 것
배설물	排泄物	밀칠 배	샬 설	물건 물	생물체의 물질대사에 의하여 생물체 밖으로 배설되는 물질
벽보	壁報	벽 벽	값을 보		벽이나 게시판에 붙여 널리 알리는 글
부의장	副議長	버금 부	의논할 의	길 장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의장 다음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비율	比率	견줄 비	비율 른		다른 수나 양에 대한 어떤 수나 양의 비
사례	事例	일 사	법식 레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사항	事項	일 사	항목 항		일의 항목이나 내용
생물	生物	날 생	물건 물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
선착순	先着順	먼저 선	붙을 착	순할 순	먼저 와 닿는 차례
손녀	孫女	손자 손	여자 녀		아들의 딸. 또는 딸의 딸
손자	孫子	손자 손	아들 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수도권	首都圈	머리 수	도읍 도	우리 권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
시기	時期	때 시	기약할 기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시점
신도시	新都市	새 신	도읍 도	저자 시	대도시의 근교에 계획적으로 개발한 새 주택지
안전	安全	편안할 안	온전 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약초	藥草	약 약	풀 초		약으로 쓰는 풀
역사관	歷史館	지낼 력	역사 사	집 관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건물’ 또는 ‘기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연구소	研究所	갈 연	연구할 구	바 소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연평균	年平均	해 년	평평할 평	고를 균	1년을 단위로 하여 내는 평균
온화	溫和	따뜻할 온	화합화 화		날씨가 맑고 따뜻하며 바람이 부드럽다.
완만	緩慢	느릴 완	거만할 만		경사가 급하지 않다
요구	要求	요긴할 요	구할 구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함.
원칙	原則	언덕 원	법칙 칩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위원회	委員會	말길 위	인원 원	모일 회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
위협	威脅	위엄 위	위협할 협		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璃温室	유리 류	유리 리	온	집 실	천장과 벽을 유리로 만든 온실.
의료	醫療	의원 의				의술로 병을 고침.
의원	議員	의논할 의	인원 원			국회나 지방 의회와 같은 합의체(合議體)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가진 사람.
의장	議長	의논할 의	길 장			회의를 주재하고 그 회의의 집행부를 대표하는 사람.
의존	依存	의지할 의	있을 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다
의회	議會	의논할 의	모일 회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
이익	利益	이로울 리	더할 익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인정	認定	알 인	정할 정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일정	一定	한 일	정할 정			어떤 것의 크기, 모양, 범위, 시간 따위가 하나로 정하여져 있음.
자세	子細	자세할 자	가늘 세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전교	全校	온전 전	학교 교			한 학교의 전체.
정부	政府	정사 정	마을 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정책	政策	정사 정	괴 책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조건	條件	가지 조	물건 건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
조례	條例	가지 조	법식 레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종합	綜合	잉아 종	합할 합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합함
지원	支援	지탱할 지	도울 원			지지하여 도움.
지하자원	地下資源	땅 지	아래 하	재물 자	언덕 원	땅속에 묻혀 있는 자원
지형	地形	땅 지	모양 형			땅의 생긴 모양이나 형세
진료	診療	볼 진	고칠 료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
체험	體驗	몸 체	시험 험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
타협	妥協	온당할 타	화합할 협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
토론회	討論會	칠 토	논할 론	모일 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모임.
토의	討議	칠 토	의논할 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
투표율	投票率	던질 투	표 표	비율 른		유권자 전체에 대한 투표자 수의 비율.

	票函	던질 투	표 표	나무상자 함		투표자가 기입한 투표용지를 넣는 상자.
편의시설	便宜施設	편할 편	마땅하다 의	베풀 시	베풀 설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음+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
평등	平等	평평할 평	무리 등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평평	平平	평평할 평	평평할 평			바닥이 고르고 판판하다
폐수	廢水	폐할 폐	물 수			공장이나 광산 등지에서 쓰고 난 뒤에 버리는 물
표어	標語	표할 표	말씀 어			주의, 주장, 강령 따위를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
품종	品種	물건 품	씨 종			물품의 종류.
품질	品質	물건 품	바탕 질			물건의 성질과 바탕
필요	必要	반드시 필	요긴할 요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
항목	項目	항목 항	눈 목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말의 조나 항목
행정	行政	다닐 행	정사 정			정치나 사무를 행함.
현대화	現代化	나타날 현	대신할 대	될 화		현대에 적합하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
현수막	懸垂幕	달 현	드리울 수	장막 막		선전문·구호문 따위를 적어 걸어 놓은 막.
형성	形成	모양 형	이룰 성			어떤 형상을 이룸.
협력	協力	화합할 협	힘 력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3무리 한자어들은 한자의 훈이 한자 음을 포함(기계 계, 기록할 록)하고 있거나 한자의 훈이 음과 같은 한자(층 층, 편할 편)를 담고 있다. 가끔 ‘지경 역’처럼 음이 훈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도 있지만, 이 역시 계속 따져 들어가면 ‘지경’ 또한 ‘땅 지, 지경 경’으로 돌고 돈다. 이런 한자가 포함된 한자어에서 낱말 의미와 한자 어원 사이의 상관성은 어떨까?

대표적으로 ‘감독’은 ‘볼 감, 감독할 독’이라는 두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감독’의 뜻을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감독’이라는 한자어의 뜻을 영원히 파악할 수 없거나 무조건 외워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말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대개 둘째와 셋째일 것이다. 따라서, 이 한자를 알기 전에, 또는 이 한자들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감독’이라는 한자어의 뜻을 알고 있었거나 이 말을 사용하면서 차차 알게 된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감옥’은 ‘볼 감, 감옥 옥’이니 여기서도 감옥의 뜻을 미리 알고 있지 않다면 이 한자 풀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구’는 ‘중요할 요, 요구할 구’이니 이 역시 감독이나 감옥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자를 배우기 전이라도 3무리에 속하는 한자어의 상당 부분

을 알고 있었거나 처음 만났을 당시엔 몰랐더라도 이 낱말을 사용하면서 점차 그 의미를 알게 된다고 추론하는 게 마땅하다. 그 익힘 방법은 무엇일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양한 삶의 체험과 언어 사용에서 보고 들은 언어적 장면들이 우리 머릿속 사전에 쌓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언어적 장면들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개념의 구성도 일률적이지 않다. ‘인정’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일,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스스로 오롯이 기쁘게 보여주는 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이 나의 존재와 가치를 대등하게 허용하는 일, 내 지식이나 경험의 밖에 있던 것을 받아들이는 일 따위 여러 가지 구도의 다양한 장면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미 머릿속 사전에 내장된 개념들은 분명 또 다른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발판 노릇을 한다. 따라서 3무리에 속하는 한자어의 구성 한자 가운데 훈이 한자어인 한자의 개념을 이미 머릿속 사전에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3무리의 한자어를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것은 한자를 알아야만 한자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한자 중시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해석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한자어 이해에서 한자 지식이 필수 요건이 아님을 뜻한다. 단지 한자어를 개별 한자로 분해하여 그 의미를 사후적으로 정비할 때 그것이 한자의 조합임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한자 지식의 역할은 더 나가지 못한다. 이런 한계는 4무리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표 6> 4-1 사회 교과서 4무리 어원 상관성이 없는 한자어 보기

	한자	한자의 훈과 음				사전 풀이
가격	格	값 가	격식 격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
강의	講義	월 강	옳을 의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
건설	建設	세울 건	베풀 설			건물, 설비, 시설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움
극장	劇場	심할 극	마당 장			연극이나 음악, 무용 따위를 공연하거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무대와 객석 등을 설치한 건물이나 시설
기구	器具	그릇 기	갓출 구			세간, 도구, 기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단속	團束	둥글 단	묶을 속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
대기	大氣	큰 대	기운 기			‘공기06(空氣)’를 달리 이르는 말
대상	對象	대할 대	코끼리 상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
대중교통	衆交通	큰 대	무리 중	사귀 교	밝을 통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따위의 교통. 또는 그러한 교통수단

	知事	길 도	알 지	일 사	한 도(道)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 자치 단체장
면적	面積	낮 면	쌓을 적		면이 이차원의 공간을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
명단	名單	이름 명	홀 단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표
무료	無料	없을 무	헤아릴 료		요금이 없음
방안	方案	모 방	책상 안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
보통	普通	넓을 보	밝을 통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어 평범함
분포	分布	나눌 분	베 포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음
사실	事實	일 사	열매 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산책로	散策路	홀을 산	괴 책	길 로	산책할 수 있게 만든 길
선생님	先生-	먼저 선	날 생		‘선생01(先生) 「1」’을 높여 이르는 말
실시	實施	열매 실	베플 시		실제로 시행함
실제	實際	열매 실	즈음 제		사실의 경우나 형편.
실천	實踐	열매 실	밟을 천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여건	與件	더불 여	물건 건		주어진 조건.
절약	節約	마디 절	맺을 약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낌
제안	提案	끝 제	책상 안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음. 또는 그 안이나 의견
제안서	提案書	끝 제	책상 안	글 서	의견이나 원하는 바를 제안하는 문서.
찬성	贊成	도울 찬	이를 성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따위가 옳거나 좋다고 판단하여 수긍함.
취미	趣味	뜻 취	맛 미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 위하여 하는 일.
통과	通過	밝을 통	지날 과		어떤 곳이나 때를 거쳐서 지나감.
행사	行使	다닐 행	하여금 사		부려서 씬.
호소	號召	이름 호	부를 소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마음이나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킴.
후보	候補	기후 후	기울 보		선거에서, 어떤 직위나 신분을 얻으려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나섬. 또는 그런 사람.

이 한자어들은 왜 구성 한자들의 기계적인 결합으로 뜻에 닿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까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격 價格: 돈으로 표현하는 데에 격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 강의 講義: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 건설 建設: 베풀다의 뜻이 닿지 않는다.
- 극장 劇場: 심할 극의 뜻이 닿지 않는다.

기구	器具: 그릇이라는 말을 너무 확장하여 쓰고 있다.
단속	團束: 의역에 의역을 거듭해야 겨우 뜻에 닿을 수 있다.
대기	大氣: 공기의 뜻을 찾을 수 없다.
대상	對象: 꼬끼리와 대상을 연결하기 어렵다.
대중교통	大衆交通: 교통의 의미가 잘 닿지 않는다.
도지사	道知事: 행정 책임자의 의미를 꺼낼 수 없다.
면적	面積: 면을 쌓아야 할 필요를 잘 모르겠다.
명단	名單: 개별 이름표가 아니라 이름 목록이라는 쓰임새가 더 강하다.
무료	無料: 돈의 의미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방안	方案: 책상에서 안건이나 생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보통	普通: 밝다고 할만한 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분포	分布: 베를 나누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사실	事實: 열매의 뜻이 너무 모호하다.
산책로	散策路: 피가 흩어지는 것이 산책의 의미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생님	先生: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은 아니다.
실시	實施: 열매와 베풀다의 뜻이 실시의 어감과 잘 닿지 않는다.
실제	實際:실제는 때와 관계가 없다.
실천	實踐: 열매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여건	與件: 물건과 여건을 연결하기 어렵다.
제안	提案: 책상 안을 안건 안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제안서	提案書: 책상 안을 안건 안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찬성	贊成: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밝히는 행위의 의미가 안 드러난다.
취미	趣味: 맛을 끈다는 뜻인지 뜻을 오해하기 쉽다.
통과	通過: 밝을 통의 의미가 생똥맛다.
행사	行使: 하여금 사, 부릴 사가 낱말 의미에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호소	號召: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다.
후보	候補: 날씨와 후보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억지로 이해하려 든다면 위 한자어 가운데 그냥저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이 낱말들을 써온 어른의 어휘 감각이지 한자를 이용하여 낱말의 의미를 가르치려 들 때 학생들이 맞이할 상황은 아니다. 왜 이런 한자를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 게다가 ‘분포, 후보’와 같은 말은 이런 한자어가 만들어진 일화가 있다면 모를까 한자 훈만으로는 도무지 낱말 의미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감으로는 ‘열매 실’, ‘나눌 분’, ‘베풀 시’ 따위 고유어 훈으로 등장하는 ‘열매’, ‘나누다’, ‘베풀다’와 같은 말이 한자어 의미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알아채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는 이 낱말들이 지닌 구체성에 비해 너무 추상적이거나 다양한 의미를 과중하게 부여하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베풀다’는 말은 1,800자의 한자 가운데 다섯 글자의 훈으로 등장한다. 베풀 시(施, 시설, 실시), 베풀 설(設, 건설, 설문), 베풀 선(宣, 선언), 베풀 장(張, 긴장, 주

장), 베풀 진(陳, 진정) 따위다.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베풀다’의 뜻은 ‘일을 차려 벌이다’라는 뜻과 ‘남에게 도움을 주다’라는 뜻인데, 이 풀이로는 한자의 훈과 한자어의 의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기 어렵다. 예전에는 ‘건물을 베풀다’라는 말도 사용한 듯하나, 지금은 이 말이 너무 어색하고 뜻이 닿지 않는다. 이것이 고유어 어휘 교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자의 훈을 이루는 고유어의 의미가 바뀌거나 사용이 줄어들어 벌어진 일인지는 분명치 않다. 시간 흐름에 따른 낱말 의미의 변화는 중국과 달리 한자의 뜻을 명시적인 훈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 한자의 운명적 한계일 수도 있다.

4-1 사회 교과서 말고 3~6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온 말 가운데 4무리로 분류한 대표적인 말들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간섭 干涉 방패 간 건널 섭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 극복 克服 이길 극 옷 복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 냄.

- 기부 寄附 부칠 기 떼 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 남방 南方 남녘 남 모 방 여름에 양복저고리 대신으로 입는 얇은 옷.
- 누명 陋名 좁을 누 이름 명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 당장 當場 마땅할 당 마당 장 일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
- 덕분 德分 큰 덕 나눌 분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
- 무단 無斷 없을 무 끊을 단 사전에 허락이 없음. 또는 아무 사유가 없음.
- 복도 複道 겹칠 복 길 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나 눈이 맞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씌워 만든 통로.
- 비난 非難 아닐 비 어려울 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 성화 成火 이룰 성 불 화 몹시 귀찮게 구는 일.
- 송진 松津 소나무 송 나루 진 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액체.
- 실천 實踐 열매 실 밟을 천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 안내 案内 책상 안 안 내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 줌. 또는 그런 일.
- 야단 惹端 이끌 야 끝 단 "소리를 높여 마구 꾸짖는 일.
- 역부족 力不足 힘 력 아닐 불 발 족 힘이나 기량 따위가 모자람.
- 용변 用便 쓸 용 똥오줌 변 대변이나 소변을 봄.
- 인상 人相 사람 인 서로 상 "사람 얼굴의 생김새. 또는 그 얼굴의 근육이나 눈살 따위.
- 입장 立場 설 립 마당 장 당면하고 있는 상황. ‘처지(處地)’로 순화.
- 취급 取扱 가질 취 미칠 급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음.
- 친절 親切 친할아버지 친 끊을 절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 현관 玄關 검을 현 관계할 관 건물의 출입문이나 건물에 붙어 따로 달아낸 문간
- 횡단 橫斷 가로 횡 끊을 단 도로나 강 따위를 가로지름
- 휴지 休紙 실 휴 종이 지 밑을 닦거나 코를 푸는 데 허드레로 쓰는 얇은 종이
- 흥미진진 興味津津 일 흥 맛 미 나루 진 나루 진 넘쳐흐를 정도로 흥미가 매우 많다.
- 흥분 興奮 일 흥 떨칠 분 어떤 자극을 받아 감정이 북받쳐 일어남

다의어 수준을 넘어 십수어 개의 서로 다른 의미의 훈을 지닌 하나의 한자에서 대표 훈만을 떼어 내어 그 조합으로 한자어의 뜻과 상관성을 파악하는 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거꾸로, 한자가 그렇게 팔색조 같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자와 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한자어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정해놓은 한자의 어원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하나의 한자에 훈이 너무 많은 탓에 한자의 표의성이 문란해지는 셈이다. 이것이 어떤 명시적인 훈을 고려할 수 없는 중국어에서는 만날 수 없는 문제점, 즉 대개는 고유어를 번역한 한자로 한자어의 뜻을 파악하려는 한국의 특수성에서 오는 문제점이라 하겠다.

3.2. 전체 어휘 분류 결과

앞서 밝힌 기준과 원칙에 따라 11,000여 개의 한자어를 분류하니 과목별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표 7〉 과목별 한자어와 한자 어원의 상관성 분류

			사회		과학		도덕		전체	
	수	비율	낱말 수	비율	낱말 수	비율	낱말 수	비율	낱말 수	비율
어원 상관성이 높은 한자어	1,198	32%	1,053	30%	549	32%	667	31%	3,467	32%
어원 상관성이 낮은 한자어	590	16%	568	16%	285	16%	356	17%	1,799	16%
어원이 동어반복인 한자어	1,670	45%	1,609	47%	802	47%	984	46%	5,065	46%
어원 상관성이 없는 한자어	239	7%	240	7%	87	5%	126	6%	692	6%
합계	3,707	100%	3,470	100%	1,723	100%	2,133	100%	11,023	100%

과목마다 한자어 네 무리의 분포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한자어와 구성 한자의 훈 사이에 상관성이 높은 1무리는 전체 11,000여 개의 32%에 불과한 3,500여 개이고, 한자 훈이 실마리 정도만 제공해주거나 의역과 비유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전체의 16%이다. 한자의 훈이 설명해주어야 할 한자 음을 포함하고 있어 한자 풀이가 동어반복을 일으키는 한자어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6%이고, 한자 훈으로 한자어 의미를 끄집어내려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개념에 다다를 위험이 있는 한자어가 전체의 6%였다. 여기서 2무리와 3무리의 한자어는 구성 한자가 어떻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반복적 의미 확정에 도움

을 주는 것들이다. 4무리는 사후 확인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이 결과로 보자면 한자어 의미 교육에 한자 어원 지식이 필수 요소이므로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실질적인 근거가 매우 약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한자어 이해에서 중요한 요소는 구성 한자의 훈이라고 전제하므로, 한자의 모양 암기나 노출이 관건인 한자병기 및 한자혼용의 근거는 더욱 박약하다.

한자어 의미와 구성 한자의 훈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분류한 이 연구는 오로지 “한자어를 이해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한자 중시론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했다. 한자 중시론에서 상정하는 한자어의 의미란 그 구성 한자에 고유하게 담긴 어떤 고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앞의 분류 실례에서도 보았듯이 한자에 담긴 훈으로 한자어 의미를 가늠하는 이런 분류는 무자르듯이 해내기 어려운지라 혼란을 부를 때가 많다. 바로 그런 어려움과 혼란이 한자 어원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한자말의 뜻을 가르치려 할 때 맞닥뜨릴 당혹스런 상황일 것이다. 게다가 그 어려움은 저학년이건 고학년이건 어느 상황에서나 비슷하게 나타난다. 학년별 한자어 분포를 보면, 저학년에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1무리 위주였다가 다른 무리에 속하는 한자어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다. 학년별 분포에서도 네 무리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학년에 따라 한자어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학년별 한자어와 한자 어원의 상관성 분류

	3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수	비율	낱말 수	비율	낱말 수	비율	낱말 수	비율	낱말 수	비율
어원 상관성이 높은 한자어	866	32%	895	32%	883	30%	823	32%	3,467	32%
어원 상관성이 낮은 한자어	454	17%	443	16%	488	16%	414	16%	1,799	16%
어원이 동어반복인 한자어	1,215	44%	1,271	45%	1,404	48%	1,175	46%	5,065	46%
어원 상관성이 없는 한자어	196	7%	189	7%	164	6%	143	6%	692	6%
합계	2,731	100%	2,798	100%	2,939	100%	2,555	100%	11,023	100%

마지막 문제점으로, 한자 중시론의 가정대로 실행하려면 한자어 이해에 필요한 한자 지식과 학생들의 현실적인 처지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한자어에 등장한 한자는 모두 2,140자였고, 이 가운데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포함된 한자는 1,520자, 그 바깥에 있는 한자는 620자였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고교용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을 넘어서서 1,800자 바깥의 한자까지 가르치지 않으면 한

자어 이해에 한자 지식을 동원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사정을 뜻한다.

4. 고유어의 뜻은 어떻게 파악하게 될까?

일부 극단적인 한자혼용론자를 뺀다면, 한자 중시론에서도 한자를 가르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게 기틀을 잡아주자는 게 주요한 명분이므로, 그 궁극적인 목표란 결국 어휘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어휘를 늘려나가고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고 풍부하게 꾸려가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거들떠보지 않았던 고유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자어와 한자 지식의 관계를 논하는 마당에 고유어의 뜻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냐는 질문은 논점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한자어의 뜻이 고유어의 압축 번역이라면, 그 뜻은 한자에 있는 게 아니라 고유어에 있는 셈이니, 한자어 이해 이전에 고유어 이해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어휘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구성 한자의 훈이 고유어이고 그 훈과 낱말 뜻 사이에 상관성이 높은 1무리 한자어로 제한하여 그와 연결된 고유어의 의미 획득 과정을 살펴보자.

한자 문제를 논할 때 한자 중시론이든 아니든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의 뜻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한자어의 뜻이 구성 한자의 훈에서 온다는 주장에서 한자 중시론은 한자의 뜻을 이루는 고유어, 즉 ‘어려울 난’의 ‘어렵다’라는 낱말의 뜻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아는 것처럼 전제한다. 그렇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어렵다’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어렵다=난’이라고 짝을 맞추는 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 않을까? 앞엿것은 머릿속에 개념을 ‘창조’하는 과정이고, 뒤엿것은 ‘비교’하는 과정이다. 사실, 한자의 훈과 음을 결합하는 일은 ‘하나=일=1’ 정도로 연결하여 짝을 맞추는 매우 단순한 두뇌 활동이지 무어 그리 대단하고 창조적이랄 게 없다. ‘난이’와 같은 한자어의 뜻이야 그 훈인 고유어에 기대어 알 수 있다지만, 이 고유어의 뜻은 어떻게 알게 된단 말인가?

낱말의 뜻은 내 머리 바깥의 세계와 내가 관계를 맺는 활동, 즉 체험 속에서 얻어 간다. ‘어렵다, 쉽다’와 같은 고유어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두어 살의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드는 일, 신발을 신는 일부터 어렵고 쉬움을 체험하면서 아이에게 그 상황과 언어적 장면의 공통된 속성이 기억으로 남는다. 이 기억에 바탕을 둔 개념은 신발의 짝을 맞추는 일, 순서대로 수를 세는 일 따위 좀 더 고차적인 두뇌 활동에서 어렵고 쉬움을 겪으며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초

등학교에 들어가 질문을 이해하고 셈을 해 답을 찾아내는 일, 중고교에서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 등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린 시절의 느낌과는 또 다르다. 그러면서 어렵고 쉬움이 매우 상대적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 또한 지식 습득이나 인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남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 따위, 도덕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일에서도 어렵고 쉬움을 경험한다. ‘어렵다’는 말은 이처럼 몸과 마음과 머리에서 힘이 달려 킁킁대던 모든 경험과 맞물려 있다.

무수한 체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대상과 낱말과 상황에서 다양한 속성을 받아들여 분류하고 귀납적으로 개념을 구성하여 기억한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자기 몸과 문장의 제약에 맞춰 맞물리게 한다. 지시가설에서는 우리가 낱말에서 뽑아내는 생각을 ‘행동유도성(affordance)’이라고 부르는데, 체험에서 얻은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은 문맥 속의 여러 낱말이 제시하는 다양한 행동유도성을 종합하여 문장 이해에까지 다다른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인식 주체에 제공하는 ‘행동유도성’을 인식 주체가 능동적으로 묶어내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타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 움직일 동, 수레 차’라고 한자를 알려줘 사전식 풀이로 이끌 수는 있으나 자동차라는 말이 주는 ‘편안함, 속도감, 위험, 줄리움, 교통체증과 짜증, 지위 상징’ 따위 속성을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살구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살구는 시다’라는 사람들 평을 외우듯이 그저 자동차의 사전식 풀이를 외우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여러 가지 체험에서 얻은 어떤 대상과 활동의 다양한 속성을 머릿속에서 분류하여 저장하고, 다시 그 기억들의 능동적인 활동과 새로운 경험을 종합하여 현재의 개념을 만든다. 이때 어휘의 의미는 국어사전의 정의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체험의 양과 깊이에 따라,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개념은 달라진다. 사전 풀이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모여 일하는 곳’이라는 ‘회사’가 아이에게는 ‘아침마다 엄마 아빠가 나만 떼어놓고 간다는 곳, 엄마 아빠에게 술 권하는 곳’ 정도의 개념이지만, 성인에게 ‘회사’는 ‘살림을 꾸려갈 돈을 벌어오는 곳, 나의 재능과 꿈을 실현하는 곳, 스트레스 생산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전쟁터’ 따위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모일 회, 모일 사’ 정도의 한자 풀이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모여 일하는 곳’의 원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하되 문장의 맥락에 따라 주된 말빛이 다르게 쓰이는 것이다.

체험에 기반을 둔 어휘 의미 이해의 이런 원리는 고유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

니다. 구성 한자의 뜻이 동어반복인 한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도무지 한자 풀이로는 낱말의 의미에 접근할 수 없는 3무리의 한자어, 예를 들어 ‘정도’와 같은 한자어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또한 앞의 ‘어렵다’는 고유어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남들이 그 말을 사용할 때 드러나는 공통의 속성이 머릿속에 쌓여 능동적인 두뇌 활동 과정에서 점차 구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만 먹자, 그 정도로 배고프지 않겠어? 어느 정도 연습하긴 했는데, 너 정도면 충분히 붙을 거야…….” 이런 언어적 장면과 상황을 체험하면서 사람은 ‘정도’라는 말의 뜻을 구체화하고 이해하게 되며, 자신도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체험을 겪으면서 능동적으로 개념을 구성한다. 이런 말은 한자로 뜻을 풀이한다 하여 풀이가 되는 말도 아니거니와 누구도 이런 말을 한자 지식을 동원하여 이해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판단’(判斷, 판단할 판, 끊을 단)이라는 낱말의 뜻을 체험 속에서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그 한자가 동어반복일지라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어렵다’는 말을 왜 ‘오렵다, 아렵다’ 따위로 말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사실은 3무리의 한자어뿐만 아니라 2무리와 1무리의 한자어, 예를 들어 ‘부모, 자동차, 식사, 주차장’과 같은 말도 생활 속 체험에서 그 낱말의 구체성을 쌓아가고 뜻을 알게 되며, 이를 나중에 문자와 연결할 뿐이다. 일곱 살짜리 아이가 한자를 알아서 ‘부모, 학교’와 같은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 나름의 개념을 만든 뒤 나중에 한자와 연결하면 ‘사후 확인’ 차원에서 낱말의 뜻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것뿐이다. 즉, 고유어의 뜻을 습득하는 원리와 과정이 한자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자어건 고유어건 낱말 이해에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누구도 읽거나 듣기의 지각 과정에서 개별 한자의 의미를 따로따로 떠올린 뒤 다시 이를 합쳐 한자어의 뜻을 확정하는 두뇌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대개는 우리 머릿속 사전에 있는 낱말 목록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그 낱말의 뜻을 끌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만, 한자 중시론에서 문제로 삼는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가 고려해볼 직하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상당히 많은 학습용어가 어린 학생들에게 물밀 듯이 제시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용어의 상당수가 한자어이므로, 한자를 미리 배워두거나 한자를 이용하여 용어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낱말을 가르치기 위해 한자를 추가로 더 가르쳐야 한다면 그야말로 학습 부담만 늘리는 꼴이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출현한 한자는 모두 2,100자가 넘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학습 부담을 키우면서까지 한자를 이용한 어휘 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발달 단계상 초등학교 교육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이어야 하는바, 한자를 이용하여 한자

어 형태소를 분석하는 어휘 학습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70%의 한자는 그 훈이 고유어이므로, 오히려 고유어를 제대로 가르쳐야 나중에 한자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양과 어휘의 수를 줄일 필요도 있다.

한자 뜻을 더하여 낱말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은 현상 속에 이런 원리가 담겨 있지만, 한자 중시론에서는 이를 보지 못한다. 그것은 이들이 상정하는 어휘의 의미가 객관주의적, 구조주의적 어휘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분류 작업 역시 그와 같은 어휘관 위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즉, 이 연구 자체가 똑같은 한계를 끌어안고 진행했다는 뜻이다.

서혜경(2014)에 따르면 지금까지 어휘의미 교육은 한자어 풀이나 사전적 의미 풀이 중심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의 바탕 철학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관점이었다고 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어휘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고, 문맥과 독립적인 순수한 명제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어휘가 가지는 의미적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성분분석이나 의미분해 접근법을 취하며, 어휘의미는 본원소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관에서의 어휘의미 교육은 어휘가 가지는 명제적 의미들을 학습하고, 의미의 본원소들을 분석하며, 어휘라는 형식에 담긴 문자적 의미 중심의 어휘 사용력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¹⁵⁾

이런 관점에서는 한자어를 가르칠 때에도 한자어의 ‘의미 원자’인 구성 한자의 훈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는 자신과 무관하게 규정된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낯선 낱말이 등장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낯선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 어휘량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여기에 어휘 교육의 일차적 목표가 잡히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낯선 낱말들을 한자 풀이나 사전적 정의를 외워 의미를 이해하려 들면 그 효율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학습자에게 살아 있는 어휘, 학습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낱말들은 다양한 노출과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화되지 못하고 휘발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사정을 아쉬워하는 게 바로 강제적 암기 교육이다.

구조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인지주의 언어론에서는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에 따라 의미를 얻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고 본다. 사람은 사전의 풀이를 암기하여 의미 파악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15) 서 혜경, 2014, ‘국어 어휘의미 교육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학 박사 학위 논문.

개념화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¹⁶⁾ 이런 관점에서 어휘의 의미는 객관적인 실재를 복제한 것이거나 사전의 풀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인지 체계 안에서 개념을 엮어가는 주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 구성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활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한자어의 의미는 개별 글자의 의미로 환원된다는 한자 중시론의 주장은 낱말의 이해에 관한 근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채 그 표층에서 작동하는 ‘짜 맞추기, 번역’의 작업을 ‘낱말 이해 과정’이라고 오인함으로써 낱말 이해의 일반 원리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상관성이 높은 경우일지라도 한자의 단순한 뜻풀이는 사전의 정의보다도 훨씬 허술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 현실의 맥락적 의미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많다. 낱말 교육 면에서 보자면 현실의 체험에서 얻는 생생함은 사라진 죽은 개념, 아니 아직 살아나지 못한 개념을 외우게 할 뿐이다.

지난날 한글 사용이 일반화하기 전에 쓰던 한자어는 우리 고유어를 번역한 것이었고, 한문은 우리말을 중국어처럼 번역한 글이었다. 그 시기에 고유어와 어울 수 없는 한자 개념은 마치 오늘날의 외래어처럼 수입된 한자어 그대로 쓰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일본이 한자로 번역하였고, 우리가 이를 수입하여 썼다. 이렇듯 번역은 불가피했지만 또한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한자어에 대해 왜 그렇게 이름 붙였는지 한자로 어원을 풀어주면 궁금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단어가 현실을 다 담을 수 없을뿐더러, 새로운 개념을 번역할 때에는 더더욱 불완전함을 피할 수 없기에 조각조각의 한자가 제공하는 뜻이 전체인 것처럼 오해하게 해서는 결코 좋은 공부라고 할 수 없다. 한자어의 어원 풀어야 해줄 수 있다지만, 그것은 낱말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이지 핵심 수단은 아니다. 어휘 교육은 문장 속 쓰임새, 관련어, 문법 성격, 어원을 두루 알려줘야 한다. 특히 다양한 문맥 속에서

16) 서혜경에 따르면, 인지주의 언어론의 관점에서 임지룡(1997: 9)은 국어 어휘의미 연구의 방향을 다음의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연언어는 인간 ‘마음(mind)’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의미는 인지체계 내의 개념화에 다름 아니다. 이 경우 마음과 몸은 깊은 상관성을 맺고 있다. 둘째, 낱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백과사전적이다. 자율언어학에서는 화자의 세상사의 지식과 순수한 언어지식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가정하는 반면, 인지의 미론에서는 의미를 언어지식과 세상사의 지식 속에 들어 있는 인지구조로 보고 둘 사이의 뚜렷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셋째, 언어의 의미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곧 언어의 의미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고 개념화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넷째, 언어 표현의 구조와 의미는 동기화되어 있다. 자율언어학에서는 언어 구조와 의미 간에 자의성을 강조하지만, 언어가 마음 혹은 인지 체계의 산물인 이상 언어의 구조와 의미 사이에는 깊은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본다.(서혜경, 2014에서 재인용)

다른 느낌으로 사용되는 쓰임새를 체험하고 이런 경험을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개념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는 어휘 교육이 중요하다.

한자 지식은 어린 시절보다는 어느 정도 한국어 체계를 내면화한 뒤에 한자말의 한자 어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갖추어도 단어 습득에 문제가 없다.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휘 교육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해도 될 도구를 핵심이라고 앞장세움으로써 어휘 교육을 왜곡할 수도 있고, 중학교 수준부터 시행해도 될 한자 교육 및 활용을 초등 시절부터 강요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만 키운다.

〈참고 문헌〉

김 지연 외, '국어기본법 등 위헌심판청구서', 2012.

서 혜경, '국어 어휘의미 교육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2014, 경북대학교 교육학 박사 학위 논문.

이 건범, 《한자 신기루》, 도서출판 피어나, 2016.

이 건범, '국어기본법 위헌심판 참고인 의견서', 2016.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 발표집

2016년 10월 4일 박음
2016년 10월 7일 펴냄

엮고 펴낸 이: **한글학회**
회장 권 재일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

등록한 날: 1955. 2. 14.
등록 번호: 제1-440호.

* 이 책은 팔지 않음 *

“이 발표 자료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